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사항 080-023-4000
국민은행

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9월 1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42 호

무거운 마음에서 가볍게 살자. 어제와 다른 나, 오늘과 다른 나로 변신하면 아름답다. 매일 거문고 줄을 조율하는 자세로 땀 흘린 보람을 부담없이 느껴보자. 저 공평한 가을하늘을 보면서. 원래 출가(出家)는 세상 사물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소유욕'을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길, 또 무집착은 도(道)의 길이며 자유인이 되어가는 길이다. 나는 실로 '자유인 단계' 살려고 25년 전 출가했다.

그러던 95년 3월 27일 새벽, 안절부절 왠지 괜스레 불안하여 서성대지고 창선도 했다가, 법당으로 서재로 붕붕 떠올았다. 불현듯 시카고 포스터 병원 침대에 누워계신(지매병) 속가 어머님 모습이 떠올랐다. 30년전 내 부모형제 5남매는 미국 시카고로 이민갔고 나는 한달 전에 어머님께서 위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혜 인

독하시다는 소식을 받고 다녀왔다. 이미 흰백은 흐리고 육신만 끌고 일년이 지났다. 생(生)이란 한 조각 구름이요, 사(死)란 그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짐이라고 했다. 송광사 구산 큰스님께서 열반하시기 2년 전에 미국 전지역 순회법회때 미국인 제자와 함께 미국 불심사에 며칠간 기거하셨다. "혼이 있고 육신이 없으면 귀신이요, 육신이 있고 혼이 없으면 송장야. 죽는것은 헌옷 벗고 새옷 갈아 입는 것과 같으니, 옷을 갖

불도와 효도 둘 아닌데…

으면서 갈아입자." 그 말씀은 나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팻팻히 당당하게 웃으며 참회하며 떠나가야지 나도." 무량겁을 두고 일대사(一大事) 되풀이 될 생사(生死), 이것이 우주의 작업이요 현상이다. "따르릉! 따르릉" 새벽 공기를 타고 무겁게 울린다.

'아! 어머님!' 어떤 예감이 온다. 미국 은사스님의 연민에 잠긴 숙연한 음성. "노(老)보살님, 이고 득락 하셨어." 이어진 소식은, "생전에 소원 하나는 서울 불심사 방문하시는 것이었단다." 불효막심이 드러났고, 어머님께서 무조건 사랑하신 기억만 남았다. 그 이후로 불도(佛道)와 효도(孝道)는 둘이 아님을 깨닫고,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아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본다. 오늘 영전앞에 뜨거운 눈물로 참회하고 세속을 떠나 살지만, 혈육에 대한 강한 정은 숨길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금강경〉의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 무릇 모양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사구게를 다시한번 조용히 새겨, 가슴에 넣는다. 〈불심사 주지〉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사찰토지 공원서 제외"

조계종, 분리징수에 산문폐쇄 · 헌법소원등 강력대응

종회도 "입장료 폐지하라" 결의

조계종이 국립공원내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대정부 입장을 결의, 분리징수 문제로 야기돼 온 종단과 정부간의 마찰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은 3일 관람료위원회와 합동징수사찰주지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에 대한 초강경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조계종은 △국립공원에서 사찰소유토지를 제외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한다. △공원폐지와 공원입장료 폐지에 대한 현수막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위사항에 대하여 한시적 기간을 10월15일까지로 정하고 시정되지 않을때는 산문폐쇄등 강력대처한다고 결의했다.

이와관련 조계종은 4일 '공원입장료 폐지돼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종단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이번 사태가 종단의 자주적인 교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불교를 또다시 관권에 예속시키려는 불순한 기도에 의해 자행되는 것으로 규정짓는다"며 공원입장료의 폐지와 공원지역에서의 사찰토지 제외를 거듭 촉구했다.

4일 개회된 중앙종회에서도 분리징수문제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총무원으로부터 입장료분리징수와 관련된 그간의 상황을 보고받은 종회는 △사찰토지와 연관된 공원입장료 폐지 △1991년 12월 내무부장관 총무처장관 문화부장관과 종단이 합의한 내용 이행 △위 결의내용이 10월15일까지 관철되지 않을때는 전국사찰의 산문을 폐쇄하고 전국본말사 주지대회 개최등을 통해 강력대처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계종은 우선적으로 공원입장료 폐지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공원내 사찰토지의 제외를 위한 법률검토작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임연태 기자〉

전국 성보문화재 2천2백13점

전국에 산재한 불교관련 국가 · 지방 지정문화재(성보)가 총 2천2백13점으로 집계됐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6월부터 조사한 '전국 불교관련 지정문화재 현황'에 따르면 조계종단 소유 · 소재 성보는 1천1백4점이고, 조계종단 외 사찰과 박물관 등이 소장한 성보는 1천1백9점. 문화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10월말 〈전국 불교관련 지정문화재 현황 보고서〉를 발간한다.



◇조계종 관람료위원회와 합동징수사찰주지연수회의는 정부에 대한 강경대응을 결의했다.

고운사 나한전 후불탱화 '도난'

조계종 교구본사인 은해사 쌍계사 탱화도난에 이어 제16교구 본사인 경북 의성의 고운사(주지 법조) 나한전 후불탱화(200×134㎝)가 2일 새벽에 도난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운사측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공양주보살이 예불을 올리기 위해 나한전 문을 열려고 보니 잠겨있던 자물쇠가 절단된 채 불상 뒤벽에 붙어 있던 탱화가 없어졌다는 것. 탱화의 제작연대는 미상이며, 현재 경찰이 탱화사진을 입수, 수사중에 있다.

종정감사특위 구성

종회, 17개 안건 다뤄

조계종 제128회 임시중앙종회(의장 설정)가 5일간의 회기로 4일 개회됐다.

11월 예산종회에 앞서 열린 이번 임시종회는 △종정(宗政) 감사 특위 구성 △중앙승가대 이전에 관한 건 △총헌 제개정과 종법 제개정의 건 △상임분과위및 특별위원회활동보고 △종무보고등 17건의 안건을 다룬다. 개회 첫날인 4일 현재 종회는 총정감사특위위원 25명을 선출했다. 또 특위는 총무원과 합동으로 총정감사를 실시한다고 의결했다.

종회는 또 사찰방화범및 미수범의 조속한 검거와 사찰화재 예방을 위한 철저한 예방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백지 | 별공양란 발행 타블로이드 4면

"합동징수원칙 동의"

월주스님-내무장관 면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2일 오후 5시 조해녕내무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합동징수의 약속을 어기고 분리징수를 강행한데 대한 유감을 표하고 "공원입장료의 폐지가 이 문제를 푸는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장관은 "합동징수의 원칙은 동의하지만 입장료의 폐지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어려운 일"이라며 "정책적으로 결정되면 연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월주스님과 조장관은 합동징수의 법제화와 입장료중 문화재 수리보존비의 사찰기여도에 따른 지급문제도 논의, 조계종과 내무 문체 관리공단의 4자가 위원회를 구성 검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월주스님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승가대 군승선발교 지정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지하)가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 학교로 지정됐다.

중앙승가대는 지난 6월 요청했던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대상 학교지정에 대해 1일 국방부로부터 인가통보를 받았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부여 무량사는 신라말 범일국사가 창건한 사찰이며, 보령 성주사(지)는 선문구산(禪門九山) 중의 하나입니다. 모두 신라때 이름난 고찰이지만 여기에는 백제불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무량사 5층석탑(보물 제185호)은 백제탑인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5층석탑을 본따 만든 백제계 석탑입니다. 백제가 멸망하고도 수백년이 지난 고려때 백제의 옛 땅에 세워져 백제인들의 문화와 불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주사지는 백제 법왕 때 창건된 오합사(烏合寺)로 백제 멸망 직전에 붉은 말이 나타나 울면서 백제의 멸망을 예시할 정도로 유명한 사찰이었습니다.

현재 무량사에는 보물 제356호로 지정된 극락전에 모셔져 있는 동양최대의 아미타삼존불을 비롯 석등, 당간지주, 깁시습 부도 등이 남아 있으며, 성주사지에는 최치원의 사산비명(四山碑銘) 중의 하나인 남혜화상백월보광탑비(국보 제8호)를 비롯 석탑 4기, 석불, 석불대좌 등이 번성했던 옛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하늘은 높고 길가의 코스모스와 누렇게 익은 벼이삭이 춤추는 가을의 입구에서 우아하고 격조높은 백제미를 창조했던 백제인의 불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무량으로 이어지는 백제불심

9월 테마여행 - 무량사 · 성주사지

■ 참가 안내

◇출 발: 9월 28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도시락 각자 지참)
◇인 내: 임병고(백제사적연구회장)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불교식 추석차례 17면
국립공원 '관리 엉망' 9면
강화에 외국인선원 건립 19면
절마다 문화상품 있어야 13면



"
지난 35년간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끊임없는 기술창조로 21세기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얼굴을 알리기보다는
기술을 알려 온 기업 - 효성중공업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백대산업.
과부로 느낄순 없지만 꼭 있어야 할 중추산업.
중공업은 모든 산업발전의 근본이자 원동력입니다.
지난 35년간 국내 중공업계를 묵묵히 이끌어 온 효성중공업-
멈추지 않는 도전의식과 기술창조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21세기를 실현해가겠습니다.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 알고보면 가까이 있습니다



전력사업부

■ 변압기, 차단기, 전력용 개폐장치, 철탑설비



기전사업부

■ 전동기, 발전기, 감속기, 주조설비, 환경보전설비, 화학플랜트, 식품설비



자동화사업부

■ 제철설비, UPS, PLC용 전력전자, 철강 SYSTEM, CONVEYOR SYSTEM, FA SYSTEM, 산업제어 SYSTEM



건설사업부

■ 아파트, 오피스빌딩 등 각종 건축공사, 도로, 항만건설 및 포장공사, 포장공사, 준설공사

사 설

사찰재산권 수호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함께 받아오던 정부가 갑자기 '분리징수'를 강행함으로써 불교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법주사등 일부 사찰에서도 산문폐쇄등 강경한 대응을 선언하고, 총단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일에는 관람료 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국립공원에서 사찰소유토지를 제외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하는 등 정부와 불교계의 갈등과 마찰이 증폭되고 있다.

왜 불교계가 분노하는가. 그것은 이미 국립공원이 생겨날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원법이 1967년 제정·공포되고 당시의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강압적으로 지리산을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을 때 불교계 안팎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나 그 시행을 미루기까지 했다. 1972년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유신정국 속에서 강행되어 많은 물의를 일으켜 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20개의 국립공원 속에는 역사적으로 깊은 전통을 가진 불교문화유산이 많다. 사찰소유의 토지나 경관이 국립공원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사찰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 당사자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공원정책은 불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진지한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강압행정·전시행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불교계의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어왔다.

우선 삼보정재이고 민족문화유산인 사찰이 획일적인 공원정책으로 황폐화 되거나 수행공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부처님의 사상과 정신을 바탕으로 보존·계승되어온 불교문화재가 잘못된 정부의 고증과 보수·개수등 복원공사로 위기를 맞는 경우도 있다. 석굴암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공원지역의 개발의 강도가 높아져서, 관광지·유락지 등 취락지구의 개발로 사찰환경이 파괴되어 큰 피해를 입고있다. 환경분쟁으로 정부와 사찰이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50여군데가 넘는다.

최근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가야산에 골프장건설 허가를 내주어 불교계와 국민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한 것을 보면 현 정권이 얼마나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삐뚤어져 있는가는 쉽게 알 수 있다. 공원정책은 본래 '황폐해가는 산림의 보호육성과 산림에 서식하는 동물의 보호를 꾀하고 각종 천연자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국민의 문화연구와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는 허울좋은 명분이라는 점이 속속 밝혀져 온 것이 사실이다.

특권층을 위한 골프장, 위락시설, 집단시설 등의 건설로 국립공원 안의 자연경관과 사찰경관, 불교문화유산을 파괴함으로써 오히려 국립공원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불교유산이 공원지역에 편입됨으로써 불교계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포기하기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원안의 수려한 경관과 전통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사찰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왔다. 사찰재산도 사유재산이므로 그 소유권은 헌법을 비롯한 법률에 대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만약에 공공필요, 질서유지등으로 사용·수익·처분에 있어서 필요한 제한을 받을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분리징수정책은 즉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공원입장료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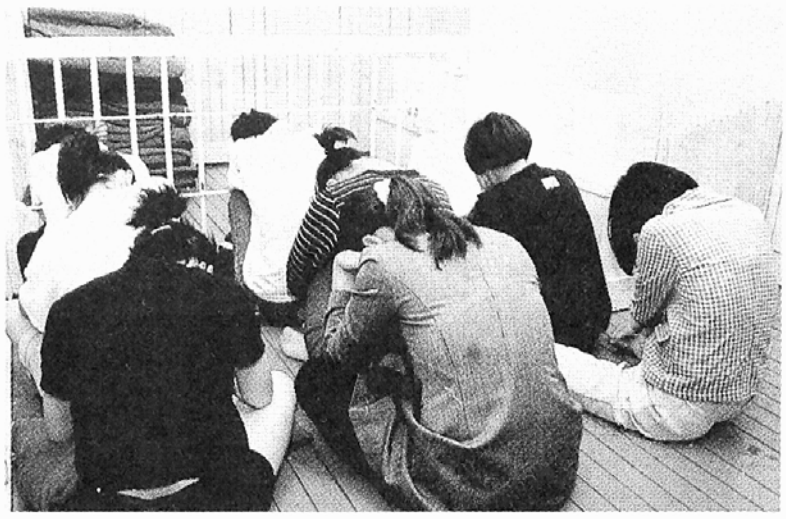
박구원



이런 법이…

열린마당

만18세이상 음주·흡연 허용



◇청소년의 탈선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유치장에 수감된 유흥업소 10대 접대부들.

행정쇄신위원회는 8월28일 현재 법령마다 달리 규정된 음주 및 흡연등 허용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통일하도록 조정했다가 29일 종교계 교육계와 학부모 등의 반대여론에 밀려 최종결정을 유보했다. 청소년 음주, 흡연 연령하향조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찬성

고교졸업생 사실상 통제권 밖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 금지연령과 유흥업소 출입금지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다고 해서 청소년탈선을 조장한다는 견해는 소극적인 발상이다. 현재 청소년과 관련한 규제법은 들쭉날쭉하게 돼 있어 법집행에도 혼란과 형평성 시비를 초래해왔다.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규제연령을 18세로 내려 체계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또 규제연령을 18세로 내리는 것은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올라가는 기준을 낮춤으로써 보다 책임감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외국에서도 성년의 기준을 낮춤으로써 성년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일찍이 지우고 있다. 이은영〈한국외국어대학 법학과 교수〉

정신·신체적 성숙 고려해야

성인의 기준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춘다는 것은 분명한 논란거리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인 딸과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을 두고 있다. 성인의 기준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나는 찬성하는 편이다.

아이들과 대화를 해 보면 이미 18세도 되기전이지만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성인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신체적인 성장도 그렇거니와 요즘 아이들의 정신적인 성숙도는 생각보다 빠르다. 그런점에서 18세면 이미 다방면에서 성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하고 또 그렇게 대우도 해야 한다.

원미숙〈노원구 상계동〉

연령에 맞춘 규제 비효율적

19살(만18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했다. 술, 담배는 물론 유흥업소에도 아무 꺼리낌없이 다녔고 누구에게 제재를 받은 적도 없다. 미성년자라도 대학생이면 합법적으로 음주나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 연령에 초점을 둔 규제방법은 시대적 조류를 고려치 않은 구습일 뿐이다.

그렇게 따지면 나 개인은 물론 나와 같은 친구들도 법적연령으로는 제한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대학교 1년때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다. 이처럼 잘 지켜지지 않는 법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가. 현실에 맞게 바꾼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합리적인 사고를 가르쳐 준다는 측면에서도 교육적 효과가 있다. 박 완〈한양대 영문과 3년〉

반대

하향조정 청소년 탈선 가중

MBC TV의 '일요일일요일밤에'라는 프로그램 가운데 한 코너인 '이경규가 간다'가 2주에 걸쳐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팔지 않은 '양심가게'를 찾아 나섰다. 98번째에 한 슈퍼마켓에 '양심넹장고'와 함께 '양심가게'라는 표지판을 안겨 줄 수 있었다. 모든 상인이 그 법을 지켜 장사한다면 청소년유해환경은 쉽게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이러한 가게는 1백군데에 하나 정도고 단속도 부실한 실상이다.

때문에 미성년의 기준 연령을 낮추려는 방침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고교를 졸업하면 술 담배를 묵인해 온 우리 관습에서 이를 현실화 하는게 낫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청소년들의 탈선을 오히려 합법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선일스님〈인천시 유해환경감시단 단장〉

18세 대다수가 고교3년생인데…

만18세면 현행 취학제도상 3월이전 출생자를 제외한 대다수가 고교 3년생이다.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8세 대학생들의 입장만을 고려해 연령을 결정한다면 같은 나이의 더 많은 고교생들에게도 흡연과 음주를 허용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 뻔한 일이다. 행쇄위가 이같은 문제를 감안해 미성년 기준을 18세로 하되 고교생을 제외키로 했다고 하나 유흥업소 등에서 이들을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

나는 기준연령을 만19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18세의 대학생과 근로자들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학송〈광동여고 교법사〉

오히려 제도강화 필요한데…

청소년탈선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완화하는 것은 학교, 사회 가정교육의 세가지 축을 급속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고교생을 보호하면서 20세 미만의 청소년근로자, 대학생들을 성인으로 인정하는 예외에 중점을 두어야지 18세 이상으로 바꾸어 대다수 고교생을 예외로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보다는 적용연령 재고, 술·담배판매소, 유흥업소의 여건 강화에 더 비중을 두는 쪽으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조성혁〈조계사학생회 교사〉

행정쇄신위 개정 추진배경

행정쇄신위원회는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 금지연령과 유흥업소 출입금지 연령을 '18세 미만인 자와 고등학생 이하'로 조정키로 하고 오는 10월부터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정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법규가 금지 대상연령과 위반시 벌칙 등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집행상 혼란은 물론 형평성문제가 발생하면서 관련법을 개정, 기준을 통일하기로 한데서 비롯된 것.

현행 법률에는 청소년의 음주 흡연 금지연령을 미성년자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은 20세 미만, 국민건강증진법은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은 18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유흥업소 출입금지 연령과 관련해서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보호법 및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로, 18세 미만을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규 미성년 연령 18~20세 서로 달라 행정단속등 혼란

그런가하면 선거권은 20세부터 주어진다. 이 때문에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행정단속과 법집행, 교육지침은 늘 혼란과 형평성 시비에 휘말려왔다. 또 행정단속과 법 집행의 권위는 더욱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틈을 비집고 싹튼 공무원과 업자들간의 부조리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를 단속하는 공무원이 20세 미만이 기준인 미성년자보호법이나 풍속규제법에 따라 18·19세 청소년을 적발하다가도 업소측과 유착이 되면 그 순간 18세 미만으로 돼 있는 청소년보호법을 잣대로 삼는 등 합법적인 빌미가 돼 왔다.

그러나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미성년기준을 낮춰 조정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탈선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교육계와 청소년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반면 기존 법령의 상당수가 '18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다 사회 전반적인 추세, 선진외국들의 사례를 감안하면 18세 미만으로의 통일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도필선 기자

생활 속의 불교 (137)

건강한 유마거사로 살고 싶거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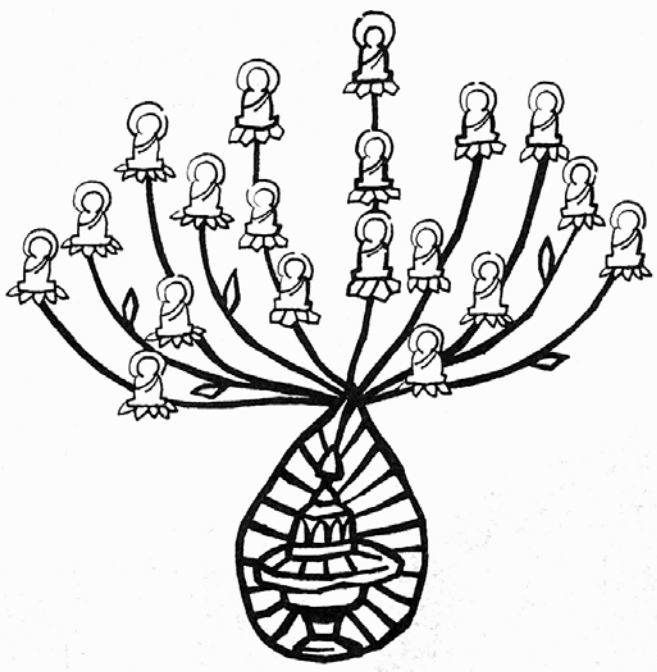
"사람의 몸뚱이 하나에 수많은 중생들이 우글우글 공생하고 있으니 이 몸은 겉으로 보아 하나인 것 같을지라도 실은 수십억 중생의 국토인 것이다.

그리고 그 중생들은 억겁을 거쳐 온 의식으로 뭉쳐서 몸을 집 삼아 돌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 한 몸 깨달으면 육신 속의 수십억 중생이 함께 제도되며 그 중생이 그대로 호법신장도 되고 금강역사도 된다.

육신을 '나'로 여기지 말고 몸 속의 중생들과 같이 한마음이 된 선장을 나인줄 알라. 그 '나'는 전체가 공해서 돌아가기에 개별적인 나가 아닌 포괄적인 나, 바로 주인공인 것이다."

유마거사가 문병하는 이에게 말하기를, '중생의 병이 나아야 내 병도 낫는다.' 하였다.

우리의 몸은 수십억개의 세포가 모여서 한 덩어리를 이룬 혹성과 같은 존재다. 마치 55억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여 지구를 꾸려가는 모습과 닮았다. 고로 유마거사는 중생의 병이 나아야 내 병이 낫는다고 한 것이다. 병든 세포, 병든 조직이 있는한 이 몸을 건강하다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되물음인 셈이다.



각각의 세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생명체이다. 생명체로서 고유의 활동영역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독립적인게 아니라 전체와 각각이 서로 떨래야 뗄 수 없는 필연의 관계를 맺고 있다. 철두철미한 공생체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조립이 가능한 기계처럼 한 부위를 뗏다 붙였다 할 수 없다. 장기이식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른 부위가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할 뿐이다. 말하자면 뭇 중생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할 때의 그 '나'는 덩두렷한 그 무엇이 아니라 몸 속 수십억 중생들의 의식이 한데 뭉뚱그려진 상태를 일컫는다. 그것은 하나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하나인 것이다.

고로 전체로서의 의식이 일사불란하면 건강한 유마거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중생의 병이 낫기를 기다려야 하는 유마거사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유마의 길은 무엇인가. 전체의식이 각각의 의식을 포용하고 거기에 하등의 마찰이나 갈등이 없어서 전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자아의식 세계를 배에 비유하면 이렇다. 우리가 흔히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을 선장이라 한다면 세포 각각의 의식은 승객이 되고 육신은 배에 해당된다. 이 때에 승객은 선장을 신뢰하고 선장은 승객이 원하는 바를 잘 알아 그 소임을 다하면 그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해 순항케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자칫 난파의 위험에 직면케 된다. 우리들 각자의 살림살이, 건강도 그와 비슷하다.

모든 승객들은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기를 바란다. 선장은 모름지기 그 점을 잘 알아서 배를 안전하게 똑바로 몰아야 한다.

모든 세포의식들은 원한다. 생명체다운 약동과 진화와 발전을 원한다. 고통이나 무기력을 싫어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생명체로서의 존재의 목적이요 삶의 목적이기도 하다.

고로 '나'라는 선장의식은 중생이 원하는 바-약동과 진화의 소임에 충실해야 한다. 수십억 세포들이 원하는 기쁨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가장 따르고 안전하게 똑바로 배를 모는 선장이 되어야 한다.

원래 삶이란 고가 아니다. 고통이 아니요 쇠퇴가 아니다. 그것은 생명체 특유의 기쁨이요 진화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바르고 고통없는 경계로 이끌고자 하신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삶은 본래 기쁨인 것-기쁨중에도 참다운 기쁨인 것이다.

건강한 유마는 바르고 바른 길-중도의 기쁨속에 살아 있다. 삶에서 기쁨을 잃으면 병든 유마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명체 의식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키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모든 존재하는 것의 목적은 기쁨의 확대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협 찬 : 故 김 수 완

재산권 침해에 '교권회복' 결의

조계종, '사찰토지 제외' 등 초강수 의미와 파장

10월 15일까지 관철안되면 산문폐쇄

국민 이중부담 공원존폐 중대변수

조계종관람료위원회(위원장 설조)와 합동징수사찰주지 연석회의가 정부를 향해 초강경 입장을 밝힌데 이어 중앙종회도 강력대응을 결의함으로 국립공원내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분리징수'를 놓고 심화돼 온 종단과 정부의 마찰이 공원존폐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조계종의 초강경 대응은 1970년 공원입장료징수 초기부터 제기 되어 온 '분리징수'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어 앞으로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계종이 국립공원지역내의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은 불교계의 재산권행사와 1962년부터 시행했던 문화재관람료의 사찰 단독징수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대목이어서 정부로서는 상당한 난제를 떠안은 꼴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조계종은 전체 국립공원지역에서 사찰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8.3%로 추산하고 있다. 〈표참조〉 도립공원의 경우 15.5%를 점유하고 있으며 군립공원의 경우는 13.6%가 사찰토지로 파악되고 있다.

사찰의 토지가 공원전체 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공원의 기능과 문화재보유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공원지역내 사찰소유 토지의 중요도는 매우 높다. 때문에 산문폐쇄와 사찰토지의 공원지역 제외는 공원존립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계종은 헌법소원등의 조치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만큼 우선적으로 '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에 초점을 맞춰 대정부 대응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공원입장료의 폐지 자체가 합동징수와 분리징수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을 비롯한 각종 공원의 입장료에 대한 폐지 여론은 그간 심심찮게 대두되어 왔다. 공원 출입은 국민의 주권행사라는 측면에서 불교계와 사회단체 산악단체 지역주민단체등이 꾸준히 폐지를 주장해 왔던 것.

자연공원법 제28조(비용부담의 원칙)에도 '공원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것은 국가의 부담으로,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것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기되어 있다. 조계종이 공원입장료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90년 내무부장관, 총무처장관, 문화부장관이 종단과 '합동징수를 행정지침으로 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정부측이 먼저 파기한 이상 시행령에 의한 입장료의 징수도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기인하고 있다.

조계종의 초강경대응에 대해 정부측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리징수 강행'에 따른 조계종과 정부의 마찰은 조계종이 정한 '데드라인'으로 10월15일 이전에 정부측이 최선의 방안을 내놓지 않는한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연태 기자

◇국립공원내 사찰토지

공원	사찰토지	점유율
지리산	63.51	14.42
계룡산	6.00	9.81
설악산	25.00	6.70
속리산	41.10	14.50
재장산	20.86	27.44
가야산	33.30	41.54
덕유산	4.00	1.83
오대산	57.00	19.10
주왕산	36.93	34.98
북한산	2.64	3.36
치악산	0.90	0.49
월악산	6.10	2.14

분리징수 파문 원인

조계종 관람료 10년간 동결 '인상 불가피'
공 단 인상억제 일방적 분리징수 '무리수'

이번 분리징수 파문의 근원은 조계종 관람료위원회가 7월1일부터 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한데 따라 정부측이 인상억제의 방법으로 분리징수를 강행한데서 비롯됐다. 거기다가 문화재관람료의 인상에 따른 잦은 민원을 이유로 일방적인 분리징수를 강행한 공단의 이사장이 일부 해당사찰을 방문, 관람료 인하를 종용하며 분리징수 강행을 주장함으로 조계종의 거센 반발을 샀던 것.

조계종의 관람료 인상조치는 작년 7월 관람료의 자율화가 법적으로 보장된데 따라 그간 5년 내지 10여년간 묶였던 관람료를 현실화 시킨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됐다. 이 조치에 대해 정부가 조직적인 방해작업을 펴며 분리징수의 카드를 쓴데 대해 조계종은 '이미 1962년부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지역에 1970년부터 공원입장료를 추가징수함으로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주어 왔다'고 전제, 분리징수 문제의 단서는 정부측이 제공한 점을 강도높게 환기시키고 있다.

사실 국립공원 입장료는 91년이후 해마다 1백원씩 인상돼왔다. 공원입장료는 공공요금이라는 명분아래 전국립공원이 해마다 일률적으로 인상징수 해 온데 비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지난 10여년간 적게는 4백원에서 많게는 8백원선을 그대로 유지해 왔었다. 이같은 추이를 미루어 볼때 이번 인상조치는 관람료의 '현실화'라는 명분에도 사실상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조계종의 입장이다.

관람료 - 입장료 분리징수 마찰 연자

97년 6월 20일 - 관람료위원회임시회의, 관람료인상결의(7월 1일시행)
7월 1일 - 관리공단, 관람료인상시 분리징수 각 관리사무소에 지침하달
7월 15일 - 백양사 관람료인상, 분리징수 시행
7월 31일 - 국립공원 관람료사찰주지회의, 인상 8월 1일~16일 시행 결의
8월 1일 -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등 관람료 인상
8월 7일 - 지리산남부관리소 화엄사등에 분리징수 통보
8월 14일 - 총무원, 내무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항의공문 발송
8월 20일 - 총무원, 분리징수에 대한 대응지침 해당사찰에 발송
8월 24일 - 김남 관리공단이사장 신흥사 방문, 신흥사 인상보류
8월 26일 - 김남 이사장 갑사, 신원사, 법주사 방문
8월 29일 - 법주사, 공단측 분리징수 강행에 1차 산문폐쇄
8월 30~31일 - 법주사, 인상된 금액으로 합동징수, 산문폐쇄 보류
9월 1일 - 법주사, 공단측 분리징수재개로 2차 산문폐쇄, 입장료 폐지, 김남 이사장 퇴진 1천만인 서명운동 돌입. 관리공단, '관람료 안내리면, 완전 분리매표' 보도자료 발표
9월 2일 - 조해녕, 내무부장관 조계종 총무원 내방. 법주사, 사찰측 단독으로 합동징수
9월 3일 - 관람료위원회, 합동징수사찰주지연석회의, 강경대응 결의
9월 4일 - 조계종 중앙종회 강경대응 결의

조계종 종회 분리징수 토론 중계

4일 개회된 조계종 128회 임시중앙종회에서는 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 2시간에 걸쳐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분리징수 파문에 대한 중앙종회의 강경대응 결의가 나오기까지 종회의원들의 토론 내용을 정리해 중계한다.

"이 기회에 교권찾자"
"YS, 법제화 약속했었다"

○…이번 사태로 종단을 홀대하는 정부의 시각이 드러났다. 이는 재산권의 침해인만큼 이번 기회에 교단의 주권을 찾자.(설정스님 종회의장)

○…국립공원내에서 사찰이 차지하는 토지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해야한다. 서울의 명동 땅값이 괜히 비싼 것이 아니듯이….(정우스님)

○…대선을 앞두고 분리징수로 종단을 자극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화범스님)

○…강력대응과 결의문도 좋지만 아예 투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정대스님)

○…언론들이 사찰을 수입에만 신경쓰는 곳인양 보도하고 있어 큰 문제다. 종단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법등스님)

○…충청지역에서의 언론들도 사찰의 사정을 잘 모르고 상당히 불리한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국민 홍보를 서둘러야 한다.(장곡스님)

○…이 문제는 6공 이전부터 제기돼 온 것이다. 합동징수가 법제화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영삼현대통령이 민자당 총재로 있을때 법제화를 약속했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정휴스님)

○…사찰방화가 자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가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불교계가 현정부와 이회창 신한국당 대선후보를 좋게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한다.(현근스님)

○…산문폐쇄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나 공단의 공원입장료 둘 다 징수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출토록 촉구하자.(성문 명진스님)

목어

현대판 귀자모

귀신왕 반사가의 아내인 귀자모(鬼子母)에게는 1만명의 장사 아들이 있었다. 그 귀자모는 남의 자식을 마구잡이로 잡아 먹었다. 사람들은 애간장을 태우다못해 부처님께 호소했다. 부처님은 귀자모의 제일 막내아들 빈가라를 잡아다 커다란 발우속에 가두었다.

귀자모는 온 천지를 쏘다니면서 아들을 찾았으나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다. 귀자모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누가 일러주었다.

"부처님은 일체를 아는 지혜를 가지셨으니 그분에게 물어보시오."

귀자모는 부처님께 나아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1만명이나 되는 아들 중에 한명을 잃었다고 그토록 비탄에 빠져 찾아다니느냐. 세상에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많아야 셋이나 다섯명이다. 그런데 너는 그런 귀한 아들을 잡아먹지 않았느냐?"

귀자모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만일 제 아들만 찾을 수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남의 자식을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발우 속에서 빈가라를 나오게 하였다. 귀자모는 반갑고 기쁜 마음에 그 아들을 얼른 부여 안으려 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돌려주지 않았다. 귀자모는 빨리 돌려 달라고 애원했다.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만일 삼귀오계를 받고 앞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주겠다."

귀자모는 부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아들을 돌려받았다.

이 인연으로 귀자모는 불교에 귀의하여 해산과 유아양육의 신이 되었다.

최근 '박초롱초롱 빛나리'라는 긴 이름의 8살짜리 여자아이가 유괴되었다. 박양의 어머니는 통곡하다못해 실신할 정도로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아직도 우리 기억에 살아있는 두 형이 어머니와 개구리소년의 어머니들은 올 추석에도 목이메일텐데…. 나리양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하루속히 엄마품에 안기길 바라며 유괴범들에게 당부한다.

"포악한 귀자모가 유아양육의 신이 되었듯 현대판 귀자모가 되어 주십시오."

수요 인터뷰

"심청정 국토청정 실현 앞장"

전국불교산악인협 손 현 수 회장

13개지부 25지회 결성
지정도량 '홍은사' 창건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회장 손현수·대현그룹회장·67)가 신행단체 최초로 지정수행도량을 건립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同회는 오는 10월 3일 지정수행도량인 '약산 홍은사 부처님 점안식·낙성대법회 및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 발대식'을 사부대중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편집자 주〉

- 오는 10월 3일 발대식 이후 어떤 사업을 펼치게 됩니까.

▲'심청정 국토청정'이란 취지아래 △산림법회 운동 △불교문화유산 및 수행도량 보호 △청정국토 가꾸기 △한 산악회 한 산 지키기 △사회복지사업 △자비효도사상 선양 및 인재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 불교산악인聯이 7월 19일 안동 홍은사를 공식 수행도량으로 지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본회는 창립한지 석달만에 전국 13개 지회에 25개 단위산악회를 두고 1만5천여 회원을 확보한 단체로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활동하다보니 한 곳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면서 수행할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홍은사 건립을 발원한 동기는.

▲저의 시조인 신라 국효(國孝) 홍효공(弘孝公, 孫順)의 뜻을 받들어 불교의 자비효도사상을 연구 발전시키고 후학들이 널리 수행정진할 수 있는 수행도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6월 1일 본회 회장을 맡으면서 회원들이 전용 수행도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홍은사를 협회지정도량으로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 홍은사 불사연혁과 규모는.

▲지난 94년에 부지 물색에 나서 이듬해 3월 경북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산1번지에 총 1천5백여평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같은해 8월 건축 허가를 받아 지난해 3월 기초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0월 3일 낙성법회를 거행하면 1백5십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행도량이 탄생하게 됩니다.

- 홍은사 운영방안은.

▲본회 회원들이 마음놓고 들러 수행과 산행을 통해 심신을 정화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신행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연수회나 수련회 장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불교산악인련이 출범당시에는 민주산악회와 같은 정치성향의 단체가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제가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회 부의장이란 소임을 맡고는 있지만 이미 나이가 들어 정치에서 손을 뗀 상태입니다. 창립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철저한 신행모임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경〉

관악산 관음사 중창불사 회향 법회

초대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천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관악산 관음사가 신도님들의 지극한 정성과 동참으로 대웅전을 비롯하여 삼성각, 용왕각, 명부전, 요사채 등에 대한 20년 중창불사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계의 원로대덕 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불사 회향 법회를 갖고자 하오니 두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간망하옵니다.

- 법회 안내 -

●신도법회 : 신중법회~매월 초하루(음)
지장법회~매월 18일(음)

●학생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어린이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불교대학 : 매주 화요일

■ 행사 안내 ■

▶ 일 시 : 불기 2541년 9월 24일
(음력 8월 23일)
오전 11시

▶ 장 소 : 관음사 경내

▶ 연락처 : (02)582-8609
(관음사 종무소)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관음사 주 지 박 종 하 합장
관음사 신도회장 유무심화 합장

"등록사찰 확대·재정기반 다질터"

법륜종 제2대 이사장 정 각 스님



"심보정재를 유지 발전시켜 포교로 접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륜종 유지 재단법인 제2대 이사장에 추대된 정각스님(목포 보현정사주지)은 10일 힐튼호텔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종단의 활성화에 역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9년 창종에 이어 91년 총정 일화스님을 이사장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교계의 주목받는 종단으로 출범한 법륜종은 이제 새롭게 제2기를 열고있다.

그동안 중앙종회의장 교육원장 등 종단요직을 맡아온 정각스님은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종단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역점둘 것임도 강조했다.

"현재 20여개 사찰이 종단 유지재단에 등록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승교화종단의 정형을 제시하기 위해 1차적으로 사찰명의 등록과 함께 재단등록 사찰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각스님은 수행과 교화를 위한 재정적 틀을 마련하고 이것이 포교일선에서 실질적인 자산으로 회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종단에 출연한 목포 보현정사 경내지에 건립중인 지하1층 지상7층의 종합불교회관(연건평 1천평)은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바짝 서두르고 있다.

위영란 기자

"신라 예술혼 세계에 알려야죠"

'부처님의 땅…' 홈페이지 개설 장 희 석 판사



"진정 저기 계시는 저 모습은 그 옛날 석공이 끌과 망치로 돌을 깎아 이룬 것이 아니리라. 감모여재(感慕如在)라 하지 않았던가. 바로 천년전 이곳에서 불신(佛身)을 친견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저분의 모습을 돌속에서 찾아낸 것이리라."

석굴암 본존불을 친견한 느낌을 부산지법 장희석 판사(40)가 자신이 간든 인터넷 홈페이지 '부처님의 땅 겨레의 땅 경주'에 기록한 내용이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경주의 석굴암, 불국사, 남산, 경주박물관 등에 대한 여러 자료와 사진들을 입력해 오고 있다.

가톨릭 신자인 그가 경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경주를 한번 두번 찾게 되면서 신라인들의 정신과 불교문화에 애정이 생기자 이를 널리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 그는 〈능엄경〉,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 등 경전을 읽고 관련 논문을 찾고, 오래된 자료 속의 원문을 해독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또 주말마다 경주를 방문하면서 그속에 담겨진 신라인들의 독창성과 불국토를 현실속에 실현해 놓은 경주를 느끼게 되었다. 그 신라의 신비와 세계속에 하나뿐인 경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홈페이지 개설을 결심하게 된 것. 현재 그의 홈페이지 조회건수는 무려 1만5천여건. 이는 딱딱하지 않게, 추상적이지 않게 그려진 석굴암, 불국사의 숨어 있는 매력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http://bora.dacom.co.kr/~jhsl)

부산=천미희 기자

교차로

26사단 법당건립기금 전달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은 3일 육군 제 26사단 신병교육대 법당건립지원금 1천만원을 지도법사 문무왕중위에게 전달했다.

장기주간 선포식 격려사



법장 생명나눔실천회 이사장 스님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1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9월 첫째주 장기주간 선포식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했다.

장묘제도 개선방안 발표

일화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스님은 12일 오후2시 대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생명보전을 위한 종교인 협의회(회장 정운영전의) 주최 '한국 장묘제도 개선'에 관한 포럼에서 '불교의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전국 환경운동가 워크샵



법륜 한국불교환경교육원장 스님은 4~6일 의정부 다락원 캠프장에서 '21세기 생명의 시대 새로운 대안을 찾아'라는 주제로 '97년도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샵을 개최했다.

군장병 1백명에 수계



법현 안산 둥지소년의 집 원장스님은 8월 31일 강원도 인제 서천법당서 1백여 군장병에게 수계했다.

스님은 "오계를 잘지켜 자비사상을 실천하기 바란다"며 "나보다 남을위해 살아가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기성장 프로그램' 강연



종실 대전광역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소장은 20일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자기성찰 프로그램에 대해 강연한다.

평통 상임위원에

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스님은 1일 민족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상임위원겸 종교분과위원회 간사로 임명됐다.

몽고 국립대 연구원 부임



백영식 前 조계종중앙신도회 사무부총장은 몽고 불교대학 한국어교수와 몽고국립대학 연구원으로 부임키 위해 12일 출국한다.

삽시도 헤봉스님 주석 외딴섬 불교중흥 서원



충남 보령의 삽시도 불교를 중흥할 비구니 스님이 나타났다. 본지 140호 19면에 보도된 '삽시도엔 스님이 없어요' 기사를 보고 혜봉스님(前 미타사 주지·67)이 여생을 수행과 포교에 전념키로 원력을 세워 보해암에 주석키로 했다. 스님은 30여년전 의정부 성불사 탄행스님을 은사로 득도, 용인 화운사 강원을 마치고 남원 구례암 등에 주석했었다.

제6회 행원문화상 수상자 선정

문학 변윤 예술 백성희·박용기씨



◇변윤



◇백성희씨



◇박용기씨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이 불교문화와 교육발전을 위해 매년 역경·문학·예술·학술·장학 부문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행원문화상의 제6회 수상자가 결정됐다. 문학상에는 변윤(정송스님), 예술상 고전예술부문에 박용기씨(BBS 방송위원) 현대예술부문에 백성희씨(연극배우)가 선정됐다. 상금 각 3백만원.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중앙승가대 대강당.

"지식인 포교·종교 법인등록 추진"

파라과이 홍법원 관음사 한 대 석 법사



우리나라와는 지구 정반대편에 위치한 남미의 파라과이. 전셋집을 전전하며 법광을 어렵사리 밝혀오던 교포들이 지난 3월 작은 터전을 마련하고 '파라과이 홍법원 관음사'라는 현관을 내걸었다. 본격적으로 현지인포교에 나서기 위해 종교법인 등록도 계획하고 있다. 법인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떼기 위해 3일 조계종포교원을 방문한 관음사 대표 한대석법사(69).

"교민 1백여세대가 매주 일요일이면 모여 법회를 봉행하고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달랩니다. 최근에는 현지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국불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스페인어로 된 불교서적이 없어 현지인포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한국교민은 1만여명. 한국사찰은 홍법원 관음사가 유일하다. 그러나 교회는 15개나 되며, 현지인의 90% 이상이 가톨릭신자이다.

그는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며 내심 조국불자들의 도움을 기대했었다. 그리고 인연맺었던 사찰을 찾고 도반들을 만나 도움도 청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모두들 각종 불사에 여념이 없었다.

"차마 도와달란 말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오히려 내쪽에서 기와 한장 더 시주하게 되더군요. 법당을 짓고 유치원도 세워 2세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독지가라도 나와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화 595-21-205-497, Pozo Favorito 1670 y Nicaragua esq)

정성운 기자

송편빚어 이웃에 '따뜻한 마음'



Focus

"깨소금 한 숟갈 정성 한 숟갈씩을 넣으세요."

옹기종기 모여앉아 송편을 빚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에 한가위가 성큼 다가와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자비의집(원장 동광스님)은 5일 혼자사는 노인들과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 자원봉사자 50여명과 함께 쌀 한가마 분량의 송편을 빚으며 어느 누구보다도 이른 한가위맞이 행사를 펼쳤다.

"송편을 이쁘게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지만 노인분들과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저절로 예쁘게 빚어지네요!"라며 활짝 웃는 자원봉사자의 미소가 한가위 오곡백과보다 더 풍성하고 넉넉하기만 하다.

김정은 기자

게시판

♣ 인사

동국학원=▲교장 △동대부고 김원식 △명성여고 이원주 △금산상고 겸 금산중 조남열 △동대부중 우하수 △명성여중 안은자 △홍제중 김봉식(유임) ▲교감 △동대부고 김상숙 △명성여고 박장옥 △동대부중 한성규 △명성여중 강복영 △금산중 장선규(이상 11명, 9월 1일자)

♣ 강좌

불교문화강좌=조계사(주지 현근)는 문화강좌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불화그리기 다도 수지침 가요부르기 선체조 판소리 서예 등이다. (02)720-1390

신부교실=(사)청여원(원장 이문우)은 미혼여성과 신혼주부를 대상으로 신부교실을 개설한다. 강의는 1개월과정으로 매주 수·금요일 오후7시. 수강료 7만원. (02)796-6644

기초교리=부산 금화사(주지 대안) 불교대학은 실천불교학교 제17, 18기 교리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기초교리 반야심경 천수경 등을 강의하며 개강은 22일.

(051)582-3042

한글교실=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스님)은 한글 읽기와 쓰기 기초교실을 개설한다. 강의는 월·화·목 오후2시며 수강료는 5만5천원, 60세 이상은 무료. (02)985-0161

♣ 알림

국토문화순례=터사랑(회장 전숙희)은 14일 한가위맞이 강화지역 답사를 떠난다. 용흥궁, 선원사지, 전등사 등을 답사한다. 오전7시30분 지하철 안국역 舊 덕성여대앞 출발. 회비 5천원. (02)725-1284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안동여고 250,000원 △법계사 130,000원 △청년정토회 20,000원 △무주상보시 800,000원 △이흥기 389,000원 △김용숙 130,000원 △구미경 112,000원 △조길자 100,000원 △최성규 100,000원 △최태현 100,000원 △김연영 70,000원 △김순희 60,000원 △김현미 50,000원 △서흥석 50,000원 △황형철 50,000원 △이동수 45,000원 외 △밥 한 공기 나누기 284,000원 △한 끼 굶기운동 3,599,000원 △은행이자 39,032원

〈3일 현재 총 807,756,609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 명절을 기하여 특별봉사 기간을 만들어 할인 판매합니다 ◆

『국내 최초 고급비단천 10색칼라 완제품』

석가 세존 일대기 팔상록 부모은중경(금강경) 8폭 병풍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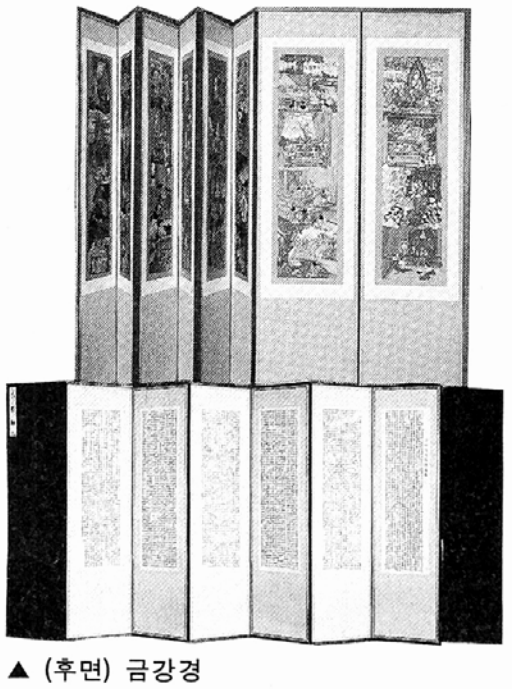
귀의 삼보하옵고
본 성불불사 포교원은 2,000만 불교도의 불심정진과 바른신행생활을 위하여
우주의 근본이며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세존(부처님)의 장엄하신 위엄과 구도를
널리 깨닫게 하고저 一念의 포교 차원에서 전통불화와 공예품을 발굴하여
작가의 독특한 예술적 정화를 통해 하나하나 불교혼을 불어 넣어
실체감 있게 살아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각 사찰은 물론 가정과 사무실에 一品씩 소장하시여 항상 직접 보고
깨달음으로 더욱 크신 佛心 경지를 달하게 할 것이며 특히 佛心을 모르는
수많은 중생들까지 佛心을 심어 하시는 일이 부처님의 가피원력으로 모두 이루시고
佛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충분하시길 합장 발원하옵니다.

▼ (전면) 부모은중경



▲ (후면) 반야심경

▼ (전면) 팔상록



▲ (후면) 금강경

특별 할인 가격
● 팔 상 록 : 360,000 ● 부모은중경 : 380,000

성불 불사 포교원
■ 문의처 : 02)831-2848~9 / 02)831-7075
■ 팩 스 : 02)831-2849
■ 수신자부담 전화 : 080)284-2848

● 작품규격 : 5.5尺 × 폭 12尺
● 표구재질 : 고급실크지 수입스기목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 박진완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탐방 부산 총포교사회

그늘진 곳 발로뛰며 전법

부산불교교육대학 출신 6백20명 회원
병원·군부대·불우청소년 정기방문

부처님 말씀을 받아 지니고 중생에 널리 전한다면 그 공덕은 다함이 없다고 〈금강경〉은 설하고 있다.

한사람에게라도 더 부처님법을 전하고자 하는 서원으로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을 초월하여 하나로 뭉쳐 활동하는 모임이 있다. 바로 부산불교교육대학 출신의 포교사 6백20여명으로 구성된 부산불교교육대학 총포교사회(회장 이성준).

총포교사회는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조계종 포교사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던 지난 92년 졸업생이 배출되면서 첫발을 내디뎠고 다음해 2기 졸업생이 합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6기 포교사 과정 졸업생까지 힘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총포교사회는 중생의 온갖 재난과 고통을 없애 주고, 무명을 거두어주며 온갖 서원을 성취시켜주어야 한다는 의무이행을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사시 찬불가를 통해 법음전파에 노력하는 50여명의 합창단, 회원의 문예작품, 회원동정 등을 담아 분기별로 발간하는 회보, 완도 보길도의 초등학교생을 초청하는 포교행사를 비롯 매년 열리는 불교학술세미나에서는 단골 발표자로 제 역량을 발휘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기별 활동은 단연 눈길을 끈다. 포교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병원과 군법당, 불우한 청소년 장학금지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비실천을 펴고 있는 것. 2기는 부산국군통합병원의 묘광사에서 매주 화, 목요일마다 법회를 열고 수시로 수계법회를 가져 군불자들을 키워가고 있으며 3기에게 불법을 전하고 있다. 4기와 5기는 소년소녀가장돕기와 거제동 수덕사의 노인무료급식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 졸업생들인 6기는 현재 부산대학병원내의 법당을 활용한 포교를 계획하고 있다. 대외적인 활동뿐 아니라 내실을 다지기 위해 기별로 경전공부를 위한 유마회, 부산진시장내 범불회, 포교사 수화반, 산악회 등을 조직 여래의 사자로서 청정한 마음을 가꾸어나가고 있다.

회원들은 발로 뛰는 포교에서 얻는 보람만큼이나 여건의 취약함과 지원부족, 예산부족 등의 여러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특히 포교원에서 포교사로 배출된 인력을 활용할 방안이나 예산 등을 마련해 주지 않고 각 사찰스님들의 포교사에 대한 인식부족이 활동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강복조 총포교사회 총무는 "어려운 여건이라해도 나 하나로 인해 한사람이라도 불연이 맺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교에 임하는 것이 포교사의 길이자 의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의욕에 찬 총포교사회 회원들의 행보에 정책적인 기반과 예산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불국토 구현은 멀지 않았음을 확신케 한다.

부산=천미희 기자



◇총포교사회는 4일 부산군군통합병원서 정여스님을 법사로 장병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어린이 곧고 티없이 자라게…

봉선사 딸기원 개원

봉선사(주지 밀운)가 구리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될 딸기원 어린이집(원장 박경주) 개원식이 1일 봉선사회주 월운스님 주지 밀운스님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구리시 교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딸기원 어린이집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옥상에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 2세부터 7세까지 4개반 543명을 모집한다.

1천배·교리시험 거쳐야 보살계

서울대병원 불자회 창립10돌 맞아 첫 수계식

불자로서 세롭게 태어나는 보살5계 수계법회.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천주교의 영세처럼 일정기간의 교리공부와 시험을 거쳐야 할까. 서울대병원법회(지도법사 은진스님)가 직원불자회(회장 조보연 교육연구부장) 신도들에게 상당한 불심과 기초교리를 통해 보살5계를 수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은진스님은 "오는 10월 18일 서울대병원법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한 첫 수계법회에 1천배 기도와 교리시험을 통해 합격한 직원불자들에만 보살5계를 수여할 예정"이라면서 "환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의사·간호사 불자들이라 더욱 엄격한 수계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진스님은 이미 수계원서를 낸 110명의 불자들에게 9월 1일부터 20일까지 1천배 기도를 본인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법당에 차트를 마련, 근무시간 틈틈이 절 할 때마다 직접 기록하도록 했다. 또한 수시로 기회있을 때마다 지도해 온 불자 예법과 근본교리 공부를 심화시키고 개인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수계법회에 임박해서는 불심 깊고 실력있는 알짜배기 불자들에게만 보살5계를 수여할 예정이다.

은진스님의 엄격한 보살5계 수여절차는 병원법회 불자들의 불심을 확고히 해 직장생활에 모범을 보임은 물론 환자들에게 불법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 더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은진스님은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이 수계법사로 참석하는 당일 법회에 원서를 낸 불자 전원이 보살5계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경불련 시민대학개설
교리등 교육 불교운동 선도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대학(공동회장 설조·안동일)은 올바른 불교교육과 불교시민운동을 선도할 불교시민대학(학장 설조)을 처음으로 개설한다.

10월 7일(매주 화·금 저녁 7시 30분)부터 12월 16일까지 정동회관 2층강당에 개설되는 불교시민대학은 불교교리, 불교예술, 불교와 사회사상, 사찰순례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을 넘어 불교의 대사회적 실천운동을 지향하도록 이끌 예정이다. 1년 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에게 평가와 시험을 실시, 불교시민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지혜의 마당'에서는 부처님의 삶과 사상, 불교예절 등을 △'힘의 마당'에서는 불교대화법, 불교와 가정 환경통일을 △'풍요의 마당'에서는 명상, 불교예술, 전통문화를 △'돛 다는 마당'에서는 사찰순례와 전법을 위한 서원세우기 등을 지도한다. (02)765-5448

우리 모임에선

금강경독송회 철야정진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27, 28일 1박2일간 경주법당에서 97년도 전국통합 철야정진법회를 갖는다.

이번 법회에는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8백여명의 회원들이 동참, '마음바치는 법' 등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다가선다. (02)742-0172

부산구도회 20돌기념 특강

한국불교연구원 부산구도회(회장 한동대)는 25, 26일 오후 7시30분 부산일보 10층강당에서 창립 20주년을 기념, 정병조 박사(동국대 부총장, 한국불교연구원장) 초청법회를 개최한다. (051)462-5062



전국불교산악인련 현판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회장 손헌수·대현그룹 회장)는 3일 서울 신당동 대현그룹 본사 3층에 사무국을 개설하고 현판식을 가졌다〈사진〉. (02)233-4331

'맑고향기' 해인사생태기행

맑고향기룹게모임(회주 법정스님)은 27, 28일 양일간 경남 합천 해인사로 제5회 맑고향기룹게 사찰환경생태기행을 떠난다. (02)741-4696



청소년환경감시 정화활동

한국불교사회연구원 청소년환경감시단(단장 돈관스님)은 8월 31일 경주 반월성일원과 계림, 첨성대 등 주변유적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사진). (0561)41-0762

부산대불련 정기총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박진현)는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12개 지회 7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9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홈페이지 개설 등 상반기 사업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감로심장회 사무실 개원

감로심장회(이사장 보운스님)는 8월27일 진주 귀빈예식장에서 창립 8주년을 기념하여 사무실 이전 개원법회를 거행했다(사진).





관응스님 선학원 15년만에 설법

관응 직지사 조실스님이 안거수행 15년만에 법석에 올랐다. 관응스님은 4일 종로구 안국동 선학원 중앙선원(원장 성해)에서 열린 '한국불교 전통선수행 중흥 영산대설법회상' 입제식에 참석, 법문했다. 전국에서 모여든 5백여명의 불자들을 향해 관응스님은 "일체중생은 본래 하나이다. 이 도리를 모르고 헤매기 때문에 중생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는 수행에 진력해야 한다"고 설했다.



일타스님 '기도' 일어판 출판기념회

동곡 일타스님 '기도' 일어판 출판기념 및 친견법회가 2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청하스님(조계종 전계대화상) 화산스님(대구 보광원조실) 설정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수스님(법수선원 조실) 무비스님(승가대학원장) 등 2천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고희 생신을 맞이한 일타스님은 "나의 글을 일본에까지 전할수 있도록 도와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인덕원 노인학교 제1회 입학식

인덕원 노인학교(교장 성운스님·삼천사주지)는 1일 인덕원 노인복지회관에서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자용스님(수국사주지) 법성스님(관음사주지) 이배영 은평구청장 김용식 은평경찰서장 이권철 진관외관동장 정일선 잿말 경로당회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인덕원 노인학교 프로그램에는 서예 레크리에이션 민요 단전호흡 명상 한글교실 사물놀이 등의 과목이 개설돼 있다.



통도사 해군사령부 수병위문

통도사부산포교원(원장 심산)은 1일 진해 해군사령부의 해안사(지도법사 정직한)를 방문, 소위임관을 앞두고 세달간 세계 13개국 순항훈련을 떠나는 160여명의 수병을 격려하고 무사귀향을 기원했다. 심산스님은 떡과 음료수 등을 전달하고 신심깊은 불자로 알려진 청주합 우상준함장을 만난 자리에서 "모든 장병들이 무사히 훈련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강생모집 10월 8일 개강

이제 한국불교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전세계로 전파되어야 합니다.
미래 한국불교의 전법 역군을 모집합니다.
해외에서 포교나 수행 또는유학을 원하시는
스님 및 법사님이나 불자들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포교(통역)과정 (3개월)
스님이나 법사(포교사)자격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입학할 수 있으며, 불교영문으로 된 불교서적와 영어 위주의 교육으로 해외에서 교포는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함
☛강의시간 : 매주 수,토요일 오후 4시~6시/수강료 : 매월 15만원

⊙ 해외수행과정(3개월)
해외의 사찰에서 직접 수행경험을 쌓고 싶으신 스님 및 법사님이나 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영어 회화위주와 불교문화사 등 해외의 외국사원에서 수행하는데 갖춰야할 기본지식 및 적응력을 지도함
☛강의시간 : 매주 수,토요일 오후 3시~4시/수강료 : 매월 10만원

⊙ 해외 유학과정
불교관련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스님 및 법사님이나 불자들을 위하여 원하시는 대학에 유학을 추천, 알선하여 드림

⊙ 국제행사 및 통역
다년간 국제불교활동과 행사·회의 참가경험 그리고 완벽한 불교영어를 구사하는 통역으로 국제행사 및 회의등을 대행하여 드림

⊙ 해외 동행 성지순례 및 각종 국제행사, 회의참석
해외의 불교성지나 각종 불교 국제행사 및 회의에 동행하여 의사소통과 여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를 도모하여 드림

※ 법사 및 삼장법사 과정(1년/통신)
※ 불교의식(범음범패)과정 (3개월/야간 및 통신)

海東佛敎大學 附設
韓國佛敎海外傳法會
110-320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경동빌딩 302호
TEL. (02)741-0495~6, FAX (02)763-4603
◆ 보다 자세한 것은 전화, 서신문의하면 원서 및 안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

公 告

離綠 및 除籍

유영욱(柳映旭)
도 암(道 岩)

위 자는 수덕사 법장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였으나 수년전 환속하여 이연 및 제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위 자는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수덕사와 법장스님을 거명하며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위 자는 수덕사나 법장스님과는 무관함을 알리며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1997. 8. 26

대한불교 조계종 수덕사
주지 법장

제 1 회 창작 찬불가 공모

전통불교음악인 범패를 계승하고 현대음악과의 조화를 통한 불교음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작찬불가를 공모합니다. 찬불가의 질적 향상과 저변확대를 기대하는 이번 공모행사에 민족정서 및 불교정서에 맞는 수준높은 찬불가를 창작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모부문 (작사·작곡 포함)
-. 합창곡 (7분이내)
-. 중창곡 (5분이내)
-. 독창곡 (5분이내)

나. 응모자격
-. 기성 및 신인으로 만 18세 이상인 관심있는 모든 분

다. 접수기간
-. 1997년 11월 10일 ~ 11월 20일

사. 시상내역
-. 대 상 : 1명(상금 300만원, 트로피 및 상장)
-. 금 상 : 1명(상금 200만원, 트로피 및 상장)
-. 은 상 : 2명(상금 100만원, 트로피 및 상장)
-. 동 상 : 2명(상금 50만원, 트로피 및 상장)
-. 장려상 : 4명(트로피 및 상장)
※ 단, 시상부문은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아. 응모요령
-. 1인 부문별 (합창곡, 중창곡, 독창곡) 1곡씩 3곡까지 응모가능함
-. 모든 응모작품은 피아노 반주를 원칙으로 함
-. 작품은 필히 먹으로 정서한 악보 1통과 복사본 5통을 제출하실 것
-. 작품속에는 작사·작곡자의 성명을 비롯한 악보외의 표식은 하시지 말 것
-. 작곡자의 이력서 1통과 반명함판 사진 2매를 제출하실 것
-. 각 부문 가사를 적어내시고 곡해설(200자 원고지 2매 이내)을 첨부하실 것
-. 신청서 (본 종단 소정양식) 1부 제출하실 것
-. 신청금 : 30,000원

자. 참고사항
-. 입상작품 발표회는 국악관현악으로 편곡하여 연주하게 되며, 작곡자가 별도 요청시 본인이 국악편곡할 수 있음(단 작곡자가 국악편곡을 하는 경우는 12월 27일까지 국악 관현악총보 및 파트보를 제출하실 것)
-. 낙선작품은 12월 5일부터 12월 10일 까지만 환수가능함
-. 입상자 또는 작품이 결격사유가 발생할시는 시상 후에도 입상자격을 취소하고, 시상금 및 트로피·상장을 회수하며, 향후 모든 종단 행사에 참여 또는 참가자격을 박탈함
-. 입상작 시상 및 발표회는 98년도 예정(일정 별도 통보)
■ 접수및 문의처 : 총무원 문화부 (739-1830, 725-1674)

위 공고함
불기 2541(97)년 8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송 월 주

법회안내

길상사(02)3672-5945~6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주지 청학스님
정기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암 포교원(062)232-5774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주지 진관스님

대구 청정선원(042)625-1080
좌선법회 매주 화요일 저녁7시
정기법회 매주 토요일 저녁7시
취암스님법회 매월 둘째주 토요일 저녁7시

전북 선원사(0671)31-0108
산중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남원불교대학 동문회법회 매주 화요일 저녁7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광주 연화사(062)227-7295
산중기도 매월 5·7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2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4시
청년부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7시

부산 미륵사(051)404-2100
초하루기도 매월1~3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성희사(053)623-8334
감사헌공법회 매주 수요일 오전10시30분
청년법회 매주 수요일 오후7시30분
중고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1시
거사림법회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오전10시30분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안일사(053)655-0221
기도정진법회 매월1~7일(음) 오전10시
교양법회 매주 화요일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대구 구도회(053)654-8533
경전법회 매주 수요일 저녁7시30분
좌선정진법회 매주 토요일 저녁7시
어린이·중등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이렇게 들었다 — 나눔 고루 베푸는 자 부처님을 본다

음력 8월15일(9월16일),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 대보름이 밝아오고 있다. 8월 보름의 달빛이 가장 좋아 〈예기(禮記)〉에 '춘조월 추석월(春朝月 秋夕月)'이라 한 데서 차용된 '추석'은 결실의 풍요로움을 상징해 왔다. 그러나 한가위에도 굶주리는 동포들이 적지 않다. 특히 유니세프의 캐롤 밸라미 총재가 지난 8월 4~7일 북한을 방문하고 밝혔듯이 북한 어린이의 34%인 80만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중 8만여명은 당장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 겨울까지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게 그의 진단이다. 추석을 맞아 '나눔과 베품'의 의미를 경전에서 듣는다. 〈편집자 주〉

▨베품은 중생을 위한 복의 그릇이요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이니 누구라도 보시의 공덕을 생각하거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내라. 베품은 널리 평등하게 골고루 하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아야만 베푸는 마음속에서 나를 만나 구제받는 인연을 맺으리라. 〈증일아함경〉

▨은혜를 아는 깨끗한 믿음으로 남에게 베풀면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가 있는 곳 어디라도 그림자처럼 복된 갚음을 따르리니 인색한 마음 버리고 조건없는 깨끗한 베품을 실천하라.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기쁨은 항상 거기 있느니라. 〈잡아함경〉

▨죽음이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곳에도 은혜로 베푼 보시의 복덕은 자기를 따르는 양식이 되나니 자기를 잘 거두어 단속하고 마음을 닦은 공덕을 의지하여 돈 재물 음식을 능력따라 널리 베풀며 게으르지 않고 항상 마음을 닦으면 비록 삶을 마친다해도 그것은 결코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니라. 〈별역잡아함경〉

▨사람을 가리지 말고 평등한 마음으로 골고루 보시하라. 그러한 공덕은 네게 보시한 공덕과 다름이 없느니라. 〈분별보시경〉

▨보시하는 마음에 부처님 뵙고 구제받는 인연 맺으리라. 선과 악은 제 갚음을 받는 법, 자신이 닦은 선악의 과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중일아함경〉

▨깨끗한 믿음으로 손수 베풀면 스스로 이롭고 남들도 이로우리니 이처럼 베푸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하리라. 믿는 마음 이미 청정해지고 열반 또한 얻으리니 살아서 극락이요 죽어서도 극락이로다. 〈별역잡아함경〉

▨대승에 이르려면 네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보시로 궁핍한 이를 도와주며, 높고 낮은 이를 차별하여 마음을 두 가지로 쓰지 않으며, 무엇을 남에게 주면서 무슨 희망이나 갚음이 있기를 바라지 않고, 공덕을 중생에게 두루 베푸는 것이다. 〈방등경〉

▨음식을 보시하면 큰 힘을 얻고 의복을 보시하면 좋은 얼굴을 얻으며 수레를 보시하면 안락을 얻고 등불을 보시하면 밝은 눈 얻고 집에서 손님을 기다리면 그것을 일러 일체 보시라 하고 법으로써 중생을 가르쳐 주면 그것을 곧 단 이슬 보시라 하느니라. 〈잡아함 시하득대령경〉

▨탐내고 인색하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함은 전에 은혜로서 베풀지 않은 탓이니, 만약 복덕을 누리고자 한다면 마땅히 널리 베풀어야 하리라. 〈별역잡아함경〉

신행수첩

깨달음 얻는 철야참선

읽으면 견처를 얻고, 실천하면 견성하며, 증단하지 않으면 해탈한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우주를 바로 볼 수 있는 마음 챙기는 수행법 위빠사나.

은해사(주지 법타)는 9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밤8시부터 다음날 아침4시까지 참선지도 철야정진법회를 갖는다. 법산스님을 지도법사로 하는 철야법회는 생활속에서 참선수행을 실천하는 계기로 마련됐다. (0563)35-3318

석불 뿌리찾는 대륙탐사

전국에 산재한 석불을 찾아 문화유적답사를 하고 있는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는 28일부터 11월5일까지 7박8일의 일정으로 중국석불 및 문화답사를 떠난다.

한국석불의 원류를 찾아 떠나는 이번 중국답사에서는 운강석굴, 용문석굴을 비롯 문화유적의 보고인 북경 정주 낙양 서안 상해 등을 둘러본다. 운강 용문석굴을 통해 우리에게는 비교적 낯선 석굴사원의 흔적을 더듬어 보고, 경주 석굴암과의 관계도 살펴보게 된다. (02)760-5171

화쟁사상으로 보는 통일

부처님 가르침이 올곳이 살아숨쉬는 팔만대장경을 처음 우리말로 번역 출간한지 35주년을 기념하는 큰법회가 열린다.

한국불교청년실업인회(회장 이호식)는 26일 오후6시 종로 대각사에서 기념법회를 갖고 김지견박사(전통불교연구원 원장)를 초청 '남북통일과 불교의 화쟁사상'에 대한 특강도 마련한다. (02)765-0972

사찰 그속에 깃든 의미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은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오후7시에 '불교문화의 배움터'를 개최한다.

사찰문화와 불교문화를 올바로 이해시키고자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첫째주는 전문가를 초빙, 셋째주는 김현준원장이 강의를 맡는다. △9월18일, 10월17일, 11월21일 '사찰 그속에 깃든 의미' △10월2일 '향료' △11월6일 '사리장엄구' (02)587-6613

대중불교 그 미래를 본다

한국불교대원회(회장 박윤흔)는 20, 21일 양일간 은해사(주지 법타스님)에서 제8차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대중불교 운동의 미래상'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한정섭 한국불교금강선원 이사장과 강건기 전북대 철학과 교수 등이 '대중불교 운동에서의 재가자의 역할과 미래상'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02)754-1613



◇93년 6월26~27일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개최됐던 '제5차 대중불교 결사 전국대회'의 모습.

훈훈한 한가위

추석선물·성금 모집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는 추석. 오는 9월16일은 우리민족 2대명절의 하나인 추석이다. 그러나 오곡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추석이 오면 더욱 쓸쓸해지는 이웃이 있다. 불우노인 고아 소년소녀가장들이 바로 그들.

조계종 제9교구신도회·대구광역시신도회(회장 최동원)는 추석을 맞아 불우이웃돕기에 나선다. 同 신도회는 이들을 돕기 위한 물품과 성금을 모집한다. 쌀과 속옷을 비롯 치약 칫솔 수건 비누등도 환영받는다.

한방울의 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십시일반의 정성이 모여 훈훈하고 인정넘치는 추석이 되도록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권선하고 있다. (053)253-2886, (053)252-9485

은행온라인: 중소기업은행 152-021756-01-016(대구신도회)

독거노인에 송편공양

둥근 보름달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한가위 맞이 송편빚기가 11일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심산) 노인정에서 열린다.

복지관의 스님, 직원, 지역주민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앉아 정담을 나누며 한가위를 위한 송편을 빚게 된다. 큰 명절을 맞아 이웃의 따뜻한 정과 어른 공경을 배우는 자리가 될 이날 행사에서 빚은 송편은 외롭게 한가위를 보내는 독거노인세대에게 공양올려진다.

민족의 명절 휘영청 떠오른 보름달을 한마음으로 볼수 있도록 하는 밝고 훈훈한 자리가 될 듯. (051)363-2063

나의 수행일기



강인성

'연기사상' 내 인생의 나침반

대구경불련 창설 앞장… '생활불교' 전파

나는 대구에서 지역특화산업의 일종인 안경테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업에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 있는 사촌자형이 경영하는 안경테 수출업체에 근무할 때 사정상 서울에서 대구로 근무처를 옮기면서부터다. 내 회사를 설립한 것은 그로부터 4년후인 91년 3월 31일이었지만 그로인해 집안간에 약간의 분쟁이 발생했다.

그런데 회사 개업식날 모친과 사촌누이가 다니는 태백 현불사의 설송(雪松) 대법사님은 개업축원 법문에서 마음속의 엉김을 풀어주셨다.

"자네는 항상 이 연을 맺게 해 준 삼원산업사 사장인 사촌자형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회사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자기 일보다 우선하는 마음가짐으로 정진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후 나는 항상 대법사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불심도 더욱 깊어져 해마다 연말이면 가족과 함께 현불사에서 탑돌이를 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곤 했다. 특히 임신중독증 상태에서 세상과 연을 맺어 약간 언어장애가 있는 아들 승현이와 함께 하는 그 시간은 부자간의 인연을 더욱 깊게 해주곤 했다. 그로부터 6년간 외국을 오가며 열심히 사업에 정진한 결과 지금은 연간수출 5백만불의 중견 안경수출업체로 도약하는 불보살의 가피를 입게 되었다.

그러던중 이같은 가피를 회향해야겠다는 필자의 생각을 아셨던지 대구경실련 집행위원장인 김명한박사(상인이비인후과 원장)가 서울의 경불련 같은 불교시민단체를 대구에서 창립하자고 제의해 왔다. 이리하여 주위의 불자들과 경실련 회원등 뜻을 같이하는 몇몇이 모여 지난 3월 대구경실련불교시민회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

마침 나는 이 모임의 회장과 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되어 많이 망설였지만, 일단 중책을 맡음으로써 직책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정진하면 어떤 일이든지 잘 해내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수락했다. 결국 이것이 본격적으로 불교공부를 시작케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나는 주로 미국출장 비행기 안에서 불교의 기초교리를 담은 〈천수경이야기〉 등 불교관련 서적을 편한 마음으로 읽게 되었다. 이제는 동체대비, 자리이타 등 기본적인 불교용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 대중앞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감이 생기게도 되었다.

우리 모임의 수행위원장인 반야사 주지 법상스님의 "불교는 불법의 단 맛을 안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권유하는 종교다"란 말씀이 생각난다. 그동안 몇개월 동안의 신행단체장 생활을 통해 쓴 맛을 보기도 했지만 단맛도 많이 느꼈다.



모임을 꾸려가면서 많은 덕높은 스님들을 친견하고 가르침을 배운 사실이 그것이다. 또 그로인해 불교지식을 바탕으로 외국 친구들(대부분 바이어)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근원인 불교사상을 전파함으로써 민족적 자긍심과 함께 국가 이미지 제고라는 일석이조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단맛중의 진미는 아닐까 한다.

지난 8월 대구경불련 하계수련회에서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이 하신 법문은 필자의 사업철학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단맛을 전하는 신행의 좌표가 되었다.

"모든 만물들이 연기법에 의하여 생성되었기에 우리 모든 시방세계의 중생들은 모든 문제의 해법을 연기법적 사고, 즉 공존 균형 조화로써 풀어야 한다."

지금 세계는 총칼없는 냉엄한 무한경쟁의 무역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리이타의 연기법적인 해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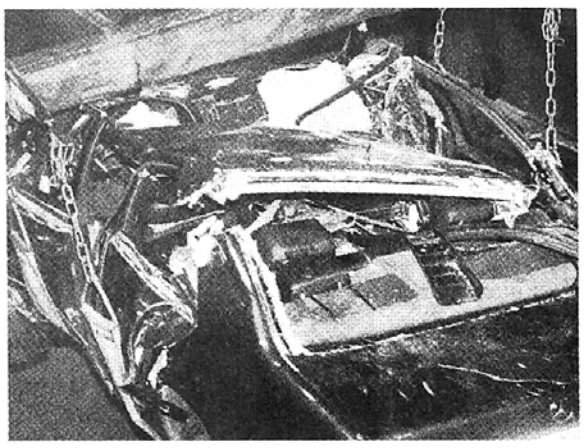
〈대구경불련 회장·진양산업사 대표〉

就 박 진 완 회원님의 任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A 지구 ●
- 서울 반야 라이온스 클럽 회원 일동 -

대구지역 반야 라이온스클럽의 창립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연락처 : 02)732-0612

음주운전 죽음향한 무한질주



◇다이애나를 죽음으로 내몬 직접적인 원인은 음주운전으로 밝혀졌다. 프랑스 경찰이 사고 자동차를 끌어내고 있다.

다이애나 사망 주원인…추석 귀향길 술조심해야

작년 음주운전사고 2만5천여건…979명 사망

31일 일요일에 전해진 영국 왕세자빈 다이애나의 교통사고 사망소식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각 신문마다 다이애나를 추모하는 '소녀의 꽃다발'을 사진으로 전하며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 했다. 유명인의 사생활을 좇는 파파라초(상업적 사진사)들이 사고원인을 만들었다며, 그들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그러나 다음 날 다이애나와 그녀의 연인 도디 알파예드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는 놀라움을 넘어 숙연케 했다.

사고 당시 다이애나가 타고있던 벤츠승용차 운전자의 혈중알콜 함유량은 범죄에 해당하는 0.175%였다. 프랑스의 법적허용치 0.05보다 세배나 넘어섰다고 프랑스경찰이 발표했다. 알콜도수 40이 넘는 위스키를 30cc 잔으로 열잔 가까이 마셔야만 나오는 수치이다. 주행속도도 시속 160km가 넘는 엄청난 속력이었다. 이쯤되면 음주운전이 '신데렐라'를 앗아간 주원인이랄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20만1천7백45건. 적발된 건수만 그렇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5천7백64건, 하루 70.5건이 발생했다. 9백79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해 전보다 사고발생 건수는 45%, 사망자수는 42%나 증가했다.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자기제어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지난 7월 1일, 음주운전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사고가 있었다. 강원도 강릉시에 사는 김모씨 부부는 친척과 함께 모처럼 외식을 했다. 저녁식사와 함께 반주도 곁들였다. 노래방까지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김씨 부인이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한참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집앞에서 남편을 기다렸다. 그때 한 대의 트럭이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부인을 덮쳤다. 남편 김씨가 몰던 1t 트럭이었다.

마침 추석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를 만나 정을 나누며 술잔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스스로 화를 부르는 일이며 남의 행복까지도 빼앗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정성운 기자

불교의 눈

남의 생명까지 해친다

〈분별선약소기경〉에서는 음주의 허물을 36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말하는 데 잘못이 많고, 스스로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걷다가 구덩이에 떨어지고, 벌레와 짐승을 죽이고, 나쁜 사람들과 패가 되고, 음란하여져서 피할 것이 없게 되고, 과실을 자꾸 범하게 되고, 목숨을 마치면 큰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허물이니라."

"교육학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법은 체험이라고 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사고체험이 없어서 일까.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너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김형중 명성여고 교법사.

시론

표류하는 정치개혁법

국민들은 별로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1997년 7월 30일은 한국사, 아니 세계사에 남을 역사적인 날이다.

당리당략에 급급한 여야

20분만에 73개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1분당 3.43개의 법안을 통과한 셈이며 역산을 해보자면 1개의 법안을 통과하는 데 약 17초가 걸린 셈이니 세계적인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 아니 '고비용, 마이너스효율'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정치권이 대오각성을 하고 갑자기 생산성을 높혀 고효율이 되었다고 좋아할 일이 결코 아니다. 정책대결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신한국당의 한심한 경선 경쟁등 정쟁으로 정치권이 하고한 날을 지새우다가 임시국회 폐회가 가까워지자 사상 유례없는 '여·야합동 날치기' 작전으로 자신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켜 버린 것이다.



손 호 철
〈서강대 정외과 교수〉

정치권의 직무유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선이 이제 석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법등 정치개혁법의 개정은 여야간의 당쟁에 묻혀 표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대로 가다간 또 한 차례 뒤늦게 일정에 쫓겨 졸속적인 여야합동 날치기 통과 내지 여당 단독의 날치기 통과가 이루어지거나, 문제가 많은 현재의 정치관련법을 가지고 오는 대선을 치뤄야 하는 사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의 정치관련법은 김정권 초기 깨끗한 선거를 내걸고 개혁한 정치관련법을 정략적 필요성에 의해 여야가 공모하여 개악시킴으로써 금권선거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대중동원식의 선거방식을 여론집약적인 TV토론 중심의 선거로 바꾸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국민뿐만이 아니라 여·야 모두가 합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상호비방으로 점철된 정쟁적인 선거운동과 힘겨루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권의 정략적 행동양식 때문이다.

정치관련법 개정은 정치관련법 개정특위의 여야간 의석배분을 놓고 처음부터 특위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표류를 해오다가 여당의 양보로 특위구성이 이루어지는가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자기들 나름의 '승자독식주의'에 입각해 야당에 배정된 의석을 민주당에 배정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나섬으로써 또 다시 미궁에 빠지고 말았고 급기야 민주당을 배제한 특위구성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특위회의장을 점거함으로써 회의를 열지 못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겪고 문을 연 특위는 이후 조순서울시장의 출마와 이인제지사의 출마움직임, 이회창대표에 대한 후보교체설등이 불거져 나오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빠져있다.

정쟁은 정쟁이고 정치개혁은 정치개혁이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정치관련법의 개혁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오는 대선에는 과거와 같은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관련법의 조속한 개정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개정의 방향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여야합의하에 정치권의 편의를 위한 정치관련법의 개악이다.

여러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만 특히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관련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정치개혁의 몇가지 방향이 있다. 우선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하되 대선자금 사용에 대한 회계공개를 제도화하는 한편 불법적인 금전거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국민기대 무시하는 처사

사당정치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보조금을 받는 정당들은 주요 후보들의 공천권을 일반당원내지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예비선거제를 의무화 하도록해야 한다. 또 시민단체등이 반사회적, 반민주적 후보의 낙선운동조차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군소정당으로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새로운 정치운동의 출현을 가로막는 정당유지최소요건등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개악움직으로서 현재 3억원으로 되어있는 대통령후보 공탁금을 중산층 아파트 열채값인 무려 25억원으로 늘리려는 정치권의 한심한 작태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결국 문제는 국민이다.

잇단 10대 범죄

TV흉내 살인…차훔쳐 도주

10대 초·중학생들의 끔직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2일 대전 천변에서 종이상자에 담겨 숨진 채 발견된 남자아이를 죽인 범인은 숨진 전군의 이웃에 사는 8세 12세의 초등학생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3일 최모 이모군등 2명을 살인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이들은 숨진 전군이 자신들을 평소에 놀리자 TV프로그램에서 본 방법으로 숨지게 하고 종이상자에 넣어 대전천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어린이는 범행 직후 경찰에 거짓신고하는 대담함까지 보여줘 충격을 더하고 있다.

3일에는 서울 이대목동병원 앞에서 모 중학교 2년 박모군 등 초·중학생 3명이 길가에 세워둔 승합차를 몰고 경찰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다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박군은 한달전부터 아버지로부터 운전을 배워왔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어린이범죄는 어른들의 황금만능주의, 한탕주의의 모방적 성격이 짙다며 TV가 보여주는 세계가 아닌 실제의 다양한 세계를 경험케 하고 생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뢰추방 국제협약으로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인 대인지뢰를 추방키 위한 국제회의가 1일부터 19일까지 오슬로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지뢰의 사용 생산 이전 금지 △기존보관분의 파괴 등을 내용을 담고 있는 브뤼셀선언을 국제협약으로 끌어올리는 것. 현재 70여개국에 1억1천만개의 지뢰가 묻혀있으며, 매년 2백만~5백만개의 지뢰가 새로 매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2만6천여명이 희생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발효대상에서 한반도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친구위해 법복벗은 '관포지교'

현직판사가 자신과 가족들의 암치료를 위해 법복을 벗자 동료판사도 친구를 돕기 위해 대법관의 꿈을 접고 변호사로 변신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하던 박형준변호사는 95년 노모가 위암진단을 받은 뒤 부인과 동생이 잇따라 암선고를 받았고, 자신도 지난해 대장암통보를 받았다. 1년간 휴직계를 내고 가족들을 돌봤으나 자신과 가족 3명의 치료비를 대기에 힘들어 변호사로 나섰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박씨의 절친한 친구인 임경윤판사도 친구를 돕기 위해 동반사표를 냈다. 두 친구는 8월25일 서초동에 합동법률사무소를 냈다.

재독교포 북돕기 자선연주회

재독교포와 유학생들이 북한 어린이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25~27일 도르트문트와 프랑크푸르트 베를린에서 연주회를 열어 수익금 전액을 북한어린이돕기 성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연주회에는 독일에서 활약하는 첼리스트 조영창(예센음대 교수) 소프라노 권해선(함부르크오페라단)씨 등이 참여한다.

초등생 유괴 2천만원 요구

초등학생 박초롱초롱빛나리양 유괴사건에 대해 경찰이 3일 공개수사에 나섰다. 박양은 8월30일 오후 영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중 20대 여자에게 유괴됐다. 범인은 그동안 세차례 박양집에 전화를 걸어 "나리를 잘 데리고 있다"며 현금 2천만원을 요구했다.



◇범인 몽타주

지하철 승무원 59% '사고날뻔'

서울시민은 불안하다. 서울지하철에 근무하는 기관사 등 승무원 가운데 절반이상이 최근 1년 사이에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근무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희갑의원은 여론조사기관인 인텔리서치와 공동으로 지하철직원 2백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승무원 중 58.8%가 차량결함 고장이나 차량점검 미비 등으로 사고가 날뻔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고 2일 밝혔다. 승무원들이 지적한 사고위험이 높은 곳은 동대문운동장역 신도림역 교대역 시청역 혜화역 순이었다.

수돗물에 발암물질 남아있다

수질이 나쁜 원수(源水)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고도정수처리장에서 물 소독을 위해 필수적으로 쓰이는 오존이 원수 속의 광물질인 브로마이드와 반응하면서 '브로메이트'란 발암물질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연구실이 작성한 '고도정수처리 시스템개발 연구' 보고서에 의해 2일 밝혀졌다. 우리나라에는 부산 화명정수처리장 등 4곳의 고도정수처리장이 가동중이며 99년까지 12곳을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농축협 꿀서도 감미료 검출

건강식품인 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량의 감미료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3일 7월중 꿀 젓갈 어묵 등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5백22건을 수거, 기준 및 규격검사를 실시, 이중 31개 제품이 감미료 기준치를 초과 부적합판정을 내렸다.

반야 라이온스 클럽 박진완님의 현대불교 신문 부산 지사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 예공종합건축사 ◆
대표 정 운 영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4-24
전 화 : 569-5290
FAX : 483-5724

◆ 장복철강 ◆
대표 신 장 교
주 소 : 서울 구로구 구로5동 603-9
전 화 : 634-3439
FAX : 631-3439

◆ 자비승복사 ◆
대표 이 윤 용
주 소 : 서울 종로구 관훈동 85번지
전 화 : 739-3907

◆ 대 불 광 ◆
대표 허 길 용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 화 : 738-1117/8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21

동산의 몽둥이

*동산이 운문에게 가르침을 구했다. 운문이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인가." "사도(査渡)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이번 여름은 어디서 보냈나." "호남(湖南)의 보자사(報慈寺)에 있었습니다." "언제 거길 떠났지." "8월 25일입니다." "세 차례나 두들겨 필 걸 참는 것이니 물러가지." 다음날 아침, 동산은 운문에게 문안드리며 물었다. "어제 세 차례나 맞을 짓을 했다는데 대체 제가 무얼 잘못했습니까." 운문이 말했다. "그런 식으로 강서와 호남을 돌아다녔더냐, 밥통같은 놈!" 동산은 이 말에 대오했다.

*나 혜개는 말한다. 운문은 그때 본분(本分)의 양식(糧食)을 주어 동산으로 하여금 살아날 길을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집안이 적요함을 면했다. 밤새도록 시비의 바다에 빠뜨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려 다시 설파해 주자, 동산이 곧 깨달았지만 그래도 똑똑했다고는 할 수 없다. 자, 어디 물어보자. 동산은 세 차례의 몽둥이를 맞아야만 했을까. 맞아야 했다면 늙어선 그대들도 함께 찜질을 당해야 하고, 혹 그럴 일이 없었다면 운문이 헛소리를 한 것이 된다. 여기서 사태를 분명히 인지한다면 동산과 더불어 깊은 한숨을 토할 것이다.

*송하여 가로되, "사자가 새끼를 가르치는 것이 선가의 교육법. 새끼가 절벽을 기어오르려 하면 발로 차 버린다. 괜시리 날려주는 두번의 비밀, 첫번 화살은 약과이고 두번째가 무섭다."

洞山三頓:

雲門, 因洞山參次, 門問, 近離甚處. 山云, 查渡. 門曰, 夏在甚處. 山云, 湖南報慈. 門曰, 幾時離彼. 山云, 八月二十五. 門曰, 放汝三頓棒. 山至明日, 却上問訊, 昨日蒙和尙放三頓棒, 不知過在甚麼處. 門曰, 飯袋子, 江西湖南, 便恁麼去. 山於此大悟. 無門曰, 雲門當時, 便與本分草料, 使洞山別有生機一路, 家門不致寂寥. 一夜在是非海裏著倒, 直待天明再來, 又與他注破, 洞山直下悟去, 未是性燥. 且問諸人, 洞山三頓棒, 合喫不合喫. 若道合喫, 草木叢林, 皆合喫棒. 若道不合喫, 雲門又成誑語. 向者裏明得, 方與洞山出一口氣. 頌曰, 獅子教兒迷子訣, 擬前跳 早騈身. 無端再敍當頭著, 前箭猶輕後箭深.

운문(雲門, 864~949)은 밥그릇을 들고 어정대던 덕산을 면박주던 그 설봉의 제자이다. 집안이 가난하여 일찍 출가했다. 율장에 심취하다가 미흡함을 느껴 황벽(黃檗)의 제자인 목주(睦州)를 찾아갔다. 목주는 사흘을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목주가 잠깐 문을 연 사이, 운문이 재빨리 밀고 들어가려 하자 목주는 거칠게 문을 닫아버렸다. 문틈에 발이 찍힌 통증에 운문의 눈 한쪽이 열렸다. 목주는 그를 설봉에게 보냈다. 설봉은 그가 범상치 않은 그릇임을 알아보고 대중의 수좌로 삼았다.

운문은 선종 5가의 한 문호를 연 사람이다. 임제와 더불어 과격함으로 소문 나 있다. 다음의 일화는 경건한 불자들을 송연하게 할 것이 틀림없다. 석가는 태어나면서 일곱 걸음을 옮기며 "천상천하(天上天下)에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고 읊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운문은 이렇게 외쳤다.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를 몽둥이로 때려죽여 굶주린 개에게 던져 주었을 것이다." 진리는 석가에게도 있지 않다는 것을 철저하게 추구한 구도인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권위에 대한 의존과 집착을 떨쳐주기 위해 그는 늘 몽둥이를 흔들고 다녔다. 그런 그에게 애송이 하나가 걸려 들었다.



그림 · 이준석

동산수초(洞山守初 910~990). 이 사람은 조동종(曹洞宗)을 창시한 동산양개(洞山良介, 807~869)와는 다른 인물임을 우선 일러둔다. 동산이 가르침을 구하자 운문은 어디서 오는 길이냐고 묻는다. 앞에서 자주 보았듯이 선가에서 이런 물음은 예사롭지 않다. 네가 자동인형의 의타적이고 의존적인 삶을 넘어 건곤(乾坤)을 독보(獨步)하는 주인공으로 살아있느냐, 그렇다면 어디 그 증거를 내놓아보라는 다그침이다.

"시비의 바다에 머물지 말라"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 말씀도 타파

동산은 안타깝게도 운문의 시험문제를 알아듣지 못했다. 세번의 노파심에도 딴소리를 하자 참다 못한 운문이 와락 소리를 질렀다. "이놈, 세 차례나 몽둥이를 칠 걸 내가 참는다." 동산은 얼떨떨한 얼굴로 물러나왔다. 밤새 그는 '시비의 바다에서' 시험문제를 끌어안고 뒹굴었다. 그 정도는 우직해야 가능성이 있다. 어설프게 질문을 알아듣는 척하거나 어법에 익숙해지면 진리의 문은 닫힌다. 다음날 아침, 번민에 찬 부스스한 얼굴로 동산은 운문에게 나아가, 대체 자신이 뭘 잘못 했는지를 알려달라고 조른다. "밥통같은 놈, 그런 꼴로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고 돌아다녔느냐." 이 말에 동산은 식은 땀을 흘렸다. 시험문제가 뭐였는지를 알아들은 것이다.

혜개가 말한 대로 화살은 두번을 날아갔다. 몽둥이를 아끼겠다고 한 것이 첫번째 화살이고, 이런 머저리 밥통같으니 하고 내지른 것이 두번째 화살이다. 하룻밤을 고민하게 한 첫번째 화살은 약과이고, 식은 땀을 흘리게 한 두번째 화살은 깊이 살을 뚫었다. 새끼 사자인 동산은 하룻밤을 절벽을 오르려 기를 썼지만 운문은 그 애처로운 노력을 발로 차버리는 비정함을 보였다. 그 무서운 절벽의 공포와 고통을 거쳐 나와 동산은 천지간에 자유를 얻고 적막할 뻔한 운문의 가문을 지켰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法數로 배우는 불교

〈31〉

칠변(七辯)

참선을 해서 마음의 깨침을 얻으려면 얻어진 경지가 참된것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도가 높은 스승을 찾아가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스승으로부터 수행한 결과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자기딴에 아무리 높은 수행을 쌓았다 해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아무런 행세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옛부터 이렇게 수행자가 도안이트인 스승으로부터 수행경지를 인정받는것을 인가(認可)라고 하는데 이러한 풍습은 화두(옛 조사들이 던진 생각이나 이론으로는 풀 수 없는 거대한 수수께끼로 공안이라고도 함)를 참구하는 선가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

스승이 던져준 하나의 화두를 의심하고 의심해서 더 의심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러 마음 가운데 털끝만큼의 망상 조차도 용납하지 않을 만큼 꽉차게 된 것을 의단(疑團)이라고 하고 이 의단이 홀로 뚜렷해서 크나큰 삼매를 이루면 마침내 화두가 타파되어 모든 의심이 풀리면서 크나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화두가 제대로만 타파되면 1700여 가지나 되는 다른 화두들의 해답도 스스로 다 풀리게 되는 법으로 스승이 어떤 화두를 묻든지 막힘없이 대답하게 되어있다. 만약 스승의 수 많은 물음에 적중치 못한 대답을 한다든가 물음에 즉시 대답하지 못하고 한 생각이라도 알음알이 굴려 대답을 했다가는 다시 스승이 내려 주는 지시에 따라 수행을 해야 한다.

과거에 어떤 스승은 제자가 자신의 수행을 인가 받으려 찾아오자 배를 타고 강 한가운데로 데려가더니 다짜고짜로 물에 밀어넣어 버렸다. 느닷없는 일에 헤엄도 못 치는 제자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스승은 이때 제자의 수행력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정신도 못차릴 지경에 있는 제자에게 공안을 마구던져 답을 들어 보면서 제자의 지혜를 측정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때 몸은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손 치더라도 마음만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적중한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추어야만 스승은 인가를 해준다. 이런 예화를 드는 이유는 깨달음의 언어는 외부에서 배운 어떤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원성스님 作 '지대방'

생명의 목마름 적셔줄 수 있는 깨달음의 언어능력 7가지

분별과 망상과 알음알이 등이 붙을래야 붙을 수 없는 청정하기 그지없는 본연의 마음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나오는 말이 깨달음의 언어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말은 부처님이나 보살 또는 위에서 처럼 수행하여 도를 얻은 조사들이 쓰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분들의 언어가 세상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는 다른 것이 세상 사람들의 언어가 남의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의 물을 쓰는 것과 같다면, 불보살의 언어는 땅에서 항상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항상 자신의 본심에서 자유자재하게 나온다는 점이다. 스스로도 목마르지 않고 모든 생명들을 다 적셔 줄 수 있는 언어능력, 이것을 변재구족(辯才俱足)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일곱자기의 칠종변재가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

첫째는 첩변(捷辯)으로 말을 더듬지 않고 곧 바로 질문에 따라 즉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는 신변(迅辯)으로 모든 사리에 통달하여 막힘없이 유창하게 설명해주는 능력이다. 셋째는 응변(應辯)으로 때와 상대의 근기에 알맞게 적절히 말해주는 능력이다. 넷째는 무소류변(無疏謬辯)으로 진리와 계합하여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이치를 설명해주는 능력이다. 다섯째는 무단진변(無斷盡辯)으로 어떤 것을 예를 들어 말하여도 진리와 연결을 짓되 계속하여 끊임없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여섯째는 다풍의미변(多豊義味辯)으로 한마디 말속에도 깊고 묘한 뜻이 숨어 들는 이로 하여금 풍부함을 얻게하는 능력이다. 일곱째로 최상묘변(最上妙辯)으로 음성이 맑고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방에 잘 들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심이 나도록 하는 능력이다.

이와같은 칠종의 변재능력은 남에게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깨달아 자연발생적으로 터져나와야 얻게 되는 것으로 수행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29

불교와 수학 ㉔ 패러다임 파괴

김 용 운

이 글은 초등학교, 중, 고 그리고 대학, 대학원까지 수학을 공부해도 수학 공부는 끝이 없는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불교적인 답이다.

선(禪)에는 무서운 말들이 곧잘 등장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부모를 만나면 조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라'〈임제록〉. 이 내용은 물론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부모, 조부모, 부처의 가르침까지도 부정하고 스스로의 경지를 세우라는 적극적인 뜻이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스승과 부모, 그리고 사회의 규범 속에서 성장해 간다. 갓난 아이가 늑대 사회에서 살면 늑대처럼 행동한다는 실례도 있다. 갓난아이는 아무런 정신적 오염이 없이 백지와도 같은 상태로 태어난다. 그러나 날마다 주위로부터 겹겹이 인연의 파도가 몰아친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도 부모, 학교, 사회 등으로부터 익혔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국어를 하게 된다. '언어와 사고' 또는 '언어는 사상의 화석'이라는 언어학상의 경구도 있을 정도다. 그것은 이미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생각보다는 조상, 사회의 가치관 속에서 사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나는 이미 내 자신의 것이 아닌 남들이 형성해 놓은 가치관에 의해 좌우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 봉건시대의 가치관은 이미 존재 이유를 잃었다. 무의미해진 공산주의 가치관도 있다. 한 시대가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가치관들이 많다.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는 가치관은 나의 자유로운 사유, 절대 경지로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절대적 경지를 목표로 하는 선(禪)의 세계에서는 모든 선입견,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맑은 눈으로 자연의 섭리, 동식물 등 모든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모든 학문 스승의 틀 파괴 새 경지 전개

"불성있다" 인간의 무한 가능성 인정

20세기 최대의 과학사(수학사)학의 업적으로 T.쿤의 패러다임 이론이 있다. 수학에서는 기존의 틀에서 아무리 문제를 잘 풀어도 천재라는 말은 들을 수 없다. 그 보다는 기존의 틀 속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틀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 일단 누군가 천재가 틀을 정해 놓으면 그 후계자들은 모두가 그 틀 속에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가령 원시의 미개인 사회에서 처음으로 수학자가 나와

2+2=4, 2+2+2=6, 2+2+2+2=8, ……

이라는 식으로 덧셈 법칙을 발견했고, 그후 모두가 그런 수학을 배웠다. 그러나

2+2+2+……+2

를 차례로 더해갈 때 일일이 더하는 일이 번거롭기 때문에 새로운 천재가 나와 구구단을 발견한 것이다.

2×2, 2×2, ……,2×n

이런 식으로 곱셈을 알게 되면 상당한 계산 능력이 향상된다. 수학사는 모두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태양이 움직인다는 천동설은 지동설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 쿤은 이와 같이 과거의 이론에서 벗어나는 일을 패러다임 혁명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곱셈 공식을 발견한 사람은 덧셈 공식을 만든 스승의 생각을 파괴하고 수학의 세계를 한 차원 올려 새로운 경지에 도달시킨 것이다. 즉 스승을 죽인 것이다. 수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은 스승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틀을 파괴하고 새로운 경지를 전개할 때 일가를 이룬다고 한다. 아무리 많은 남의 지식을 주어 모아도 자신의 세계에 이르지 못함을 말한다. 여기에는 인간이 만든 것이라면 어떤 이론도 절대가 아님을 의미하고 있다. 불자에게 부처는 절대적인 존재다. 그러나 그것마저 죽이는, 곧 부처의 패러다임을 파괴하는 용기를 지녀야 함을 강조한다. 이 사실은 곧 인간의 무한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각(大覺)을 얻는 일이다. 그 가능성은 인간에게는 불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렇기에 부처를 죽일 수 있고 어떤 천재가 수립한 대이론(패러다임)도 파괴해 갈 수 있다. 곧 수학(과학)도 무한의 발전이 가능해진다.

인간이 부처가 될 수 있다면 이 현실 사회가 극락 세계가 될 수 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한다. 그 믿음을 갖는 일이 곧 온누리에 자비의 빛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수학도 발달시킨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화제의 새 책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를 통해 저승길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능력 세계!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김점기 지음



뚜렷한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기를 모으면 영혼을 부를 수가 있는데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생에서 지은 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나죠.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혼들을 사후세계로 보내주면 혼령이 붙어서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여성중앙〉-

신국판 240쪽/값 6,000원

• 읽고 난 후 저자에게 문의하실 분은 〈지장정사〉로 연락하세요. 전화 : (02) 651-3880

도서출판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호 중앙B/D 전화 : 3474-3521(영업부) 팩스 : 3474-352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4기 佛敎儀式(범음 · 범패)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 의식전문 법사 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 1997년 9월 1일 ~ 10월 6일
- 개강일시 : 1997년 10월 6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해외포교과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 · 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海東佛敎大學
學長 張二斗
海東梵音大學
學長 鄭大隱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현대불교
서기 1997년 9월 10일 수요일
제 142호

시방세계

불교성지순례 전문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한국동 로타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 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 '개발' 이라는 명분아래 국토의 허파인 국립공원이 병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작년 겨울 개최된 우주 유니버시아드대회장을 개설키 위해 국립공원 덕유산이 개발 되는 장면. 〈사진제공 · 환경운동연합〉



◇ 국립공원은 국민의 휴양지로 철저히 보존관리되어야 할 보물이다. 사진은 소백산국립공원.
〈사진제공 · 국립공원관리공단〉

산 좋고 물 맑던 국립공원 '관리 엉망'

곳곳에 오물 · 악취…개발분쟁…말로만 '정신휴양지'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을 독점하여 국민들에게 나쁜 상품을 팔아먹는 불쾌한 독점기업인 것 같다."

최근 어느 대학의 교수가 한 신문의 칼럼에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다녀 온 소감을 기고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그 교수는 지리산의 산장과 야영장의 시설에 실망을 금치 못했고 오물 정화 시설이나 수거 기능이 마비된 듯한 관리체계에 할 말을 잊었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최근 지리산을 종주한 가립산악회 회장 박득규씨도 "얼마전에 새로 지은 벽소령 대피소의 경우는 정화 소각시설이나 취사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악취가 코를 찌른다"고 전했다. 박회장은 또 "같은 지리산 공원이지만 장터목 산장의 경우는 유숙하는 등산객의 신분증을 맡아 뒀다가 돌아갈때 쓰레기를 회수해 와야 신분증을 돌려주는 방법을 택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산의 쓰레기 문제는 등산객의 의지와 관리자의 제도적 처방에 따라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산이 좋아 산에 간 사람들이 왜 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일까. 산악관리인들은 하나같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과 입장료를 내고 왔으니 버리고 가면 누군가 치우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라고 분석한다. 국립공원 지역은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마지막 보루다. 환경과 자연생태적 측면이 아니더라도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립공원의 청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할 생명줄이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풍경지 및 문화유적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 국민의 보건및 여가와 정서생활에 기여토록한다는 목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현재 국립공원은 20곳이 지정되어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도표1 참조〉 그러나 국립공원의 지정 30년을 맞은 올해까지도 지정 목적과는 다른 길을 걸어와 국토의 허파를 병들게 했다는 비난을 수없이 들어왔다. 공원관리의 헛점은 고사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공원지역의 자연훼손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 3월 감사원이 국립공원에 대한 감사결과 탐방객들을 위한 공원내 집단편의 시설인 집단시설지구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공원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립공원의 수질오염방지 업무와 그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있다는 지적도 했다. 전국 국립공원의 계곡 및 해안변에 산재한 2천 8백57곳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음식찌꺼기와 오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립공원내의 위법건축물도 하루속히 정비되어야 할 대상으로 꼽힌다. 작년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법건축물 단속을 벌인결과 5개 국립공원에서 9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속리산 국립공원의 경우 88건에 이르는 중요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국립공원 지역의 개발 욕심은 더욱 가속화됐다. 지자체들은 국회에서까지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국립공원의 개발사업에 집착을 보이고 있다. '개발이 곧 돈'이라는 지자체의 현실적인 타산이 국립공원의 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아직까지 상당수의 개발관련 사업이 추진되거나 환경단체등의 반대에 부딪혀 법적인 다음으로 맞서고 있다. 95년 12월 30일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며 공원지역내의 개발사업이 강력히 규제되고는 있지만 그 이전에 허가를 얻은 개발업체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최근 환경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중요 문화재가 포함된 사찰 인근에서 개발이 추진되어 환경분쟁을 야기시킨 사례도 10여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표2 참조〉

관리공단 30년째 무능한 독점
정화시설 제대로 갖춘곳 없는데
공원입장료 수입 어디다 쓰나

'입장료 폐지' '국세로 운영' 여론
국민환경의식 전환도 필수 과제

병들어 가는 국립공원을 회생시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질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민의 자연보호 인식이 고양되어야 한다는 점을 꼽는다. 다음으로는 공원의 관리 주체가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답을 내놓는다.

〈도표1〉 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 현황

항목	현황	비 고
국립공원 총지정수	20개소	첫지정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 총면적	6천4백만173㎢	육지 3,825㎢ 해상 2,648㎢ 전국토의 3.9%
국립공원 연간이용객	3천만명	
관리공단 설립	1987.7.1.	자연공원법 제149조 2에 근거
관리공단 임직원	722명	본부 84명, 지방 638명
관리공단 연간예산	400억	입장료 230억 정부 출연금 70억 시설이용료100억
관리공단 관리사무실	26개	관리사무소 23, 시설사무소 3

국립공원 관리의 문제점은 지난 30년간 관리주체가 일관되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67년 첫지정 이후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관리를 맡아오다가 87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공원 관리의 주체는 건설부로 넘어 갔다. 91년에는 다시 관리공단이 내무부 산하로 들어 가며 국립공원의 관리 업무는 내무부 소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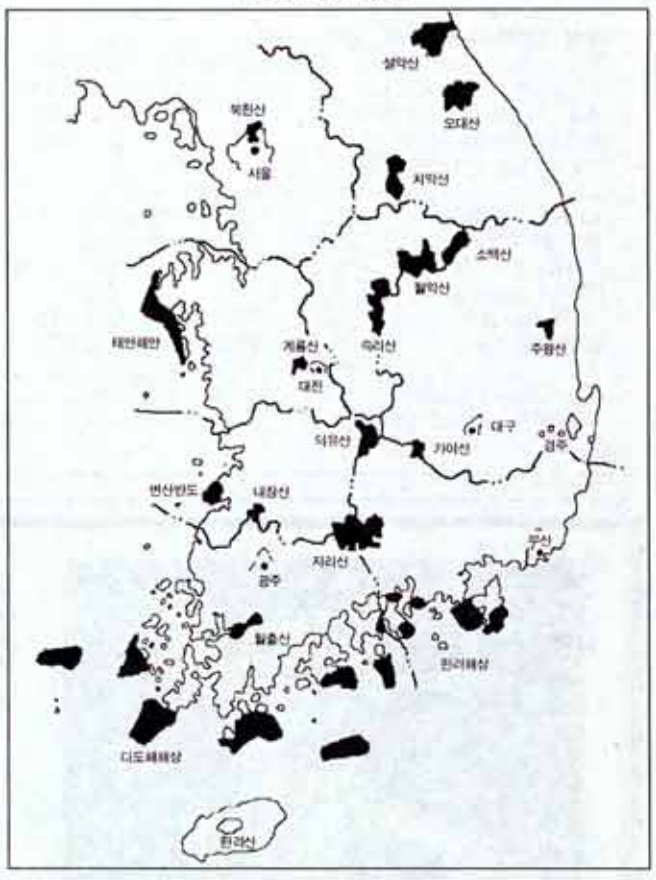
현재는 국립공원의 관리 주체가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대두되고 있다. 또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은 공단이 내무부 산하에 존립하기 보다는 문화재관리국처럼 하나의 외국(外局)으로 자리잡던가 공원청으로 지위와 위상을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존과 개발이라는 피할 수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현재의 구조로는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체 운영예산의 확보를 위해 징수하는 공원입장료와 주차장등 시설이용료 정부출연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관리공단의 예산 자체가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사실 공단은 '지나치게 수입에 매달리고 본연의 임무인 공원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입장료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등을 국가세입으로 하여 공단의 운영에 따른 예산을 정부가 일괄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원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취사행위와 오물투기를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단속요원의 확충과 그들에게 사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단측의 주장이다.

30년 성상이 무색하게 '불쾌한 독점기업'이라는 혹평을 면치 못하는 국립공원의 현실은 제도적 모순과 국민의식의 후진성이 빚어낸 결과일 수 밖에 없다. 국립공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와 관리공단의 전문화 된 관리체계 운용, 그리고 국민의 의식전환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임연태 기자

◇국립공원 위치도



〈도표2〉 국립공원 개발에 따른 사찰환경분쟁현황

해당공원	개발내용	관련사찰	추진상황
가야산	해인골프장	해인사	소송계류중
가야산	동아골프장	해인사	경남 합천군 검토중
속리산	분장대 용화지구 온천개발	법주사	소송계류중
덕유산	유니버시아드대회장 건설	백련사 안국사	희귀목 고사실태 조사
설악산	모노레일 설치	신흥사	관계부처 반대로 승인안됨
계룡산	사찰경내지 야영장 조성	갑사	계획 추진중
설악산	종합휴양지 조성	백담사	계획 추진중
북한산	순환도로 건설	화계사	사업검토중
내장산	관광객탐방소 건립	내장사	신축진행중
지리산	골프장 시설물 건립	칠불사	신축진행중
월악산	임야개발 산림훼손	덕주사	진입로 조경사업 등 사찰과 주민 협의중

〈1997년 8월 환경부 자연보건국〉



◇ 해인사가 위치한 가야산 지역에 골프장 개발이 추진되자 불교계와 환경단체는 일제히 저지운동을 벌였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술천품(述千品) ②

千千爲敵 천천위적
一夫勝之 일부승지
夫若自勝 미약자승
爲戰中上 위전중상

수천의 적을 상대하여
혼자 싸워서 이겼다해도
아상을 조복받지 못하면
최상의 전사라 하지못한다

自勝最賢 자승최현
故曰人雄 고왈인웅
護意調身 호의조신
自損至終 자손지종

나를 이김이 가장 현명한 일
그러므로 사람중의 사람이라
생각을 다스리고 몸을 다잡으면
버리고 버려서 마침에 이르리라

雖曰尊天 수왈존천
神魔梵釋 신마범석
皆莫能勝 개막능승
自勝之人 자승지인

하늘이 비록 높다하지만

"비록 백년을 산다해도 삿됨 따르면 하루살며 바른지혜 배움만 못하다"

신이다 마왕이다 범천·제석이라도
아무도 이겨내진 못하리라
스스로를 이긴 이에게는

月千反祠 월천반사
終身不輟 종신불철
不如須臾 불여수유
一心念法 일심념법
一念道福 일념도복
勝彼終身 승피종신

달마다 천번씩 제사를 드려
목숨 다하도록 쉬지않는다해도
잠깐 동안이나마 한마음으로
법을 생각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
한생각에 짓는 그 복은
평생 제사지냄보다 수승하리라

雖終百歲 수종백세
奉事火祠 봉사화사
不如須臾 불여수유
供養三尊 공양삼존
一供養福 일공양복
勝彼百年 승피백년

비록 백세를 다 살도록에
불을 숭배하는 외도를 받들어도
잠깐 동안이나마 삼존불에
공양 올림만 같지 못하니
단한번 공양올린 그복은
저 평생의 제사보다 수승하리라

祭神以求福 제신이구복
從後觀其報 종후관기보
四分未望一 사분미망일
不如禮賢者 불여예현자

신에게 제사하여 복을 구하고
다음에 올 보답을 바란다해도
그 반의반도 바랄 수 없나니
어진이에 예배함만 같지 못하네

能造行禮節 능선행예절
常敬長老者 상경장로자
四福自然增 사복자연증
色力壽而安 색력수이안

능히 예절을 잘 지키고
항상 장로를 공경하는 이
네가지 복 절로 더하고 자라리니
수명과 건강과 아름다움과 편안함이라

若人壽百歲 약인수백세
遠正不持戒 원정부지계
不如生一日 불여생일일
守戒正意禪 수계정의선

사람이 비록 백년을 살아도
바른길 멀리하고 계율을 버리면
다만 하루를 살지라도 계율지키고
뜻을 바루어 참선함만 못하리라

若人壽百歲 약인수백세
邪爲無有智 사위무유지
不如生一日 불여생일일
一心學正智 일심학정지

사람이 비록 백년을 산다해도
삿된 길 따르고 지혜롭지 못하면
다만 하루를 살지라도 한마음으로
바른 지혜 배움만 같지 못하리라

若人壽百歲 약인수백세
懈怠不精進 해태불정진
不如生一日 불여생일일
勉力行精進 면력행정진

사람이 비록 백년을 산다해도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으면
다만 하루를 살지라도 힘을 다하여
정진 함만 같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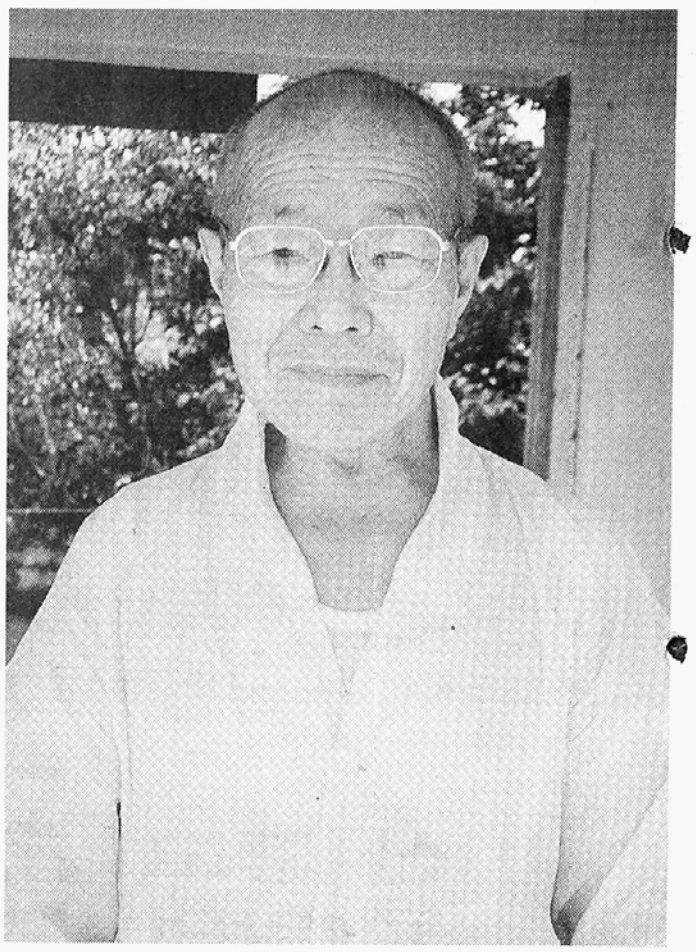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불평하면 생각 좁아져

보경스님 〈보광명사 회주〉

"선악의 중심은 자신속에 있어요
매사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스스로를 옭아매고 편협되게 합니다"



약력
- 1919년 4월 충남 서산 生
- 1934년 강원 오대산 월정사 입산
- 1935년 월정사에서 탄허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수지
- 1942년 한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 1951년 삼척 영은사 주지
- 1994년~현재 유성 보광명사 (구 자광사) 회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싱싱함을 부러워하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의 연륜을 부러워 합니다. 젊음은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기에 소중한 것이고 연륜은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가치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이치대로 평등한 것이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대우주의 질서입니다. 세상이 자신을 등졌느니, 자신은 옳게 살려고 하는데 사회가 자신을 삐뚤어지게 만든다느니 하는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두통거리인 청소년문제만 해도 유해환경이 청소년들을 타락시킨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나쁜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그러나 선악의 중심은 사회가 아닌 자신 속에 있습니다. 부모나 주변환경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자신을 추스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자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모두가 불량 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평은 끝이 없습니다. 긍정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은 결국 자기자신을 옭아매고 편협한 사고방식을 지니게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나도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지닌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에 몸을 담은후 세상이치는 모두 평등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부모님이 엄격하신데다 옛것을 고집하셔서 출가하기 전까지는 서당에 한문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물론 학교에는 다니지 않았습니다. 절집에 발을 들여놓게 된 연유도 이렇게 시작한 한문을 공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다니던 서당의 훈장어른이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가는 바람에 서당이 문을 닫게 돼 하던 공부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통감을 삼년쯤 익히다 보니 토가 저절로 달려 한창 공부하는 재미를 느낄 때였습니다.

다섯 해 정도만 더 공부하면 그런대로 이 공부를 완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공부를 시켜 주겠다는 숙부의 말에 이끌려 숙부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속과의 인연이 안되려고 그랬는지 숙부가 빚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공부를 더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숙부는 그런 나를 안타까이 여겨 수덕사에 가면 한문공부를 더 할 수 있으니 그리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덕사에는 선방만 있어 글을 가르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수덕사 입승으로 있던 강월스님이 오대산 상원사에 가면 한문을 잘 배울 수 있다고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 스님의 은사이신 한암스님이 한문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지요.

"오리다리는 짧은대로 평등하고
황새다리 긴대로 평등한 것
행자시절 한암스님 주신 법문에
그동안 불만이 일순간 허물어졌지요"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한암스님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때 한암스님은 어린 사미들을 모아놓고 마을 훈장어른처럼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오직 한문을 공부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가득찬 내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마침 스님을 시봉하던 상좌가 다른 곳으로 가서 스님을 시봉할 기회까지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행자생활의 시작이었고, 내나이 16살때였습니다. 하지만 다섯 해 정도 한문공부를 하고는 속세로 내려오겠다는 애초의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불교가 무엇인지, 절집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행자생활을 하며 한문공부에 몰두하고 있던 어느날이었습니다. 한암스님께서 내게 이런 법문을 내리셨습니다. "산은 높은대로 바다는 깊은대로 평등한 것이다. 오리의 다리는 짧은대로 평등한 것이고 황새의 다리는 긴대로 평등한 것이다.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면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불평을 하게 된다.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해서 황새의 다리를 잘라 붙일 수 있겠는가."

가세가 기울어 하고 싶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세상이 불평등하다는 강한 불만을 품고 지내 온 터였습니다. 심지어는 상원사에 오기 전에는 이런 생각 때문에 부잣집 아이들과는 어울리지도 않을 정도로 가난에 대한 불평을 가득 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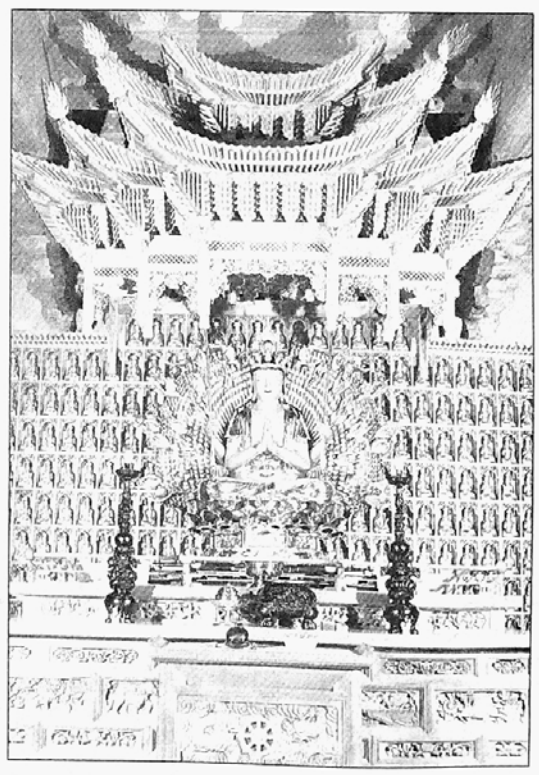
스님의 법문은 그동안 내 마음속에 굳게 자리잡고 있던 불만을 일순간 허물어 뜨렸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나서야 부귀빈천이 모두 다 업보라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스님의 깨우침으로 출가하게 됐습니다. 불평만 하고 살면 발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생각은 좁아지고 마음의 눈 뜰수 없습니다.

이듬해 사월보름 한암스님의 제자인 탄허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습니다. 사미계를 받던 날 나는 이렇게 결심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공방연구실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825

대표 이진형 합장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의 눈 뜰 수 없어요"

"요즘 사람들 물질이 흔하다보니 공부는 뒷전이고 물질에 끄달려요 풍족해도 아낄줄 알아야 수행인데…"



◇93년 2월 자광불교교양대학 수계 및 수료식 후 졸업생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다. 사미계를 받던 날 나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세세생생 부처님 법을 따르고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고.

계를 받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부처님 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문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한암스님에게서는 '사집'을 익혔고 은사스님에게서는 '사교'와 '대교'를 익혔습니다.

한암스님은 세상이 다 아는대로 사리에 밝으셨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김없이 깨우쳐 주시곤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늘 상(相)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고집을 부리기라도 하면 이김없이 부처님 말씀을 적절히 예로 들어 일깨워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예순 해동안 절집에서 있으면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 온 가르침중의 하나입니다.

한암스님과 탄허스님은 사제지간이지만 학문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불법과 학문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간혹 경전을 읽다가 토때문에 의견이 맞서곤 했는데 한암스님은 부처님 경전은 글경위만 따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신 반면 탄허스님은 글경위를 따져 자신의 주장이 맞다며 하루종일 갑론을박을 벌이시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대로 살아있는 교훈이요 공부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두 분 스님 밑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이었습니다.

24살에 한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을 때까지 내 수행생활은 두 분 스님의 얘기를 빼놓고는 아무 것도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해인가 공부를 하던 중 감기에 걸려 고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피를 쏟고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공부하는 놈이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제 볼일 다 보고서야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몰랐던 게지요. 축농증이라는데 정도가 심해 숨을 입으로 쉴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대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감퇴해 버렸어요. 평소 한 번 보면 기억하던 것을 몇 번을 봐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던 공부가 제대로 안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전같은 기억력을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절망스러웠지요.

"세상에 자기것이 어디 있습니까 잃어도 잃지 않았다 여기면 더크게 얻어"

절망이 깊으면 깊어갈수록 이 절망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거듭거듭 다짐을 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책에 매달리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잃었던 기억력이 되돌아온 것은 아닌데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비로소 진정한 신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억력은 잃었지만 진정한 부처님의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이미 잃었거나 앞으로 잃게 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재산을 잃게 되기도 하고, 지위를 잃게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기 잃게 되는 것은 인연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ㅇ럴 때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잃은 것도 가진 것도 모두 다 하나고, 잃어도 잃지 않았다고 여기면 가진 것이요, 가져도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잃은 것입니다. 생각을 돌리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한암스님께서는 평소 부처님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다섯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참선, 염불, 간경, 예식, 가람수호가 그것인데 다섯가지를 다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지만 그도 어려우면 한가지만이라도 철저히 해야 양가득죄의 죄를 면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다섯가지중 참선을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자기의 근본마음자리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덕목은 출가자뿐만 아니라 세속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제대로 모르고서는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기자신도 찾지 못하면서 세상 어떤 것인들 얻을 수 있겠느냔말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잘 모릅니다. 아니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은 온갖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높은 위치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헤아릴 줄 아는 도량을 지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참자아를 찾고 아는데서 비롯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다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즘 출가자들이 한암스님의 가르침처럼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계율은 얼마나 잘 지키는지, 공부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각자가 자문하고 각성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공부를 합니다. 자랑을 하려는게 아닙니다. 나같이 늙은 노승도 공부를 하는데 하물며 젊디젊은 스님들이 공부를 게을리 한다면 이 나라 불교가 어찌되겠습니까. 나는 하루종이 일해도 고단한 줄 모르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혹 고단하면 한숨 자고 일어나면 그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는 것 없이 하는' 마음자세로 임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나는 출가인이든 속가인이든간에 이런 충고를 합니다. 물질에 끄달리지 말고 검소하게 살라고 말입니다. 요즘 공부는 뒷전이고 먹고 입는 것에 끄달리는 스님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풍족하게 자라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출가자가 물질에 얽매인다면 속가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끼고 아껴 살림을 살아야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절살림도 제대로 꾸릴 수 있습니다. 살림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가정도 나라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見聞如如(견문여환에)
보고 듣는 것은 모두 헛것과 같다
六塵本來空(육진본래공)
육진이 본래 없는 것이니
空無可空處(공무가공처)
가히 공할 것이 없는 곳에
明月與淸風(명월여청풍)
명월과 청풍이 있다

구족계를 받을 때 한암스님께서 주신 계문입니다.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육근(六根)과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 육진(六塵)이 본래 없는 것이며, 공(空)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 명월청풍이 있다는 말인데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둘로 보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계를 버리면 사방이 다 불법천지고, 그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주인공을 확인하고 싶어요

문 스님의 주인공 법문을 듣고 환희를 느낍니다. 저는 가끔 누구인가? 주인공은 누구인가?하고 화두를 염하고 있습니다만 스님께서는 태어난 것 자체가 화두라고 하십니다. 화두를 따로 염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면 제가 주인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영주 · 남원시 송동면)

답 화두가 따로 있습니까? 여기 내 앞에 수박이 한덩이 있다고 합시다. 그걸 들여다보고 이 놈이 뭘까 한다면 평생을 그렇게해도 수박맛을 모르게 되죠.

그냥 칼로 쪼개서 먹어야 제 맛을 알게 되지요.

그와같이 주인공이라는 놈, 요놈이 뭘까한다면 그걸 관이라 하거나 참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세상은 훌쩍 뛰어 넘는 세상이지요. 그러니 우물쭈물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자전거에 친다고 하듯이 그럴 새가 없지요. 그러니 마음의 칼로 쩍! 쪼개서 직접 맛을 보라 이 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냥 잘라 먹고 넘어가라, 부처님이 앞에 있어도 그냥 먹고 넘어가라 이겁니다.

그건 일체만법을 다 거기다가 맡겨놓고 가라는 것인데 왜 놓지를 못하고 고놈이 뭘꼬하느냔 말입니다.

주인공, 고 놈이 뭘꼬하고 아무리 그래보았자 언저리에서 맴도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인공이 다 알아서 하라하고 꿀꺽, 그렇게 집어 삼키고 넘어가라, 넘어서서 뚜벅뚜벅 걸어가라 이 소리입니다.

어떻게하면 잘 놓습니까

문 스님께서는 모든 경계를 주인공에 놓고가라, 믿고 놓고가라 하시는데 어떤 마음가짐이 진정으로 놓는 것인지요?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오로지 '주인공' 하는 것이 참선 수행인지요?

또 주인공과 자문자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하지면 저 스스로 '주인공! 어떻게 할까?' 했을때 '이건 이렇게 해!'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 또한 인위적인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어떤 수행이 올바른 수행입니까?

(류경훈 · 인천시 부평동)

답 아이들이 처음에 걸음마를 배울 때에 잘 걸을 수 있다고 하면서 걸음을 떼어 놓나요? 아니면 넘어질 줄 알고도 떼어 놓나요? 그런 누구에게나 생명의 근본 불성이 있고 그렇기에 모든 걸 '포괄적인 하나'로 놓고 볼 때에 진심으로 거기에다 맡겨 놓으면 안 경계와 바깥 경계에 다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량으로 이러니 저러니 해서 탈이 생기는데 맡겨놓고 보고 맡겨놓고 들으면 내가 어디에 서야 옳은지, 내가 어떻게 해야 옳은지 하는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답이 나오는 건 사량으로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다보면 걸음이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기까지는 체험을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믿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이럴까 저럴까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걸 보면 하나인데 나와 주인공을 둘로 보고 자꾸 머리를 굴리니 탈 입니다. 하지만 수억겁 전부터, 나를 있게하고 끌고 다닌 주인공을 믿지 못하면 뭘 믿습니까?

저 스님이 가르쳐 주기를 한마음 주인공에다 놓고 하라니까 어디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한다면 아니올시다 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굳건히 내 근본을 믿어라, 그래야 자기를 발견한다 이것이지요. 물론 전자에 먹은 마음의 업보가 두터워서 자꾸 엉뚱한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그럴수록에 무얼 믿겠습니까? 허공을 믿을 건가요, 형상을 믿을 건가요?

진짜로 한마음 주인공을 믿고 거기서 깨우쳐야 합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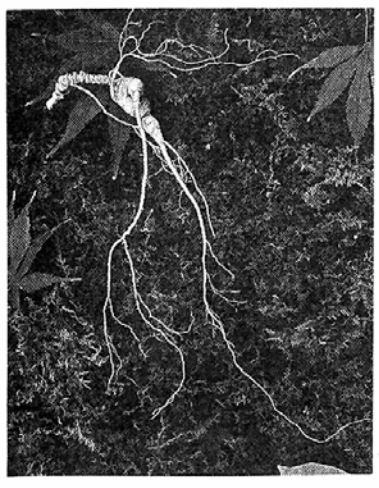
보낼곳 : 110 - 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 - 4162 팩스 : (02)737 - 0698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약용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아래에 불과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중 장뇌란 삼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재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精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벌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옅아지고 혈색이 잘도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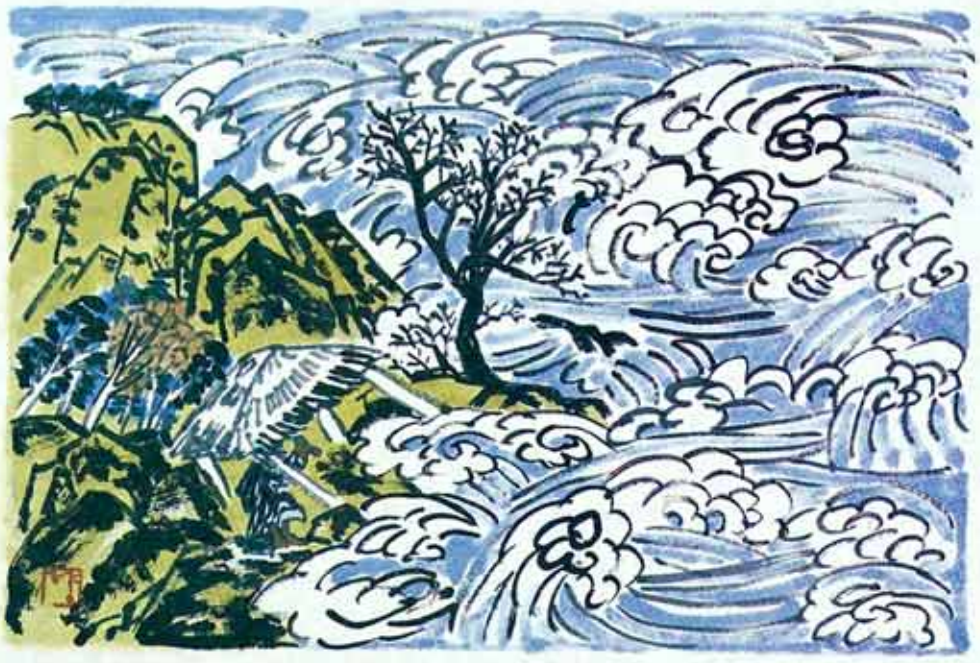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고은 불교대하소설



바다 혼돈



구경의 세계에 "작은 것으로 태어나고 싶다"

사나운 너울에 중상을 당한 우녀는 피가 낭자한 몸을 만지며 넋두리를 했다 "아픔이야말로 생명의 구급약…헛된 손님 …시간과 공간도 아픔…무아…공"

한밤중이었다. 우녀는 어둠 속에서 들려온 어떤 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 그 잠은 잠자리 날개라도 되는 것처럼 얇은 것이었다.

무슨 소리일까. 문득 옛날 이야기 속에서 먼 길의 나그네를 맞아들여 잠자리까지 제공한 뒤 그 나그네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가는 소리인듯 소름이 끼칠만 한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정숙한 반가(班家)의 부인이 긴 비단치마를 끌고 가는 소리인 듯 고혹하기도 하였다. 아주 맑은 소녀의 귀에는 저녁 하늘 속을 날아가는 두루미 날개소리이거나 그 두루미가 소나무 가지에 앉을 때 내는 날개소리로도 들릴 법하였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큰 소리로 들려오고 있었다. 그럼에도 우녀는 몸을 일으키지 않은 채 그대로 누워 있었다.

며칠전에는 쿵! 소리가 몇번 들리더니 이제는 허공을 긁는 소리가 나는구나 하고 여겨지기도 하는 그의 몸은 방바닥에 붙어있는 것처럼 누워있는 그대로였다.

그가 몸을 움직이려 하였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나에게는 제바(提婆)같은 제자가 없도다!"라고 그는 아주 오랜만에 그 자신만으로 살아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가 그 자신의 몸을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 사실이 뜻밖에도 제자가 없다는 것으로 그 고독의 무능을 드러낸 것인지 몰랐다.

소리는 적어도 섬 기슭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들려왔다. 파도소리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슨 소리란 말인가.

그 소리는 큰 스승이 무너지며 작은 제자들이 태어나는 소리인가. 큰 바위가 무너지며 작은 물방이들이 바위를 따라 떨어지는 소리인가.

"작은 것으로 태어나고 싶도다."

우녀는 이런 난데없는 말 한 마디를 입안에 구을리고 있었다.

그것은 제바같은 제자가 없다고 한 그 자신이 제바가 되고 싶은 원망(願望)을 담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제바란 누구인가. 바로 3세기 남인도의 대승불교를 들어올린 용수보살의 제자가 아닌가.

스승 용수가 발우(鉢盂)를 물 속에 넣었다. 그러자 제바는 그 물 속에 바늘 하나를 던져 넣음으로써 스승에게 귀의하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바로 이 바늘 제자를 스승은 받아들였던 것이 훗날 바늘 던지기(投針)로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인즉 발우나 물병에 물을 채우는 것은 인도 여러 고장에서 상서로운 징조 또는 축복을 뜻하고 있었다.

제바는 애꾸눈이었다. 용수보살의 공(空)을 터득하여 백론(百論) 등의 책을 짓고 인도 중관파(中觀派)의 조상으로 섬겨지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과격한 이교도에 의해 암살당하기까지 가는데마다 그 지역의 가장 높은 학승과 사상가들을 만나 그의 숙소는 그들의 신발로 마당이 채워졌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스승 용수보살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우녀가 지금 분명치 않은 소리를 올짝달싹하지 못하는 치지로 듣고 있다가 작은 것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한 것은 거기에 용수에 대한 제바의 비유가 들어있음인가, 아닌가.

마침내 우녀는 그 소리를 한번 더 크게 들을 수 있었다.

쇠아!

그것은 난바다로부터 섬 기슭에 이르는 바다에 이르기까지 차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주 사나운 너울이 몰려오는 소리였던 것이다. 이번에는 바로 그 너울의 한 덩어리가 산비탈만하게 몰려와서 무욕도 한 폭을 덮쳐버릴 때의 그 엄청난 소리에 우녀는 몽땅 파묻혀버리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아니, 그는 그가 누워있는 요사의 선방 집채와 함께 그 너울에 휩쓸려 저만큼 섬 의 윗쪽으로 밀려올려지며 짠물을 억지로 삼켜야 하였다.

억! 억!

우녀 자신은 섬의 선착장 쪽으로 넘어가는 윗쪽으로 밀려간 것도 알 수 없었다. 극도로 긴장된 상태의 의식이 여느 공포와는 다른 것이지만 그것은 어떤 화두도 사절한 묵조선의 그 둔탁한 정신과도 이어지는 것이었다.

이 모든 갑작스러운 혼돈은 하늘의 어느 곳엔들 벌루스러기 하나도 보일 까닭이 없는 어둠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 어둠 자체까지도 혼돈이었다.

우녀가 어느 정도 그가 밀려온 곳에 대하여 짐작하게 되었을 때는 그의 어깨쪽과 다리 쪽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끼면서였다. 어깨 쪽에 왼손을 대보니 미끈거렸다. 그것은 피가 낭자한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너울 속에서 집채가 무너지는 것과 함께 중상을 당한 뒤 이제서야 그 중상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너울은 단 한번으로 멈추지 않고 뒤이어 함악한 파도덩어리로 몰려와서 섬의 많은 부분을 함뿌고 있었다.

실로 무시무시한 포효의 너울이었다. 우녀는 그의 몸에서 활발해지는 아픔이 차라리 고마워졌다. 그 아픔 때문에 그는 섬 전체의 사정을 좀더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아픔과 함께 바다의 너울만이 아니라 거센 바닷바람에 굵은 빗방울들을 뿌리는 어둠 때문에 아픔에만 머무를 수도 없었다.

"작은 것으로…."

아마도 이같은 비상사태 속의 우녀에게는 그 입안에서 증얼거려지는 작은 것에의 지향이 그의 오랜 묵조선과는 달리 간화선의 화두였는지 모른다. 작은 것은 그러나 더 작은 것으로 되면서 끝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절차의 이쪽인가.

더 작은 것으로 되는 구경(究竟)이 바로 공(空)이 아닌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윤회든 니르바나든 근원적으로는 하나, 곧 공(空)이다. 다만 그 길이 둘이고 그 목적지가 둘일 뿐이다. 두 개의 길이란 무지-어리석음-와 반야-지혜-이고 두 개의 목적지란 윤회와 니르바나이다. 모든 것들의 근원에 있는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며,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며 마음과 언어를 초월해 있다. 거기에는 윤회라는 말도 니르바나라는 말도 성립되지 않는다.

우녀는 그 구경으로서의 하나만이 아니라 지금의 캄캄한 어둠 자체가 어떤 것을 분별하지 않는 하나로 되고 있었다. 아마도 이런 공에의 입문이야말로 그의 오랜 수행의 만성(慢性)으로 익숙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픔이 마치 죽은 몸이 꿈틀거리며 살아나는 듯한 생기를 찾아주었다. 아픔이야말로 그의 생명의 구급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 아팠을 것이야. 큰 짐승도 나무와 풀 그리고 돌멩이들도 아팠을 것이야. 이제까지 아프지 않은 것들도. 끝내 아픔은 피할 수 없는 것이야. 다만 그 아픔이 아직 그 자신의 것이 아닌 오늘일 뿐이야…."

"하지만 아픔이란 헛된 손님이야. 그 아픔이 끝나면 언제 머물러 있었는지 모르게 자취가 없는 것이야… 마치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하는 내몸 자체가 헛된 손님인 듯이…."

"아픔 다음에는 내 몸… 내 몸 다음에는 내 카르마… 내 카르마 다음에는 무아(無我)… 그 무아조차 텅비어 없음(空)의 높이일 것이야…."

"어찌 살아있는 목숨 뿐이리… 시간조차도 아프지 말라는 법이 없겠지… 어제는 이미 어제가 아니고 지금도 이미 어제가 되고 마는 것이야. 하물며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이야 어떻게 이제의 나일 수 있으리… 과거의 마음 얻을 수 없음이고 현재의 그것 미래의 그것이 그럴 수 밖에 없음이겠지… 아 이런 시간과 함께 공간도 아픔으로 가득한 것이야… 그러기에 공간도 헛것이 아닐수 없겠지."

이런 넋두리는 우녀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 폭풍우의 너울이 덮치는 섬에서의 넋두리가 누구의 것이겠는가.

실로 그는 더이상 니승(尼僧)도 아무것도 아니었다. 뜻밖의 바다가 크게 치솟아 너울과 해일을 이룬 나머지 그 바다의 혼돈 가운데서 한갓 잎새일 뿐이었다.

옛 사람이 말하였다. 발가벗은 가슴팍이요 맨발로 서 있는(露胸跣足) 사람이었던가.

이제 그는 그 벗어날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차라리 싸움터의 어린 아이처럼 울음이나 터뜨리는 것이 알맞았다. 아니 그런 아이를 잃은 어머니처럼 미칠 수 밖에 없는 그 절망의 한동안이 가장 자연스러웠다.

우녀는 이렇게 아무 것도 아니게 되어 지난 날 그가 예성강 어귀 벽란도 언저리에서 거칠기 짝이 없는 뱃사공들 가랑이 밑으로 기어다니며 한 덩어리 밥을 얻어먹던 계집아이 시절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런 계집아이에게 인당과의 인연도 무욕도 수행의 인연도 다 허깨비가 아니던가.

타고난 상태에 좀더 가까이 간 상태가 이제 우녀의 숙연한 수행 끝에 찾아온 것인가. 먼동이 텄다.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깔매기 따위를 허용하는 것도 아니었다.

아직도 너울의 힘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제 그 너울이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날은 꽉 샌 것이다.

그동안 모든 것을 어둠에 전가(轉嫁)할 수 있는 밤이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어둠만으로 세상을 책임지울 수 없게 되었다. 먼동이 트자마자 바로 새벽기운은 아침을 재촉하고 있었다.

하늘 가득히 차곡차곡 채워진 구름장의 층층으로 솟아오르는 해가 뚫고 나타날 리는 없다 하더라도 세상은 바야흐로 어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한 점은 장수가 황급히 내달리던 말에서 뛰어내려 채찍을 손에 쥔 채 "여기서부터 내 땅이다"라고 군림하는 것처럼.

성난 바다에 에워싸인 섬은 그 섬위의 유일한 사람 우녀가 그런 것처럼 가장 무능하였다. 이 잠들줄 모르는 폭풍우를 어떻게 변화시킬 아무런 수단도 없었으므로.

우녀의 아픔만이 좀처럼 약해지지 않은 채 몸시 욱신거렸다.

그런 우녀에게 어디서 너럭바위 위에서 일어날 힘이 남아 있었던가. 그는 가까스로 일어났다. 그가 앉아서 아픔을 참아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너울자락이 거기까지 덮쳐서 그 몸을 흠뻑 적셨다. 옷매무새가 몸에 늘어붙어 마치 알몸뚱이 같았다. 짠물 때문에 다친 부위가 구멍이 패는 것처럼 쓰리랐다.

그림 · 조향숙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미의 피부미학을 추구합니다.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自然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 · 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오보크린은 알부민푸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물)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료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 · 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한방재료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이백효과가 있습니다
- 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해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 · 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목적수준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낸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 · 티 · 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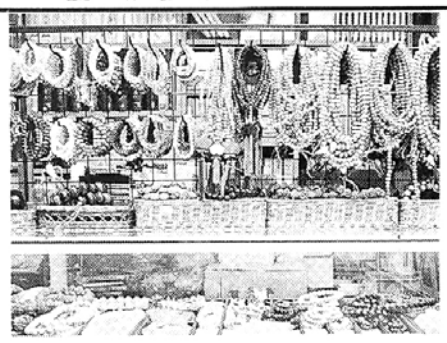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첨단의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의 동 · 서양학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evo C·L·E·A·N

■ 사찰특성 살린 문화상품 개발하자

"그 절과의 인연 시작"



◇전국 어느 사찰에 가도 관광기념상품들은 천편일률적이다.

염주, 목탁, 열쇠고리, 손수건, 악세사리….

전국 어느 사찰에 가도 천편일률적으로 볼 수 있는 관광상품들이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사찰은 그 빼어난 문화재와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가 어울려 깊은 인상을 준다. 돌아갈 때 그 감동을 고스란히 넣어갈 기념품 하나를 고르자고 하면 선뜻 손이 내밀어지는 것이 별로 없다. 특히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를 느끼러 사찰에 온 외국인들은 처음에 들른 곳에서 기념품을 골랐다면 다른 곳의 관광상품들은 대부분이 같은 물건이라 그냥 지나치기 일쑤다.

최근 서울시가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리는 '97 서울문화관광상품전에서 전시 관매할 △전통공예품 토속민속품 △장신구 인테리어 상품 등 첨단문화상품을 공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통공예품 공모와 맞물려 사찰도 고유의 문화상품 개발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해인사 탁상용 경판 '관람객 호응'

조선·다도등도 불교알리기 활용

관광사찰은 모두가 오랜 전통과 역사·문화적 특색을 지닌 고찰. 따라서 이곳에서 팔리는 기념품은 단순한 상품 차원을 넘어 그 사찰의 특징을 나타내 주고 나아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문화메신저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품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해인사는 '해인사 과거 현재 미래展'을 열면서 해인사의 상징 팔만대장경을 소재로 한 문화상품을 새롭게 개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반야심경판 모형을 이용해 세련되게 만든 목걸이, 염주, 벽걸이, 탁상용 경판 등은 해인사를 찾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의외의 반응에 고무된 해인사측은 보다 다양한 상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해인사뿐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그 사찰의 상징물을 이용해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내소사, 정수사 등 꽃살문이 유명한 곳은 꽃살문을 이용한 차반, 시계, 악세사리 등을, 불국사는 석굴암과 다보탑 석가탑을 소재로, 문수동자로 유명한 상원사, 부모은중경판이 있어 효사찰로 불리워지는 용주사는 효관련 문화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차로 유명한 쌍계사, 선암사와 동백으로 유명한 선운사의 경우 다양한 차상품과 동백꽃을 이미지화한다면 사찰을 널리 알릴수 있는 간판상품이 될 수 있다.

한편 봉원사는 10월부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통불교의식인 영산재를 축소해 시연하고 발우공양을 직접 경험케 하는 관광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한다.

영산재 뿐 아니라 좌선, 다도, 단기출가 등도 개발하기에 따라 한국불교를 세계인들에게 인상깊게 알릴수 있는 일등 관광문화상품이라는 것이 관광공사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100〉

이 맑은 가난 바꾸랴

久喫山家味 (구끽산가미)	오래도록 산 집의 맛을 씹으니
元非俗士身 (원비속사신)	원래 세속 선비의 몸 아니다
誰將千濁富 (수장천탁부)	누가 천만의 혼탁한 부자 가져다
換此一淸貧 (환차일청빈)	이 맑게 가난한 한 삶 바꾸랴
談話傾同座 (담화경동좌)	이야기는 같은 자리에 마음 기울고
肝腸絕點塵 (간장절점진)	오장 육부에 한 점의 먼지도 여의다
仙袂高出世 (선자고출세)	신선의 자태로 속세를 높이 벗어났으니
覺岸佛應親 (각안불응친)	깨달음의 언덕에 부처님과 가까우리

위의 시는 오암(鰲巖 1710~1792)대사의 시이다. 대사의 법명은 의민(毅旻)이고 오암은 호이다. 속성은 김해김씨이다. 원래 사대부의 가문으로 세속적 학문에도 깊은 조예를 가졌다. 특히 시에 있어서는 하나의 생활로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시에 이런 것이 있다. "시 끊기면 곧 내가 없고/ 내 생애에 어찌 시 끊기랴/ 유유히 시와 나는/ 세세 생생 서로 따르기 원해(詩絶方無我 我生豈絶詩 悠悠詩與我 世世願相隨)"라 하였다. 제목이 '來緣'이다. 유래가 있는 인연이라는 것이다. 그야말로 숙명적 인연인 것이다.

시의 제목은 '늙은 농부'이다. 욕심 없는 농부의 예찬이요, 어쩌면 자신의 모습을 빗대어 이른 말인 것 같기도 하다. 첫 연에서 산에서의 음식을 즐겨 원래 속사가 아니라 함이 자신의 처지를 이르려 한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행장에 보면 척박한 논밭의 수입을 가난한 어버이의 봉양거리로 보냈다 하니, 대사 자신이 농사를 직접 지은 농부의 신세였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첫 연에서 속세의 선비는 아니라 하면서, 다음으로 이어진 말이 이 청빈함을 바꿀 수 없다 하니 자신의 모습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혼탁한 부자의 표현을 천번은 더 흐리다 하여 '천탁부(千濁富)'라 하였으니 그 표현 자체가 재미 있고, 스님이 세속의 부자를 보는 시각을 대변한 느낌이다. 그 댓구가 하나의 맑은 가난(一淸貧)이니, 참으로 묘한 댓구이다. 이것이 바로 시어의 묘미이다.

창자의 먼지를 담화로 씻어낸다. 이것이 농부의 물욕 없는 대화이다. 옛부터 선비 다음으로 농부의 지위를 높여 놓은 이유를 여기서도 알겠다. 그러니 출세한 신선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모습이다. 이미 깨달음의 언덕에 있는 것이니, 부처님이 응당 가까이 할 수밖에, 스님이 바로 이 농부인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녹차를 마시자"

치매예방…폐암·당뇨병등 억제

녹차가 치매의 예방치료 및 전자파 유해성 완화, 폐암발생 억제 등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학계 및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식품과학회 주최로 3일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제4회 국제 녹차 심포지엄에서 학계에 정식보고됐다.

일본 도쿄대 분자세포생물학연구소 신야 가즈오(新家一男)박사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카테킨의 효과'라는 논문에서 "녹차의 주성분인 카테킨이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기능이 있다"고 밝혔다. 신야교수에 따르면 녹차로부터 분리된 카테킨은 치매의 원인이 되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성분의 독성을 억제, 알츠하이머 치매에 유효한 치료약이 된다는 것. 그는 앞으로 녹차소비량이 많은 지역에서의 역학조사를 통해 카테킨의 치매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 효성카톨릭대학 식품영양학과 이순재교수는 '녹차의 전자파 방어효과'에서 "녹차를 마시는 것이 전자파 노출로 인해 손상된 항산화계의 유전자 발현을 유도하고 효소를 활성화시켜 간조직의 손상을 완화시키고 회복속도를 촉진한다"고 지적했다. 미국건강재단의 펑퉁칭 박사도 '녹차와 녹차폴리테놀의 담배에 의해 유발되는 폐암발생 억제효과'에서 "하루에 녹차 1잔을 마심으로써 녹차의 주성분인 발암물질 NNK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EGCG를 섭취할 수 있다"며 녹차가 폐암발생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주장했다.

중국 안휘농대 차학과 왕두핑교수는 '당뇨병 치료에 유용한 녹차 약리활성성분의 분석과 복합추출에 관한 연구'에서 녹차 성분을 분석한 결과 녹차에 포함된 다당류가 혈당을 낮추고 면역기능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이밖에도 녹차가 피부노화 방지를 비롯 대장암, 지방간 및 알코올성 간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기석 기자

조계종 "창작찬불가 공모합니다"

접수 11월10~20일

조계종 문화부(부장 원학)는 찬불가의 질적 향상과 저변확대를 위해 제1회 창작찬불가를 공모한다.

전통불교음악인 범패를 계승하고 현대음악과의 조화를 통한 불교음악진흥을 위해 연례행사로 실시되는 창작찬불가공모의 부문은 △합창곡(7분이내) △중창곡(5분이내) △독창곡(5분이내)등 3분야.

응모자격은 기성 및 신인으로 만 1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1월 10일~11월 20일. 심사발표는 12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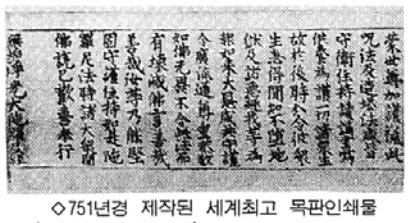
문의 (02)739-1830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목판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의 세계기록유산 지정이 추진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권태준)는 9월 29일부터 10월1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제3차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음〉이 등재될 경우, 곧바로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직지심체요절〉이

다라니경·직지심경 세계유산 등재 추진

세계기록유산에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직지심체요절〉은 이미 1972년 '세계도서의 해' 기념전시회에 출품돼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우리가 소장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목록 등재 신청을 하지 못한 것. 위원회측은 "한국 인쇄문화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직지심체요절〉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꼭 필요하다"며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와 협의, 등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51년경 제작된 세계최고 목판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한국, 독일, 중국 등이 참가하는 '동서인쇄문화 국제심포지엄'을 28일부터 10월2일까지 개최, 다라니경의 신라인쇄를 확인하고 우리 기록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귀중한 기록유산을 보존하는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또 우리의 기록유산 목록을 정리, CD-ROM으로 제작, 보급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세계기록유산은 인류의 정신문화나 세계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기록물로 등록된 기록유산을 CD-ROM으로 제작, 영구보존과 함께 일반에게 보급해 기록유산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석〉

불교소재 태국연극

'말라이몽콜' 공연

24·25일 과천 시민회관소극장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을 풍성하게 장식할 세계연극인의 큰잔치 '세계연극제 97'이 서울과 과천에서 각각 열린다. 세계연극제는 △공식초청 연극 △공식초청 무용·음악극 △세계마당극 큰잔치 △서울연극제 △베세토연극제 △창무국제예술제 등 6개로 나뉘어 총 120편의 작품이 공연된다.

이중 불자들의 눈길을 끄는 연극은 태국 마캄퐁 극단이 24일(19:00)·25일(15:00, 19:00) 양일간 과천 시민회관소극장에서 공연하는 '말라이 몽콜'. '말라이 몽콜'은 프라 말라이(Pra Malai 화장을 앞두고 매일저녁 열리는 장례식 절차에서 부르는 노래)를 소재로 해 젊은 나이에 죽은 연인사이인 말라와 말리의 과거 행적을 통해 인과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 말라와 말리



◇태국 마캄퐁극단의 '말라이몽콜' 중 한 장면.

두사람은 영혼이 되어 프라 말라이라는 스님을 만난다. 스님과 함께 극락과 지옥 그리고 그들이 생활했던 여러 곳을 방문하며 과거 방탕했던 자신들을 참회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세계연극제에 공식초청된 국내의 대표적인 현대무용 6편이 오는 14, 16, 17일 공연된다. 이중 불자 김복희교수(한양대)가 이끄는 김복희무용단은 16일 서울 대학로 문예회관대극장에서 소월의 시 '진달래꽃' '초혼' 등을 통해 인간의 만남과 사랑 이별 그리움과 죽음 등을 극적으로 형상화한 '진달래꽃'을 무대에 올린다. (02)766-0766

문화소식

피아노-唱-대금의 만남

피아노와 소리(唱)와 대금이 만나는 이색무대가 21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임동창-장사익-이생강 공감콘서트'가 바로 그것. 지난해 '안숙선-김덕수의 공감콘서트'에 이은 두 번째 무대다.

각자의 무대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이들은 우리 전통음악을 기본축으로 각기 다른 삼색(三色)의 음악을 선보인다. '피아노와 사물' '소리와 사물' '피아노와 대금' '피아노와 소리' '즉흥JAM' 등 장르를 허물면서 국악과 양악이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이번 공연은 초가을 공연무대를 찾은 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대 다도교과목 신설

경기대학교는 2학기부터 3학점짜리 교양과목 '다도문화'를 신설했다. 신청학생은 180명. 강사는 정영선씨(한국차문화연구소).

마음 맑히는 책들 ①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33분/큰스님/법어/모음집

현대불교신문 엮음
신국판 342쪽
값 7000원

이 시대에 빛이 될
현존 한국 불교 선지식 33인의 육성 법어집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는 아직 빛을 잃지 않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신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마음 맑히는 책들 ②

삶은 苦가 아니다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혜원 엮음
신국판 288쪽
값 6000원

대행/스님/법어집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
중생 사랑이 빚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수행을 위한 경전 공부 ①

수행자를 위한
금강경 대강좌

경전 읽기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이제열 지음
신국판 360쪽 / 값 8000원

팔만 사천 경전을 가로지르는 통쾌한 해설!
불교 교리 전반의 이해를 돕는 풍부한 비유!
경전에 입각한 수행 방편의 제시!

사람되기 어렵고 정법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으로 났으며, 정법을 만났다. 이제 남은 일은 성취하는 일뿐이다. 그러므로 나아가야 한다. 가다가 산이 막히면 넘고, 강을 만나면 건너야 한다. 순경과 역경을 건너고 미망과 집착을 깨뜨려야 한다. 무엇으로 건너고 무엇으로 깨뜨릴까? 반야의 배(般若船)로 건너고 금강의 칼(金剛劍)로 깨뜨려야 한다. 반야의 배요, 금강의 칼, 그것이 바로 금강경 사구게이다.

— 본문 중에서 —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 737-0695 (영업부), 737-0691(편집부) 팩스 : (02) 737-0696

"우화속 굼벵이는 우리자신"



고준환 교수, '굼벵이의 꿈…' 출간

매미의 생태통해 '수행과정' 조명

"매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탈바꿈하여 되어야 할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두 날개로 날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며, 이슬이나 나무즙을 먹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즐기며 남을 기쁘게 해주는 자유로운 것이지. 그것은 땅속에서의 굼벵이 상태를 포기하고 지상으로 나와 절실히 날고 노래하기를 원할 때 가능하단다."

"목숨을 버리라는 말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너의 겉모습은 없어져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에 최선을 다하며 불교의 사회화를 위한 활동에도 진력하는 고준환교수(경기대 법학)가 쓴 우화 〈굼벵이의 꿈 매미의 노래〉(밀알 刊) 가운데 한 부분이다.

하잘 것 없어 보이는 굼벵이가 갖은 고난을 겪고 탈바꿈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매미가 되고, 이어 본래 자리인 대생명으로 돌아가는 자연속의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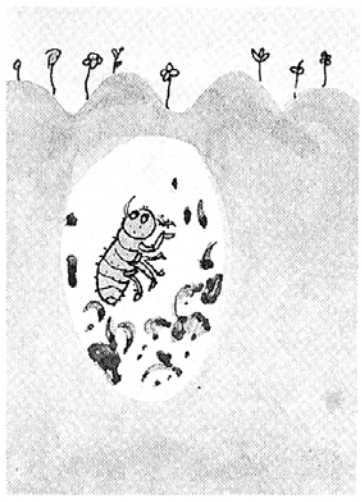
고준환교수는 "우화속의 굼벵이는 바로 나 자신이자 우리들 모두입니다. 매미의 한 살이는 우리 인간의 생과 마찬가지로 허무합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하고 선정에 들며 거기서 비롯되는 지혜의 힘으로 '아하!'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 참된 나로 돌아가 영원히 광명세계에서 자유자재롭게 살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고교수는 자연 생태계의 세심한 관찰을 통해 인간의 삶을 깊은 사유로서 표현해 내고 있다. 자연속에는 생로병사와 깨달음의 길이 함께 공존하고 모든 생명체는 하나를 향해 나아간다. '끝자리의 비밀을 밝히고야 말겠다'며 끝자리를 찾아떠난 금벵이. 밝고 밝히는 험난한 여정끝에 드디어 끝자리에 다다르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채 욕망과 욕심의 끝자리를 유일한 목표로 여기는 현대인의 모습을 고교수는 굼벵이를 통해 그대로 투영해 낸다.

끝자리에서 다시 내려와 온갖 위험과 함정을 견뎌가며 매미의 꿈을 키우는 굼벵이의 삶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역정이다.

"우리는 모두 매미가 될 수 있어. 나는 보았지. 허물벗는 매미를,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지는 것을. 기다려,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땅굴을 뚫고 지상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무줄기에서 매미로 탈바꿈 해야돼"바로 매미와 같은 삶이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할 베푸는 삶이자, 깨달음의 자리라고 이 책은 은연중 강조한다.



◇전주대 하수경교수가 그린 삽화 중 하나.

특히 이책은 전주대 미술학과 하수경교수가 직접 그린 생생한 삽화가 보는 책의 묘미를 더해 준다.

이은자 기자



조사선 수행법 '대중속으로'

'비전달마선법' 등 출간

끊임없이 깨어 있음을 통해 매순간을 충실하고 진지하게 살 것을 강조하며, 그 방편으로 심신 수행법을 소개한 〈비전 정통달마선법〉과 후속편 〈어떻게 닦아가리까?〉가 태일출판사에서 잇따라 출간됐다.

이 책은 범조 광운스님(중흥불교개혁회의 의장)이 근래의 선지식과 과거 도승들의 행적을 비교 분석, 연구한 결과물이다.

〈비전 정통달마선법〉은 조사선에 대한 설명과 수행방법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초좌선법부터 선체조에 이르기까지 기초동작을 사진과 함께 실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게 했다.

후속편 〈어떻게 닦아가리까?〉는 전권에 소개된 수행법을 토대로 약간의 소설형식을 가미해 일반불자들의 이해를 도모했다. 주인공이 한여름 낮의 꿈속에서 스승을 만나 조사선법(祖師禪法)의 구결(口訣)을 전수받고 체계적으로 닦으면서 대도를 성취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장석주 명상소설 '세도나 가는 길' 펴내



내면의 참자아를 찾아가는 명상서적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명상을 통한 영혼의 해탈을 지향하고 있는 명상소설 〈세도나 가는 길〉(단 刊)이 나와 화제다.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장석주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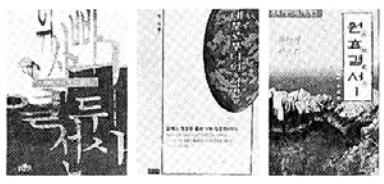
집 나간 아내를 찾아 미국 로스엔젤레스로 왔다가 세도나에서 열리는 명상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시나리오 작가 최영호는 초탈이라는 형식으로 명상을 통한 깨달음을 맛보게 된다. 미국 서부 사막지대인 애리조나주의 중심에 위치한 세도나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진 예술가들이 예술적 영감을 얻기위해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곳이다. 세도나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된 윤미라는 여인과 운명적인 사랑을 나누게 된 최영호는 자신을 에워싼 집착을 벗어던지고 영적 지도자의 길을 가게 된다. 소설속에서 '사람도 잊고 소도 잊고 기억의 밑바닥에 남아있는 것까지 다 잊어야 한다'며 심우도를 빌어 초자연적인 명상을 불교의 해탈로 승화시키고 있다.

정신과 영혼에 관한 주제들을 소설의 형식을 빌어 접근하고 있는 이 책은 동양적이고 자연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강조한다.

새로나온 책

▲구름뒤편에 파란하늘이=부산 보현선원의 정여스님이 불교방송국 '생활속의 부처님 말씀'에서 방송한 내용을 엮은 책.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생각이 맑고 깨끗한 하얀마음에서 일으킨 마음의 때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일깨워주고픈 마음에서 엮었다는 이 책은 생활속에서 참나를 찾아가는, 그리고 마음을 청정하고 맑게하는 평범하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창조 6천원〉

▲위빠사나 열두선사=잭콘필드가 그의 수행과정에서 겪어온 풍부한 일화와 대담 남방불교의 교리와 수행을 편집해 펴낸 책이다. 서울 위빠사나선원과 불교방송등에서 위빠사나를 지도하고 있는 김열권씨가 번역했다. 이 책에 수록된 수행법은 열두 선사에 의해서 구체화 된 것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몸소 실천해 보였던 전통적인 명상의 수행이 그 바탕에 온전히 내재돼 있다. 〈불광 9천원〉



▲내부로부터의 혁명=인체의 시스템을 규명하고, 그 시스템의 활용으로 적절한 뇌파와 뇌내물질을 유지하여 건강을 확보하고 정신집중력을 얻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책. 불교, 요가, 선도, 도교 등을 넘나들며 인간의 건강 유지 문제를 체계화 하고 다양한 과학적 근거들을 제공한다.

▲원효결서1.2=6.3사태 주역의 한사람인 김중태씨가 펴낸 이 책은 우리민족과 인류의 운명, 우주의 섭리에 관련한 엄청난 비밀을 낱낱이 파헤쳤다고 주장한다. 단군조선, 삼국, 고려, 조선, 근세, 현대사는 물론이고 미래의 일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

108고개 넘어…

계환 지음



문답형식 쉽고 실감나는 신행안내서

계환스님(동국대 교수)이 집필한 〈108고개넘어 부처되기〉는 불자들이 생활속에 느꼈던 불교에 대한 궁금증 108가지를 흥미로운 이야기와 비유, 현대적인 감각으로 실감나게 설명한다.

이 책에는 어린이불자들의 재미있는 질문과 칠순이 넘은 불자들의 넉넉한 체험에서 우러나온 질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제1부 불교란 무엇인가에서는 불교의 중요교리 해설을, 제2부 지옥과 극락에서는 해탈, 열반, 무아, 윤회 등을 설명하며 불교의 세계관에 대해 살펴본다. 제3부 성불하세요에서는 불교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주고, 제4부 더불어 사는 삶에서는 종교갈등, 이웃종교, 자녀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신행생활의 길잡이 역할까지 하고 있다. 〈시공사 6천5백원〉

화제의 책

조선청년에게 고함

김상현 지음



'참자아 찾기' 등 만해스님 어록 발췌

'흐르는 물을 맑게하기 위하여 원천을 다스리고, 가지와 잎을 무성케 하기위해 뿌리와 줄기를 북돋우니, 진여불성(眞如佛性), 즉 무한아, 절대아를 실현하기위해서는 마음닦는 일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동국대 김상현교수가 어렵게 생활했던 청년 시절에 희망과 용기를 얻었던 한용운 전집에서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 만해 한용운 어록 〈조선청년에게 고함〉을 펴냈다.

'청년들이여, 만해를 배우라'는 위당(爲堂)의 권고가 만해스님의 말씀을 새롭게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김교수는 밝혔다.

짤막짤막한 글들속에서 오직 정당한 길만을 걸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인간본연의 대도를 느낄 수 있다.

〈시와시학사 5천원〉



책방 '여시아문' 독서의 달 특별코너

책방 여시아문이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독서주간 여시아문 추천불서 특별코너'〈사진〉를 마련했다.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불자들의 마음에 불교적 감흥과 정서적 충만감을 채워줄 〈유마경〉〈아함경〉〈신반야심경 강의〉등 경전류와 성철스님의 법어집 〈영원한 자유의 길〉, 위빠사나 명상법을 안내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비롯 스님들의 수상집과 불교입문서, 문화기행서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30일까지 전시 판매한다. (02)737-0698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피안으로 이끄는 사자후	탄 허	교 림
3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4	원효	고 영 섭	한 길 사
5	인연(작은책 3)	서 정 주	민 족 사
6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틱 낫 한	한 민
7	한글아함경	고 익 진	동국대출판부
8	하늘수호로떠난 여행	류 시 화	열 림 원
9	나의문화유산답사기 3	유 홍 준	창작과 비평사
10	백팔고개넘어 부처되기	계 환	시 공 사

구입문의:(02)737-0695

출판가소식

'수호국계주…' 국역발간

동국역경원이 〈수호국계주다라니경〉을 펴냈다.

이 경은 10권 11품으로 이뤄져 있으며 당나라 정원19년(802년)에 인도승 반야와 모니실리가 자자사에서 공동번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려시대의 많은 스님들이 호국불교의 경전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문체부 우수학술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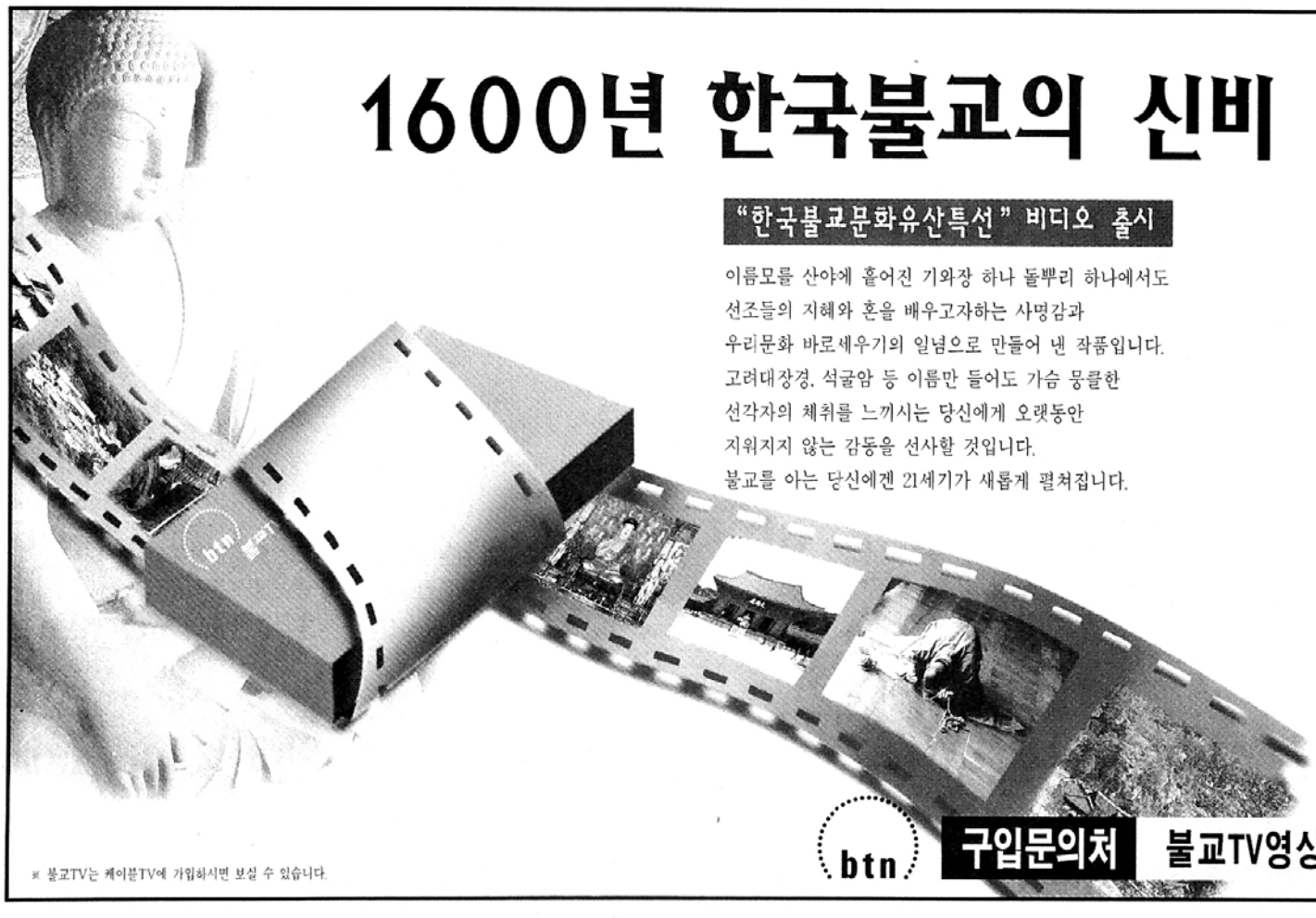
문체부가 발표한 97년 우수학술도서 종교분야에 민족사의 〈한국근대불교사연구〉(김광식 지음), 민음사의 〈환경과 종교〉(길희성 外 지음), 문학과 지성사의 〈16세기 무신양문제〉(김응종 역)등 3권이 선정됐다. 이번 우수학술도서선정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출판된 도서 628종 가운데 사회과학, 예술등 총 9개분야 63종 70권을 엄선 발표했다.

문화체육부는 선정된 도서에 대해 해당출판사에 제작비 일부지원과 함께 관계기관에 배포하고, 유관기관에 대한 홍보를 통해 학술도서에 대한 관계기간 및 독자들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1600년 한국불교의 신비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비디오 출시

이름모를 산야에 흩어진 기와장 하나 돌뿌리 하나에서도
선조들의 지혜와 혼을 배우고자하는 사명감과
우리문화 바로세우기의 일념으로 만들어 낸 작품입니다.
고려대장경, 석굴암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 뭉클한
선각자의 체취를 느끼시는 당신에게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불교를 아는 당신에겐 21세기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불교문화유산특선

삼보사찰
- 불보종찰 통도사
- 법보종찰 해인사
- 승보종찰 송광사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 고려대장경 Ⅰ, Ⅱ
- 불국사·석굴암 Ⅰ, Ⅱ

불교전통의식, 의례
- 예불
- 발우공양

불교전통문양
- 한국사찰의 꽃문



▲ 예불
깨달음과 중생구제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불교의식 경염미의 백미인 예불의 전 과정 최초 공개



▲ 고려대장경 Ⅰ, Ⅱ
세계적인 문화유산 고려대장경의 역사적 진실과 신앙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낸 본격 다큐멘터리 제1부 '대결집', 제2부 '7백년 보존의 신비'



◀ 석굴암
불교사상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석굴암 조성의 불교적 원형을 추적해 낸 역사추리극 형식의 본격 다큐멘터리

10개 1 SET ※카드결제 가능

대하다큐멘터리

티베트 불교



4년의 제작기간, 신비의 스펙타클
- 전 30부작 15개 (출시판매중)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tn

구입문의처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3272-0781~5, 706-3502~5

학자들 경전윤독 '열기'

현직 교수·강사들이 참여해 〈구사론〉 〈석보상절〉 〈화엄경〉 등 주요 경전과 선적을 강독-연구하는 윤독회의 활동이 활발하다.

△구사론윤독회 △석보상절윤독회 △동양사상연구회 △해심밀경윤독회 △중론독회 △금강경윤독회 등 전국 18개 윤독회는 강독 뿐만 아니라 경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단행본·논문 등의 자료로도 적극 활용하는 등 소학회의 성격까지 지니고 있어 경전 연구 뿐만 아니라 경전의 현대화·대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국 18개 윤독회
경전 현대적 해석
토의내용 전산화
단행본·논문등 발표

은정희교수(서울교대 철학과) 등 8명의 철학박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구사론 윤독회는 매주 〈아비달마구사론〉 강독-연구를 통해 부파불교 논사들의 주요 쟁점과 아비달마 철학의 사상적 배경을 살피고 있다. 은교수가 지난 91년 윤독회의 성과물로 내놓은 〈대승기신론소-별기〉는 지금까지도 대중적인 원효스님 연구서로 각광받고 있어 윤독회 성과물의 학술적 가치를 잘 보여준다.

정진원박사(홍대 국문학) 등 현직 교수·강사·법사 등이 참여하는 석보상절윤독회는 윤독회의 토론 내용을 '유니텔' '약수법보' '성균관대 불교동호회' 등에 게재하고 있으며, 〈석보상절〉의 고어(古語)를 모아 〈석보상절 고어사전〉(가칭)의 발간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정박사는 "15·6세기의 국어자료는 대부분 불교관련 자료"라며 "언해본 경전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15세기 언해문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고려시대의 각종 문집,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을 토대로 〈한국불교관계자료집〉(가칭)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불교자료윤독회(김윤곤교수, 영남대), 화엄(華嚴)·선(禪) 사상으로 인간의 병적 심리의 치유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화엄사상연구모임(정방지교수, 대구효성카톨릭대) 등이 주목할 만한 윤독회. 〈사집〉 〈팔십화엄경(八十華嚴經)〉 등을 공부하는 화엄사상연구모임은 스티븐 오딘(S.Odin)의 저서인 〈과정형이상학과 화엄불교〉도 공동 역주(譯註)하고 있다. 선불교의 가르침에서 21세기의 학문 방법과 인식론을 모색하고 있기 위해 〈선문촬요(禪門撮要)〉를 강독하고 있는 동양사회사상연구회(이영찬교수, 계명대)도 윤독회 토의 내용의 전산화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불전국역원에서 〈석보상절〉을 윤독하고 있는 '석보상절윤독회.'

'경전윤독회'를 운영하고 있는 류승무교수(중앙승가대 사회학과)는 "경전의 윤독은 경전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이며 현실에 부합한 언어로 번역하고 재해석함으로써 경전의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는 가치있는 작업"이라며 "윤독회의 성과가 출판되면 불학(佛學)의 객관화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경전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기자

나와 경전 〈21〉

대품반야경



혜 담
각회사 주지

불법문중에 출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나 역시 출가 후에 가장 먼저 접하고 외운 경전이 반야심경이다. 그러나 조석예불 때마다 독송하던 그 〈반야심경〉의 내용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 가운데서 공(空)이라는 말은 끊없이 나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강원에서 경전을 공부하고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을 공부하면서도 공은 언제나 머리 한 구석에 박혀 있었다. 마침내 공은 나로 하여금 대학을 졸업하던 그 이튿날 선원으로 내몰았다. 참선을 하면 공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원에서의 공부가 부족해서인지 그때로부터 십여년의 세월이 흘러서도 출가한 당시와 별 차이없이 공은 아득히 멀리만 있었다. 그렇다고 그것을 문자식으로나마 속시원히 해줄 우리말 해설서가 국내에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도 못했다. 그래서 공을 중심으로 한 반야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결심한 것이 일본 유학길이었고, 거기서 만난 경전이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이다. 벌써 십수년전의 일이었고, 그 후 귀국하여 지금까지 〈대품반야경〉을 번역하고 본 경전을 중심으로한 반야불교신행론을 집필하는 등 그대로 대품반야경은 나의 수행과 포교에 있어 유일무이한 경전이 되고 있다.

사실 우리들은 한 마디로 〈반야경〉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반야경〉이란 단일경전이 아니고 동일계통에 속하는 다수경전의 총칭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적은 것이 아니라 현존 대승경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방대한 양이 〈반야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때문에 학자들은 이러한 다수의 반야경전류를 편의상 〈대부반야경전(大部般若經典)〉과 〈잡부반야경전(雜部般若經典)〉으로 나누고, 대부반야경전류를 다시 대반야경계(大般若經系)와 대품계(大品系) 혹은 방광계(放光系) 그리고 소품계(小品系) 혹은 도행계(道行系)의 셋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 널리 수지·독송되고 있는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은 〈잡부반야경전〉으로 분류되는 반면, 지금 논하고 있는 〈대품반야경〉은 대품계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취급되고 있다.

대승불교는 소승교단이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해서 소승교단이 안고 있는 여러 모순을 지적하면서 '부처님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새로운 불교운동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불교운동을 이끈 사상이 바로 〈반야경〉이다. 즉 대승불교의 사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근본사상을 이어받아 사상적으로 부단히 발전해 왔는데, 이러한 불교의 새로운 사상이 태동될 때마다 새로운 경전의 성립은 불가피했고, 이때 새롭게 성립된 경전은 그때마다 〈반야경〉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다시 한 번 〈반야경〉의 모든 계통을 살펴보면, 먼저 〈원시반야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전이 성립되어 유포되고, 이것이 중국에 전래되면 그때마다 거기에 상당한 경전으로 번역된다. 이어서 기존의 〈원시반야경〉을 모태로하여 다른 새로운 사상을 첨가한 〈반야경〉이 다시 성립·유포되면 또다시 이것이 전래되어 다른 이름으로 중국에서 번역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경전의 제작과 유포 및 번역이 반복되는 사이에 어느덧 경전의 종류는 늘어났지만, 그때까지 형성된 모든 반야사상을 가장 완벽하게 담은 〈반야경〉의 출현 또한 당연한 결과였다. 이렇게 사상적인 발전이 일단 멈춘 상태에서 그때까지의 반야경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을 총망라하여 정리된 경전이 〈이만오천송반야경〉이고, 이것을 번역한 것이 바로 〈대품반야경〉이다.

그러나 대품반야경이 대승불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이 설하고 있는 공사상(空思想)이 대승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학(敎學)이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중요한 대승불교의 사상을 전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원시반야경〉에서부터 설해진 반야바라밀·불모사상(不母思想)·공(空)·무백성(無白性)·보살마하살·육바라밀·대승·화타행(和他行)·재가적(在家的)성격·경전의 독송 및 타인을 위해서 설하는 공덕·반야바라밀 염송의 공덕·경전공양의 공덕·삼미(三昧)·회향(廻向) 등에 관해서 그 내용을 완성하고 있다.

공사상등 대승불교 2만5천송 정리
'부처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자' 핵심

간화선 疑情 3요소
'선지식·참구·화두'

월호스님 '…의정돈발법' 발표

참선에 쏠는 대중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월호스님(쌍계사 중강)이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참선법인 간화선(看話禪)에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필수 요소와 증득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 '화두참구에 있어서 의정돈발법(疑情頓發法)'을 발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월호스님은 "간화선은 의정(疑情)이 일어나야 깨달음을 증득할 수 있다"며 "수행자가 신(信)이 서는 스승을 만나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화두를 끊임없이 의심-부정할 때 의정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해 의정을 일으킬 수 있는 실제적인 요소로 선지식, 참구, 화두를 들었다.

'의정돈발법'이란 의정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요인. 고봉스님(1238~1295)의 〈선요(禪要)〉에서 스승의 면모를 찾은 월호스님은 "참다운 선지식이란 의정을 촉발시켜 주는 화두로써 지도하며 수시로 점검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간화선은 깨달음을 기다리는 대오선(待悟禪)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고 말한 월호스님은 "깨침을 중시한다고 해서 깨달음 지상주의나 알음알이 분별심에 빠져서도 안된다"며 "처음부터 '어째서 무(無)라고 했을까!'하는 식으로 의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참구 요령을 지적했다. 스님은 "화두를 들 때 '머리'보다는 배꼽 밑에 두고 관(觀)하라"고 권장했다. 배로 참구한다는 것은 호흡에 따라서 배가 나오고 들어감을 관찰하면서 화두를 참구하는 것.

월호스님은 "수행상의 실제적 방법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문자로 공유되어야 후배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욱〉

학술단신

18일 사명당학술회의

사명당기념사업회(회장 박권희)는 18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명당 연구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사명당의 생애·사상·문학·의병활동 등을 조명할 이번 학술회의에는 정병조교수(동국대 부총장)가 '사명당의 사상과 그 불교적 위치' 이창희교수(성균관대 사학과)가 '임진왜란 중 승병군 활동에 대하여-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의병활동을 중심으로' 김영작교수(국민대 정치외교학과)가 '사명당의 일본내 활동에 대하여' 김종철교수(아주대 국문학과)가 '사명당의 문학세계' 등을 발표하고 이우성씨(민족문화추진회장) 강동균교수(동아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인간성회복…' 세미나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묘주)는 26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의식변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갖는다.

이 세미나에는 윤세원교수(인천전문대 정치학과)가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도덕성 윤리성 제문제' 박형혜교수(숙명여대 불문학과)가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의식변화' 등을 발표하고 윤영자교수(한국방송대 경제학과) 김종찬씨(불교신문 前 편집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영문·범어본 제공…범어 낱말풀이도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금강경 사이트

경전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금강반야바라밀경〉(이하 '금강경')의 영문·범어(梵語)본을 읽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금강경 사이트'(Diamond Sutra)는 〈금강경〉의 영문·범어본 뿐만 아니라 이 경전이 5조 홍인대사 이래로 불교의 주요 경전으로 떠오른 배경, 의미 등도 분석-제공한다.

이 사이트는 6조 혜능(慧能)이 어느날 〈금강경〉을 읽다가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는 대목에서 홀연히 깨달았다는 선일화(禪逸話)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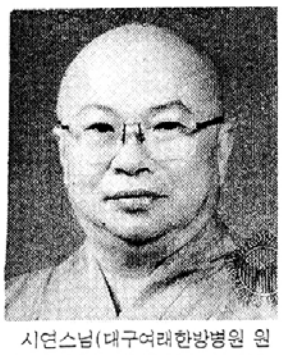
이외에도 범영(梵英) 불경어휘 전자사전도 제공한다. 알파벳으로 구분된 이 전자사전에는 범어를 한문으로 음역하고 영어로 뜻을 설명한 1천여개의 범어 낱말이 있다. 〈금강경〉 본문 중에서 범어 낱말은 전자사전과 링크(연결)되어 있어 〈금강경〉을 읽으면서 범어의 정확한 의미도 알 수 있다.

http://nhuru.net/tlksrc/9606/sources/diamond.htm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염증,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특별가격 : 정가 50만원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 : 김 창 수)

如來健康院 合掌
電話 : (053)655-2227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으로 뽑아내 산업화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연구진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됐다.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장장 김윤선)은 4일 「참기름과 부산물인 깻묵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큰 천연물질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추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노화방지제와 암예방 의약품, 피부노화억제용 화장품 등을 제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지 개발된 천연물질가운데 가장 뛰어난 항산화제로 평가돼온 「알파 토코페롤」보다도 산화억제능력이 15-20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 작물시험장 류수로 박사는 이 세사미놀성분으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있는 음료와 알약 등의 시제품을 이미 만들었으며, 내년중에는 특허공매를 통한 산업화가 이뤄져 오는 98년말쯤 관련제품의 시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감식초음료 급성장세

시장규모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감식초 시장은 마이쩐이 출시된지 1년여가 지난 현재 시장규모가 약천6억원대로 성장했으며 마이쩐을 고종 점포이 넘는

광고문의
현대불교 생활정보 광고 효과도 좋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광고주께서 기대하시는 광고효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상품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신생아작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硏究所

전문시술원 張三洙
목·허리 디스크 **중풍 좌골 신경통** 오십견·비만
퇴행성·류마티스관절염
압구정역 (주)543-7306 (야)711-4370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혼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계발 및 집수성 호흡ST 소그룹 지도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강 태극권·생활역학강좌 좌
문의 02)242-6188
(장안동 촬영소 사거리)
금륜정사
※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안내

사찰안내
▷위치 :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송정리
▷법당 : 목조30평, 요사2동(25평,조립식 51평)
▷대지 : 사용평수3,000평
▷특징 : 대전, 논산 중간지점 산세수려하고 약수물나옴. 사찰창건 30년이상됐음.
▷가격 : 1억5천(가격조절가능)
전화 : 0461)34-1742 · 011-425-1362

● 위 치 : 경기도 여주군 ●
- 평 수 : 법당 10평, 요사채 30평(기름보일러)
- 가 격 : 양도가 3,000만원(절충 가능)
- 시설비 별도상담
- 교통편리(여주읍에서 10분거리,서울에서 1시간거리)
※ 개인사정으로 급매함
연락처 0337)84-4420

사찰최적지
● 위 치 : 경남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상부전마을위(백운산 계곡)
● 실사용평수 : 3,000평 ● 등기필평수 : 465평
● 가 격 : 4,800만원
● 옥산유원지위 물 1급수, 폭포
▶연락처 053)767-5635

● 위 치 : 대전시 동구 ●
- 평 수 : 부지 491평 (법당 30평, 요사채 80평)
- 가 격 : 3억
※일단 답사후 주지스님과 상담 바랍니다.
연락처 042)273-6668
011)409-5810

사 찰
◇ 소재 : 미량시 청도면 소대리 천황산
◇ 평수 : 18,500평
◇ 가격 : 1억 2천만원
◆ 절터로도 최적지임
※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0594)867-4358

토굴안내
◇ 위 치 : 충남 서천군 판교면 홍림리
연락처 0463)32-5927

포교당 안내

포교당적지
-단독주택-
● 위 치 : 은평구청뒤 숲속
● 대 지 : 98평 (공원용지 20평 별도)
● 건 평 : 지상 1·2층 48평 지하 23평
● 희망가격 : 3억 8천만원 (싯가의 70%)
▶ 문의처
011)243-9238(H.P)
02)387-8159
02)778-5548(주)
0343)64-7828

기타정보

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AIDS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완치 책임보장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외견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 · 8118
H.P. :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불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암자토굴터
▷위 치 : 경남 의령
▷평 수 : 1,500평
▷가 격 : 1억
좌청룡 우백호가 완벽하게 짜였고, 앞의 저수지 옆에 계곡을 낀 최적의 암자터
전화 :
0595)82-4715
015)528-4477

佛 여래미술원 心 大圓佛教美術院
* 탱화 * 개금
정 우 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92-1 (봉선사 입구)
사무실 0346)571-5537
0346)575-5133
H. P. 011-324-5133

金魚 李鍾春
* 불화 조성 전문
13, 15, 16회 불미전 입상
0346)571-6581(화실)
011-737-6581



바른불교 T.597-2460
국내최초! 독창적 과목과 송대원 문재현 역저

◆위 치 : 서울시 고양시 경계지점
◆부 지 : 26평 개인등기 릴
◆법당 및 요사 : 26평 방 2칸
◆시 설 : 시설일체 무상기증
◆가 액 : 8,700만원
◆특 징 : 서울시계 지점에 위치한 기도 및 포교도량으로 서울시내에서 사찰 임대가액으로 본인 사찰을 마련할 수가 있고 개인 능력에 따라 무한정 불사할 수 있음. 불교 중흥을 위하여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저렴한 가액으로 드립니다.
※ 단, 보살님이나 무속인 기타 일반인의 전화상담은 절대 사양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전국지역 사찰 건축, 단청 전문기업
동국불사 불사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015)214-6334(24시간 호출중)
서울본사 :02)3705-4447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법천(태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사(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옹작 복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작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단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단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단집경덕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시탈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본교 1. 합장

不老化精 안내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신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0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밥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如來健康院 合掌
☎ 053)655-2227

부전스님 모십니다
읍소재지 맑은 공기속에서 부전사실 비구니를 모십니다.
연락처 011)537-0761

부전스님 모십니다
산세 수려한 조그마한 암자에서 신심있는 도반겸 공양주 분을 구합니다(40세 이후)
위치 : 충남 홍성군 대흥산 성불암
연락처 0451)34~4286

부 전 스 님
기도정진하실 부전스님 모심
연락처 0523)81-4477
0523)82-7084

◆ 포교당 ◆
■위치 : 서울 금천구 시흥5동
■평수 : 3층 23평
■가격 : 전세 6,000만원
연락처 02)802-9369

◆ 포교당 ◆
◇ 위 치 : 서울근교
◇ 평 수 : 100평
-법당 60평, 요사채 40평
◇ 가 격 : 전세 1억
◆ 시설비 : 무료
연락처 015)144-8387

함께 나누는 사랑 · · · **감 로 심 장 회** · · · 삶을 나누는 사회

감로심장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한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형편이 어려운환자를 도와드립니다 ●
심장병 안면기형 안과(백내장 녹내장)

● 환 자 접 수 서 류 ●
- 종합병원 진단서(병명기재)
-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의료보험카드 사본
- 주민등록 등본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환자 증명사진 2매
- 추천서



■ 법인설립 3주년 기념보고회 ■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감로심장회의 사업에 동참하실 분은 아래의 접수처로 연락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감로심장회 사무국
주소 : 경남 진주시 계동 55번지 진주불교회관 (660-240)
전화 : (0591)747-0106 팩스 : (0591)747-0107
● 후 원 회 비 송 금 안 내 =〉 온라인 계좌번호 안내 ●
▶ 국민은행 : 652-01-0484-878 ▶ 상업은행 : 756-05-001291 ▶ 농 협 : 803-01-351451
▶ 서울은행 : 85901-2695902 ▶ 경남은행 : 567-07-0001999 ▶ 우체국 : 610774-0243181
▶ 중소기업은행 : 174-030178-01-015 ▶ 지 로 : 7616413 ▶ 예금주 : 감로심장회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9월에 만나는 불서**

"이웃에의 베품은 곧 자신에게의 베품입니다"
회갑, 결혼, 조상 천도, 기일, 장례 등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날에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으로 문의 주십시오.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불교입문·불교학 일반
불교의 이해 동봉/ 고려원/ 8,500원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부/ 3,500원
불전에서 가려뽑은 명구 이혜성/ 민족사/ 5,000원
불교를 찾아서 석지현/ 일지사/ 8,500원
부처님의 생애 박경훈/ 불광/ 6,000원
술몽쇄언 김대현/ 을유문화사/ 5,000원
한글 세대를 위한 불교 E. 콘즈/ 세계사/ 8,000원
정병조의 불교 강좌 정병조/ 민족사/ 6,800원
근본 불교의 가르침 김정빈/ 불광/ 7,000원
근본 불교 이해 마스다니 후미오/ 불교시대사/ 5,500원
바웃드하 불교 나까무라 하지메/ 김영사/ 4,500원
정토 불교의 세계 장휘옥/ 불교시대사/ 7,500원
한국 불교사 산책 김상현/ 우리출판사/ 7,000원

선
참선의 길 장순용/ 고려원/ 7,500원
초보자를 위한 선 김대현/ 민족사/ 6,000원
100문 100답 선불교 강좌편 상·하 일지/ 대원정사/ 각 8,000원
마음을 다스리는 법 김정빈/ 동지/ 7,000원
명상 길라잡이 박식/ 도솔/ 8,500원
깨달음의 길 거해/ 담마간다/ 6,000원
깨달음으로 이끄는 명상 마하시 사야도우/ 경서원/ 3,500원
살아 있는 선 류원장/ 성하/ 9,000원
선문촬요 서산대사/ 불서보급사/ 4,500원
선의 정신의학 김종해/ 불광/ 6,500원
선의 황금시대 오경웅/ 경서원/ 9,000원
선 이야기 일지/ 운주사/ 8,000원
중도선 법산/ 운주사/ 7,500원
하이데거와 선 한스 페터 헴펠/ 민음사/ 10,000원
밥그릇이나 씻어라 이은윤/ 자작나무/ 8,500원
화두 이야기 고목/ 삼양/ 7,000원

법어집
달을 듣는 강물 수월/ 해냄/ 6,500원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순용/ 세계사/ 6,000원
경허선사 이홍우/ 민족사/ 6,800원
마음 닦는 길 지눌/ 불일출판사/ 4,000원
부처님이 계신다면 탄허/ 교림/ 6,500원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장경각/ 2,500원
영원한 자유 성철/ 장경각/ 6,000원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사(편)/ 여시아문/ 7,000원
평화로움 틱낫한/ 장경각/ 5,000원

수행지침서
그냥 살래 바꾸고 살래 범륜/ 모색/ 7,200원
그 마음을 바쳐라 김제응/ 효림/ 7,500원
네 발밑부터 살피라 정념/ 장승/ 6,000원
나는 누구인가 라마나 마하리쉬/ 청하/ 5,500원
두번째 출가 현진/ 새날/ 6,500원
재미있는 큰스님 이야기 임원홍/ 여래/ 6,000원
불교의 이해와 실천 1, 2 이중표/ 대원정사/ 각 8,500 9,500원

경전 해설서
금강경대강좌 이제열/ 여시아문/ 8,000원
밀린다팡하 동봉/ 홍법원/ 4,500원
법화경 연구 서성우/ 운주사/ 10,000원
보현행원품 강의 무비/ 민족사/ 6,500원
불교대전 한용운/ 현암사/ 19,500원
신 반야심경 강의 혜담/ 불교시대사/ 5,500원
유마경 장순용/ 시공사/ 12,000원
육조단경 광덕/ 불광/ 12,000원
한 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진현종/ 들녘/ 15,000원
한글 아함경 고익진/ 동국대 출판부/ 12,000원
화엄경 강의 무비/ 불광/ 9,000원
해설 반야심경 청담/ 보성문화사/ 9,000원
금강반야바라밀경 해안/ 불서보급사/ 4,500원
법구경 김달진/ 현암사/ 8,000원

전기·불교문화·불교예술
역사로 읽는 원효 김상현/ 고려원/ 6,800원
원효대사 이광수/ 우신사/ 5,000원
원효 고영섭/ 한길사/ 8,000원
인연 서정주/ 민족사/ 3,500원
한국 선시 김달진/ 열화당/ 15,000원
죽는 법을 모르는데 사는 법을 어찌 알랴 조오현/ 장승/ 5,500원
한국의 불교 미술 홍윤식/ 대원정사/ 8,500원
조선미의 탐구자들 한영대/ 학고재/ 12,000원
한국 불교미술의 형식 문명대/ 한·언/ 14,000원

교양
과학과 불교의 신비 아끼야마 사또꼬/ 고려원/ 4,000원
과학과 불교의 실재 인식 앨런 월리스/ 범양사 출판부/ 4,000원
과학 철학이란 무엇인가 박이문/ 민음사/ 7,000원
삼국사기 1, 2, 3 이재호/ 솔/ 각 12,000 13,000 12,000원
삼국유사 1, 2 일연/ 솔/ 각 8,500 9,000원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 가지 주제 정승석/ 대원정사/ 7,800원
책 안의 불교 책 밖의 불교 김호성/ 시공사/ 6,500원

생활 속의 불교
그까짓 살좀 있으면 어때 학림/ 여시아문/ 5,000원
예불문 진제성/ 한국 빠알리 성전 협회/ 3,500원
천수 다라니 공덕과 의미 전재성/ 이바지/ 4,500원
이판사판 야단법석 안길모/ 한강수/ 8,000원

찾아오시는 길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732-1521
팩스 : (02)737-0696

불교식 추석차례 술대신 茶…조상천도

"조상들의 기일(忌日)에 맞춰 지내는 제사(祭祀)와는 달리 설과 추석과 같은 명절에 지내는 제식(祭式)은 제사라 하지 않고 '차례(茶禮)'라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추석을 앞두고 2일 서울 정릉 천중사(주지 운산)에서는 그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도돼 눈길을 끌었다. 불교차례의식 시연회가 그것.

서울 천중사 전통의식 시연

시연회에 앞서 '차례는 불교의식이다'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법현스님(천중사 부주지)은 "〈삼국유사〉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에 따르면 충담스님이 미륵부처님께 삼짓날(음 3.3)과 중굿날(음 9.9) 차를 끓여 올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록상 차례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국가경제가 피폐해지고 도공들이 일본으로 잡혀가면서 영조임금이 민폐를 걱정해 귀한 차 대신 술, 숭늉을 사용하게 했다. 그 뒤부터 그 근본 뿌리는 차를 사용했던 불교의식이었기에 그 이름만이 '차례'로 남아 오늘에까지 전해진 것이다"고 밝혔다.

"차를 올리는 불교식 가례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적은 각종 문헌을 살펴보면 조선초까지 행해지고 있다." 처녀가 시집을 오면 손수 차를 끓여 사당에 올리는 고묘(告廟)가 그 예. 고묘에 사용했던 차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마시면서 며느리의 됨됨이를 알아보는데 쓰였는데 그것을 회음(會飮)이라 했다. 회음은 오늘날 제사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음복(飮福)과 단자(單子)의식으로 변해 성행되고 있다.

이같은 자료를 근거로 천중사 신도들에 의해 불교차례의식이 시연됐다.

우선 제수음식은 고인이 즐기던 음식으로 장만하고, 술과 고기 대신 차를 올린다.

부처님께 茶 올린데서 '차례' 유래
상단-꽃 중단-떡 과일 하단-차 공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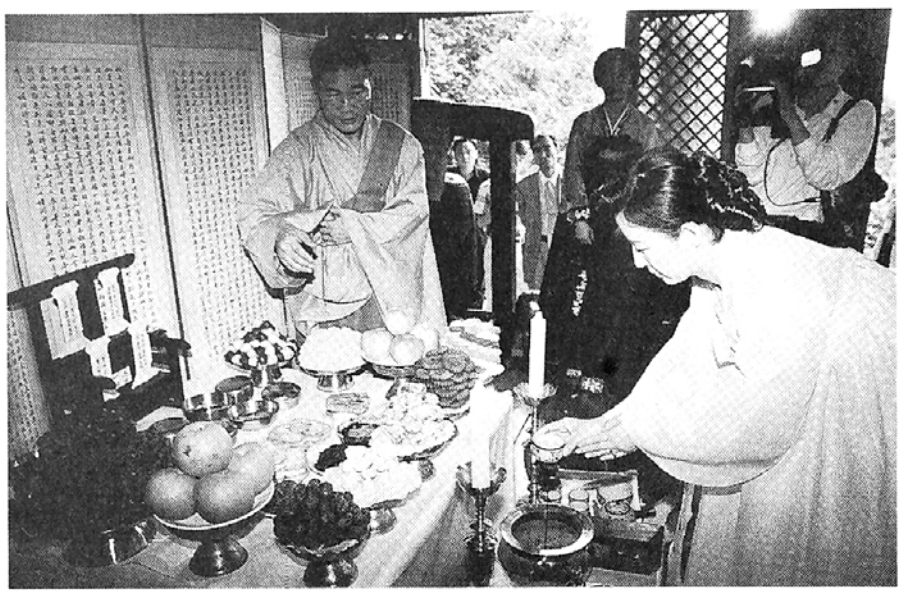
불교식 차례상 차리기 원형과 관련, 불화 특히 감로탱화(甘露幀畵)에서는 대체적으로 △상단에는 꽃(모란 작약 연꽃) △중단에는 과일과 떡 과자류 △하단에는 밥과 차향로 등을 나란히 진열하고 있다.

위패는 보통 '현고학생부군신위' 등으로 작성하나 불교식 차례에서는 '선엄부문수영가'나 '선자모김씨영가' 등으로 하며, 스님인 경우 'OO 당대종사 OO화상각령' 등으로 쓴다.

상이 차려지고 위패가 모셔진 후에는 ①큰절 3번과 함께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모신다. ②다게(茶偈)를 왼다. ③찻잔을 올리고 큰 절2번과 함께 조상들의 혼을 청한다. ④공양게를 왼다. ⑤보공양진언 ⑥보회향진언 ⑦발원하고, 큰 절 2배 후 헌식하고 그릇의 뚜껑을 닫고 위패를 사르는 순서로 차례를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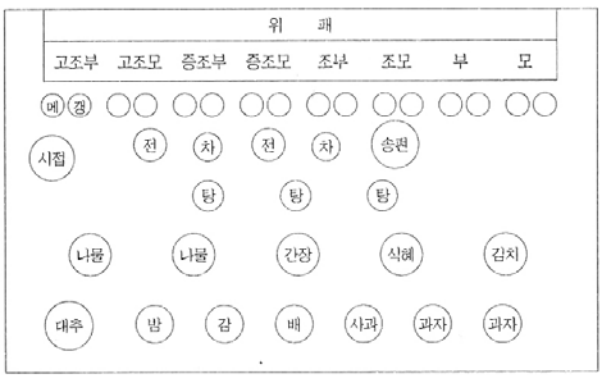
89년부터 불교식차례지내기 보급화에 힘써 온 법현스님은 "불교식 차례는 단순히 조상에 대한 공경의 의미에 그치지 않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의 기원까지 담고 있다"고 말하고, 불자들이 사라진 불교문화 회복에 앞장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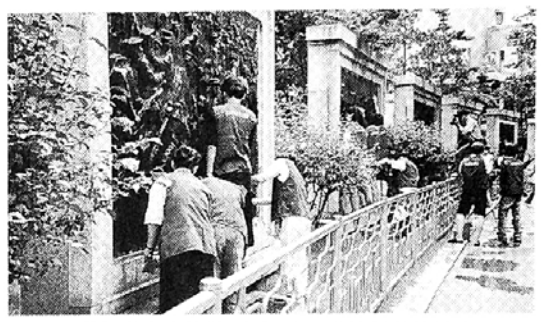
도필선 기자



◇법현스님과 천중사 신도가 불교식 차례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으로 술·고기 대신 차를 올리고 있다.

◇불교차례상 차림표





◇가족자원봉사자들은 탑골공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마음의 티끌까지 치웠어요"
청교련 '탑골·종묘공원 청소' 가족봉사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지난달 31일 탑골공원 및 종묘공원에서 가족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중·고등학생과 부모, 현성정사 신도 등 80여명이 참여해 독립선언문과 33인 기념벽화, 공원내 쓰레기통과 벤치를 청소했다.

딸 박민혜(벽산중 3)양과 함께 구슬땀을 흘린 정정희(43)씨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가 부모들에게는 봉사의 의미를 되새겨 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불교어린이 글짓기 공모

한국불교 청소년 문화진흥회(회장 박용열)는 30일까지 전국 불교 어린이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다.

그동안 어린이들이 여름불교학교와 어린이법회등에서 경험한 이야기나 불교교리를 배우며 실천했던 신행담을 글로 표현해 응모하면 된다. 운문·산문부 접수. (02)425-0748

하루전 날씨 예보…폭우땐 '알람'

새상품

일기예보 탁상시계

'가정에서도 손쉽게 일기를 예측할 수 있다.'

유유계기(대표 박병선)는 일기예보, 온도계, 시계, 달력기능 등이 장치된 자동 일기예보 탁상시계를 새상품으로 내놓았다.

이 제품은 전자식 기압센서를 내장해 12시간 이후에서 24시간 내의 일기를 맑음 흐림 등의 그림으로 표시해 준다. 또 폭우가 예상될 때는 알람이 울려 나들이나 야외법회시 미리 대처할 수 있다.



가격 5만8천원. (02)202-6067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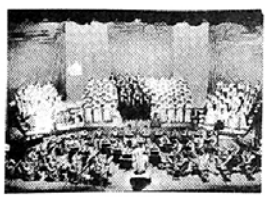


우리 국악으로 지장경을 독송합니다!!

창작국악 교성곡

불밭에 피는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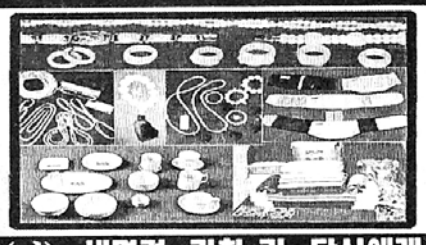
불밭에 피는 꽃은 '지장경을' 우리 말로 옮긴 창작국악교성곡이다. 악업의 불꽃이 타오르는 지옥에서 중생구제를 위해 애쓰시는 지장보살 그 모습은 한떨기 청아한 연꽃이다. 처절한 참회와 지극한 기도, 그리고 환희의 카타르시스가 있는 이 곡은 국악과 양악의 적절한 만남 그리고 범패의 현대적 재창조로 찬불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글/반영규·곡·지휘/김희경
합창/수원포교당 가릉빈가합창단
중앙대 성악과 남성합창단
연주/중앙국악관현악단·피아노/함경아
특별출연/김성녀·김영임·성기훈
연정숙·한미경·덕신스님

지구레코드 CD발매(2장)/정가 17,000원/사찰에서 다량 주문시 할인 가능
전국의 유명 음악사 및 조계사 앞에서 판매 중/문의 ☎ (0331)255-2692

춘천 옥산가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 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 과정이 휘발하다
연옥 사용전 1.5㎷/V 연옥사용후 3.0㎷/V로 체내전압 상승

옥복대, 베개, 반지 이렇게 하나씩 사용해 보세요! 모든 병이 호전됩니다.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핫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王山家 옥만을 꼭 찜어서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포도자기 王이불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王山家 777-0105 (우편판매가)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 (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금강경, 법구, 각종불서 병풍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船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入試家庭의 幸運을 위하여 승진·사업번창의 幸運을 위하여 만성지병 투병환자의 경험적 체유를 위하여 반야심경은 수지독송 사경정근하세요. 神秘한 운장법사의 반야심경은 최고의 名品, 生命의 의지처입니다.

전국 佛子가정에 1本씩 보시합니다.(단체주문은 사절)
※모사본에 속지 마세요.

● 반야심경 사경수습 특별회원모집 (초심자 환영) 사경전문강사가 지도함
• 선착순 한정본(품) •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작가약력
·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 중화민국 서법교육학회초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창작미술대상수상
· 대한민국 89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심사위원장
· 대만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물목(70萬点)조사논문 발표
· 고 미술서법학회 회장
· 한국 불교문화 예술원 원장

韓國佛敎文化 藝術院
雲藏 法師 禪筆 硏究會
☎ (02)242-0331·242-0255 (야) 216-0307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종단소식

조계종

신흥사 57명에 장학금 전달

속초 신흥사(주지 도후) 신흥장학회는 6일 원각사에서 97년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철스님(중앙승가대 4년)을 비롯 학인스님 5명, 대학생 17명, 중·고생 35명 등 57명에게 3천5백여만원이 전달됐다.

봉선·용주사 합동 주지연수

남양주 봉선사(주지 밀운)와 수원 용주사(주지 정락)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화성 신흥사에서 본말사 합동 주지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조계종지와 교육이념, 성보문화재 관리 및 보존실태와 방안, 불사를 위한 법률 및 사찰종무행정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 효과적인 설법론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태고종

경기 종무원장 월봉스님



경기남부종무원은 8월 29일 수원 흥국사에서 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새 종무원장에 최월봉스님(흥국사 주지·사진)을 선출했다.

월봉스님은 인사말에서 "경기남부교구의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종무위원 이하 분원 사찰 스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종무원장 선출은 그동안 종무원장을 맡아왔던 김법장스님(수원 대련사 주지)이 일신상의 문제로 사임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서울 중서부 종무원 결성

서울 종로구, 중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지역 사찰 대표자들은 8월 28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중서부종무원을 결성키로 결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스님들은 총무원과 인접해 있는 6개 지역을 통괄한 종무원 신설은 종단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빠른 시일내에 종무원사를 마련하고 종무원장을 선출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은평·서대문분원, 마포·중구·용산분원, 종로분원 등 중서부종무원을 3개분원으로 나누고 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천태종

삼광사 추석맞이 이웃돕기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6일 법화당 4층 법회실에서 추석맞이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삼광사는 관내거주 무연고노인, 소년소녀가장 2백여명을 초청해 다과회를 베풀었으며, 성금도 전달했다.

보문종

신도증 발급 신도관리

총무원(원장 혜일)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신도관리를 위해 신도등록 및 신도증 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무원은 지난달 말 '신도등록 및 신도증 발급업무 시행에 따른 협조문'을 전국 본·말사에 발송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신도등록 및 신도증 발급은 재적사찰을 갖는 소속감을 부여하는 한편 당해사찰의 신도관리와 사찰신도회 조직 및 종단위상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일승종

심불정사 부처님 점안식

대구 심불정사(주지 지홍)는 8월31일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번 점안식은 그동안 모시고 있던 불상의 훼손이 심해짐에 따라 새로 조성한데 따른 것이다.

총화종

만경사 천불전 상량식



충남 수신 만경사(주지 청해)는 2일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불전 상량식을 봉행했다(사진). 60평규모의 천불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으로 주심포 양식에 팔작지붕으로 오는 98년 2월 완공될 예정이다.

알림 본지 20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속세번뇌 사르오리다"

◇천태종 수계 의식 가운데 고향예배가 있고, 수계자 가족이 참석하는 등 엄숙하지만 정감어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천태종 4년만에 새스님 51명 수계

8월29일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설법보전에서는 4년만에 수계식이 열렸다. 집을 떠나 입산한지 3년에서 8년. 행자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정식으로 스님이 된다는 설레임과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다는 회한이 51명 수계자의 눈동자를 정지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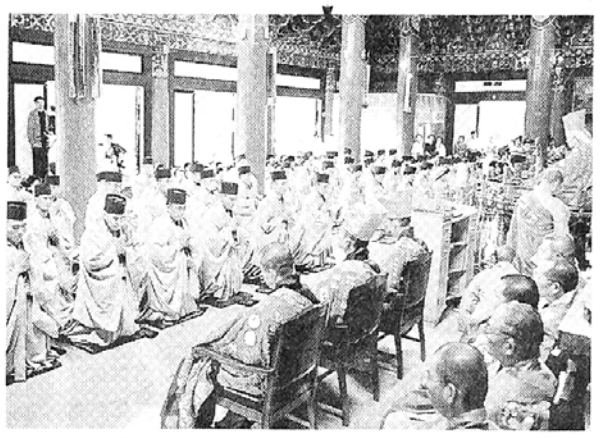
구족계를 받기 위한 행자교육과정은 3년. 낮에는 울력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불교교리전반과 사미율의, 천태학 등을 배우던 혹독했던 학습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친다.

대표행자의 종정스님에 대한 분향과 수계자 전체의 3사7증사에 대한 삼정례가 이어진다.

삼정례 후 수계자들은 부처님을 뒤로 하고 법당 밖을 향해 돌아서다. 고향예배. 언제까지나 마음의 고향일것만 같았던 부모님과 조상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기 위해서다. 선대조상에게 2배, 부모에게 1배. 세속의 인연을 끊고 부처님 제자가 됨을 알린다. 이를 지켜보던 수계자 가족들의 눈가엔 눈물이 고였다.

'부처님께 귀의하고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으로 삼보전에 삼배를 올린 후 연비의식이 치러졌다.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을 공양하겠다는 발원이 가슴에 새겨진다.

계를 주고 받는 수계. "불살생… 지키겠습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십선계 하나하나를 지키겠느냐고 묻는 종정스님의 말에 대한 대답이 울려퍼진다. 파르라니 깎은 머리의 사미 25명과 검은 머리를 뒤로 감아 올린 사미니 26명이 새로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한사람 한사람 종정스님으로부터 받은 장삼을 입고 가사를 걸친다. 수계증과 도첩도 받았다. 팔뚝에 새겨진 연비자국과 장삼, 가사가 어깨를 누른다. 10년간의 사미(니)과정을 거쳐 구족계를 받을때까지 지내온 날보다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고행임을 알기 때문이다. 〈구인사=한명우 기자〉



北으로 들어가는 옥수수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지선스님)가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에 지정기탁한 옥수수 2천톤 가운데 1차분 3백톤이 집행위원장 효림스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2일 중국 도문시를 출발, 남양으로 들어갔다. 불교추진위 유지원사무국장은 "중국 현지의 옥수수값 폭등으로 가격조절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나머지 물량인 옥수수 1천7백톤은 11일 기차편을 통해 남양으로 전달된다"고 밝혔다.

스리랑카에 한의대 건립
세계 고승초청 기원법회

한·스불교교류우의회, 24일

한스불교문화교류우의회(회장 종운·해원사 주지)는 24일 오후7시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프라자에서 '스리랑카 한국한의대 건립을 위한 세계불교고승초청 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

각 종단의 종정 원로 주지스님과 전문인 등 약80여명으로 스리랑카 한국한의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종운)를 구성한 同회는 오는 11월23일 스리랑카 현지 착공식에 앞서 기원법회를 연다.

이날 법회는 교계를 비롯 사회 각계 지도자와 중국 일본 등 16개국 스님및 스리랑카 장관 국회의원등 각국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한다. 한편 스리랑카 한국한의대 건립부지는 최근 4만여평을 더 추가 기증받아 총 5만여평의 부지에 설립될 예정이다.

횡성중금리 석탑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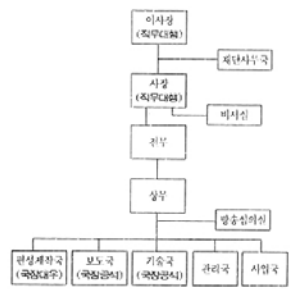
횡성 갑천면 중금리 3층석탑(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9호)이 횡성다목적댐 건설로 인해 구방리 망향의 동산으로 이전된다.

불교방송 경영·제작 공백 '심화'

범대위 영담스님 고발 특위 경영진 퇴진요구

공금횡령 성금유용등 불교방송 사건이 범불교대책위(위원장 지원스님)의 영담스님 고발, 조계종 방송특위(위원장 정대스님)의 총하·영담스님의 이사직사퇴와 경영진 퇴진결의 등으로 다시 혼미한 국면에 빠졌다. 〈4일 현재〉

뿐만 아니라 불교방송은 보도국장, 기술국장 공석에 이어 최근 편성제작국장이 18일자로 사표를 제출,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관리 공백이 생겨날 것으로 우려돼 설상가상의 실정이다. 또 사장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관리 허술과 책임있는 경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다.



◇불교방송 기구조직표

범대위는 3일 영담스님을 공금횡령 혐의로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같은날 열린 특위는 △영담스님의 2억유용과 관련 비슷한 유형의 유용이나 횡령에 대한 97년도 재단사무국 세부 감사실시 △불교방송 재단이사회 이사 전원에 대한 책임문책과 조계종 파견이사 용퇴권고 △前 이사장과 現 이사장 직무대행의 이사직 사퇴 촉구 및 불교방송 현 경영진의 즉각 용퇴 등 6개항을 결의했다.

성문사 청소년 수련원 민원 해결 공사 재개

천태종 원주 성문사(주지 장송재)가 추진중인 청소년 수련의 집 건설공사가 본격화된다.

96년 9월 원주시 행구동에 2천3백여평의 부지를 마련, 기공식을 가졌던 청소년 수련의 집은 행구2통 주민들이 식수 및 생활용수 고갈과 수련원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저수지 토사유입 등을 내세워 반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성문사측은 △급수관을 매설해 물을 공급하고 △농수로 보수 △저수지 토사유입시 준설작업 △2통 주민자녀에게 연 50만원의 장학금 지급 등의 조건으로 주민들과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사에 활기를 띨 수 있게 됐다.

동국대 '참사람 교육' 50명에 어학·컴퓨터 등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1일 정각원에서 '동국참사람 인증'을 위한 취업특화교육 신고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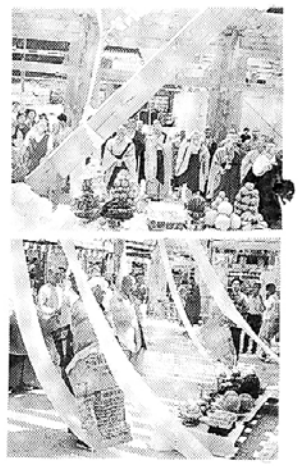
모의토익과 개별면접을 거쳐 1차 선발된 50명의 3학년 학생들은 이날 신고식을 시작으로 오는 98년 7월까지 인성교육을 비롯해 토익, 컴퓨터, 어학연수 등의 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에서 실시하는 어학시험 및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야만 인증서를 받게 된다.

서산대사 유물관 기공

11월완공…옥천사도 상량

전남 해남 대둔사(주지 천운)와 경남 고성의 옥천사(주지 지성)는 9월1일과 8월31일 각각 유물전시관 상량식을 봉행했다.

금년 11월 완공예정인 대둔사 서산대사 유물전시관(사진 위)은



각 50평 규모의 서산관과 초의관이 건립된다. 이날 행사에는 천운스님을 비롯해 범각(도갑사 주지), 일장(축성암 주지)스님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옥천사 유물전시관(사진 아래)은 지하1층 지상2층의 총180평 규모로 올 연말에 준공돼 임자명반자(보물 제495호)를 비롯 고서 탱화 등 유물 3백여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상량식에는 지성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마음 팔자 운명은 없다

주인공을 멀고 거기에 떨져놓고 살면 공한 나도 발전할것, 집안도 편안 할것, 내육신도 건강할것, 주변도 다 화목해질것 여러모로 좋다. 그러므로 멀고 떨기면 팔자운명 타령할 일도 없게 된다.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현대인의 건강長壽쑥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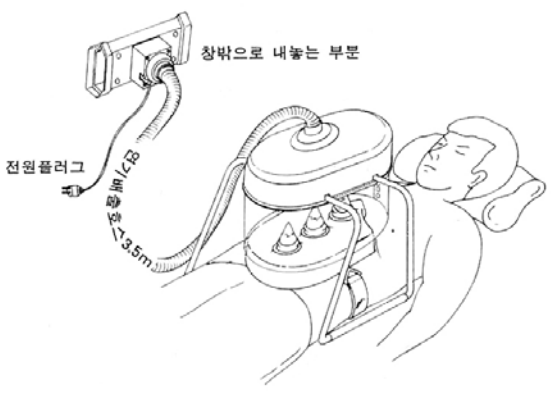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요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 . .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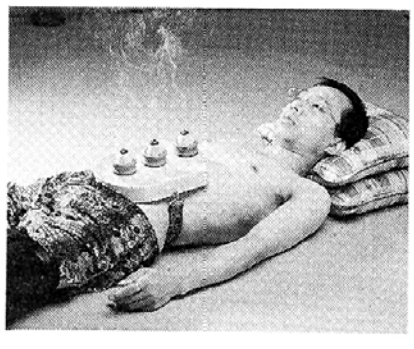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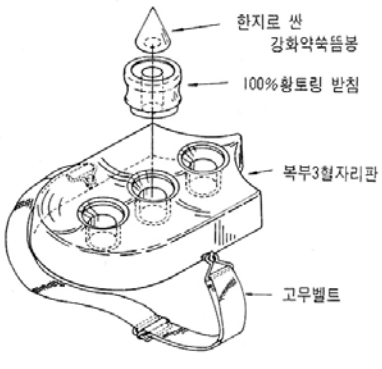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장수쑥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쑥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연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 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60,000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완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웬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보급가격 : ₩120,000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 성지관음회(부설: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지역문의
서울 : 종로·서대문구 (02)747-7033 송파구 (02)417-8922 노원구 (02)942-6430 경북 : 울산 남구 (0522)74-7536 울주구 (0522)85-1284 포항 (0562)75-1560 경남 : 마산 (0551)23-9016 부산 : 연제구(보문포교원) (051)864-3740 부산진구(051)867-2926 경기 : 광주 (0347)64-3172 용인 (0335)36-4294 충북 : 제천 (0443)46-3023 충남 : 예산 (0458)33-3208 보령 (0452)33-1336 전북 : 익산 (0653)856-8659 강원도 : 강릉 (0391)645-2117

강화에 '외국인선원' 건립

연등국제선원 28일 개원식…'현대사회 불교역할' 세미나도

외국인들이 한국선을 수행할 수있는 최초의 '외국인 선원'이 강화도에 건립됐다.

강화군 길상면 갈직리 85-1번지 2천3백여평 대지에 법당(16평) 선방(50평) 객실(60평.방8개) 요사(30평) 식당(40평) 등 5동의 건물과 1천여평 농장이 들어선 연등국제선원(원장 원명)이 그것.

서울 연등국제불교회관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추진해온 외국인 선원은 27일 오전10시 삼존불 점안식을 갖고 이어 28일 오전10시 개원식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불교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도 연다.

이날 세미나에는 일본 노리다께스님(국제선원) 싱가폴 만칭스님(관자정사) 스리랑카 마힌다스님(칼리니아사원) 러시아 일쾌 일해스님과 미얀마 스님 등이 참여해 각국 불교현실과 이를 통한 불교역할에 대해 토론도 벌인다.

연등국제선원은 선원장 원명스님과 스위스 체코 러시아인 상좌스님과 러시아 행자 2명등 8명이 상주하게 된다. 또한 운영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선방은 기간에 구애없이 자유롭게 방부들여 수행할 수 있으며, 1주 혹은 2주 단위의 자체 연수프로그램과 함께 외부단체 수용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농장 운력도 참여할 수 있어 선농일치의 수행활동도 할 수 있다. 그밖에 별도로 한국인을 위한 '오픈선방'도 운영할 계획이다.

20여년을 해외포교에만 전념해 온 원장 원명스님은 "동남아에 가보면 출·재가를 막론하고 하루고 한 달이고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불교가 생활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반면 선종을 표방하고 있는 한국불교는 출가자 위주이면서 특히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수행할 공간이 마땅치 않은 현실이라 외국인 선원건립을 발원했던 것입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연등국제회관은 외국인들에게 불교정보를 제공하는 중앙센터로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강의(참선교리 불교영어) 영어법회 등이 열린다.

〈위영란 기자〉



◇단독사찰로는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외국인선원의 법당과 선방모습.

노인수도원 '보살선원' 기공

연꽃마을, 대구에…12월 완공 50여명 수용

노년을 신행생활에 몰두하며 여생을 부처님곁에서 수행정진할 수 있는 노인전문 수도원이 교계 최초로 건립됐다.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은 3일 대구시 덕곡동 팔공산 자락에 노인들이 좌선 염불등 수행정진하며 수도생활로 회향하도록하는 수도원 '보살선원' 기공식을 가졌다.

보살선원은 대지 1천여평에 총건평 3백평규모의 건물 2동이 건립되며 50여명 수용예정으로 12월말 완공된다. 65세이상 불자들에 한하여 입주할 수 있는 보살선원은 법당 선방 염불당등 종교시설 중심으로 설립돼 참선 염불 교학등 수도생활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하고, 목욕탕 식당 객실 휴게실등 각종 노인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연차적으로 노인전문 병원등 노인보건의료시설을 비롯해 노인여가시설, 노인레포츠시설등 각종 노인복지 편의시설을 설립하여 노인복지의 요람으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납골시설에 부지 무상제공

보건복지부 개정안 신고제 전환…시·도 설치의무화도

앞으로 종교시설의 납골시설 설치가 신고제로 완화되고 각 시·도에 납골당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현행 권장사항으로 돼있는 묘지허용면적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을 마련, 10월 국회에 상정하여 장묘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매장및 묘지에 관한 법률' 시안에 따르면 현재 허용면적이 24평인 개인묘지는 6평으로, 집단묘지는 9평에서 3평이내로 축소하고 가족납골묘는 9평이내로 제한하며 묘지허용면적에 관한 규정을 지키도록 의무화해 위반자를 처벌키로 했다.

이와함께 화장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교시설이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시·군마다 공설납골당 설치를 의무화 △납골당 공설묘지 화장장등 신설할 경우 국공유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비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8월 29일 생활개선실천 범국민협의회와 함께 대구 문예예술회관에서 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석돈 경북대교수는 '장묘문화의 사회복지적 접근'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개인이 일정기간 묘지사용권만 갖는 시한부 장묘제도와 국가가 화장비용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뒤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신대할머니 그림전 日 19개지역 순회

정신대 할머니 그림 순회전시회가 일본 19개지역에서 9월부터 3개월간 열리고 있다.

나눔의집(원장 혜진스님)은 '정신대할머니의 그림전(부제 일본군 위안부가 그린 한과 희망)'을 15일까지 일본 류우슈우 유후지역 '공상의 숲'에서 개최하고 이어 11월까지 3개월간 도쿄 오사카 등 19개 지역에서 연다.

일본불교 대곡종파가 협찬하여 각 지역에서 할머니 그림전 실행위원회가 구성돼 주최하게 될 이번 순회전시회에는 김순덕 할머니의 '못다핀 꽃, 끌려감' 故 강덕경 할머니의 '정신대 원귀' 이용녀할머니의 '군위안소에서의 목욕' 등 그림 30여점과 사진 10여점이 전시된다.

평일공무원시험 발언 李대표 직접해명 요구

실천승가회등 6개단체

신한국당 이회장대표 특정종교편향 발언과 관련, 3일 신천불교전국승가회 등 교계 6개단체 대표 5명은 신한국당 당사를 방문하고 6일까지 이회창대표의 직접해명을 요구했다. 〈4일 현재〉

이날 단체대표자들은 답변을 위해 참석한 신한국당 고흥길 수석특별보좌관에게 '국가시험정책의 발언'에 관한 이대표의 직접적 해명과 사과 및 당의 공식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사찰입장권 소책자로 만들자"

조계종포교연구실 제안

문화재사찰 입장권을 사찰에 관련된 기본정보를 수록한 소책자형태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효종)은 3일 열린 관람료사찰주지회의에 자료로 제출한 '문화재사찰 포교방안'에서 기존의 입장권을 △개별사찰의 역사와 문화 △한국불교 전체를 소개하는 종합 가이드북으로 제작하자고 제안했다.

제작비용과 관련, 포교연구실은 "최초 기획단계에 들어가는 2~3천만원의 투자는 종단이 담당하지만, 지속적인 수요가 있으므로 표지에 기업광고를 유치, 제작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포교연구실은 영상시설 설치, 사찰관람코스 개발, 사찰내 숙박시설 운영 등을 제안하고 이 방안들을 시행할 경우 △포교효과와 불교문화의 우수성 선양 △사찰의 무질서와 수행방해 요소 제거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전 불교음해전단 배포 '물의'

사암련, 규탄법회등 강력대응키로

북한산 일대 방화사건에 이어 대전지역에 이교도들에 의한 불교음해 전단이 다량 배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전단은 대전 중앙성결교회(담임목사 이재섭)가 일간지를 통해 배포한 것으로 '승려복을 벗고 목사가 된 사탄들', '극락설은 사실인가?' 등이다. 이와관련 대전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수·용문사주지)는 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결의문을 발표하는등 강력대응하고 나섰다.

이날 결의된 내용은 전단내용 사실규명 및 전단을 배포했던 신문에 사과문 공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사암련측은 결의문의 내용에 불응할 경우 조사단을 파견해 진상조사함을 물론 대대적인 규탄법회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사암련측은 "약불사 훼불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도 성결교회서 자행됐다"고 지적하고 "이는 불교를 음해하려는 계획적인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천명했다.

선학원중앙선원 '방함록' 발견

1935~65년 동·하안거 스님·보살 명단 2권

선학원 중앙선원(원장 성해)에서 1934년부터 1965년까지 동·하안거에 수선 정진한 스님과 보살 명단을 기록해 놓은 〈방함록(芳啣錄)〉 2권이 발견돼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방함록〉에는 안거당시 선방의 소임과 해당 소임자의 법명이 기록되어 있다. 선학원 초대 이사장이었던 만공스님은 조실로서 선객과 '중앙부인선원'의 보살들을 지도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선학원이 선(禪)의 대중화에 진력했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선학원 설립조사인 남천·도봉·운봉스님 등은 화주를 역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효봉·동산·청담스님 등이 결제했던 것도 기록되어 있다.



한편 1930년대부터 기록된 두권의 〈방함록〉에는 1912년에 열반한 경허스님의 방함록서(序)가 수록되어 있어 필체·내용 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뉴스 & 뉴스

"환경보존, 경제보다 시급"

사찰환경보존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보완 환경영향평가의 보완 자연환경보존법의 하위법령마련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사찰과 불교의 가치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위원장 능관)가 8월 29일 총무원 1층 법당에서 개최한 사찰환경 침해 각종사례와 관련, 환경·제도적측면을 재점검하는 '사찰환경의 보존과 정책을 위한 환경교육과 공청회'에서 강력히 제기됐다.

서울-경기교사불자회 창립

서울·경기·인천 교사불자회가 19일 창립된다.

준비위원 조건균교사(서울대신고)는 "청소년포교 활성화와 교사들의 신심증장을 위해 불자교사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불자교사회에는 포교원에서 지난 해와 올해 개최한 불자교사연수회에 참가했던 1백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조계종 신도증소지혜택 확대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신도증소지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부여 등을 통해 신도등록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교부장 원혜스님은 2일 신도등록 10만명에 즈음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안까지 종단 관련 시설 이용시 혜택을 보다 구체화하며 불자들간의 상호부조를 북돋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교원은 동국대병원과 세무사불자회 등 직능단체와 진료비 및 수임료 할인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대불, 서돈각박사 총재 추대

대불련 총동문회 대불(이사장 명호근)은 31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에서는 임시총회를 열고 지도위원 대표이자 총재로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을 추대하고 대불국제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승인했다.

목탁소리

연꽃없는 연잎축제

고 영 배 〈취재부 기자〉

연꽃축제에 연꽃이 없다. 8월30, 31일 전남 무안군이 주최하고 광주·전남사암연합회가 후원한 연꽃대축제장에는 연꽃은 찾아 볼 수가 없었고 연잎만 무성할 뿐이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화사하게 핀 백련을 보기 위해서 부푼 기대감으로 모여든 10만여평의 회산연꽃방죽은 일순 실망의 기운이 가득 번졌다. 관광객들은 연꽃의 개화 시기가 맞지 않았으려니 생각들을 하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실제 연꽃이 없는 이유를 알고나면 이번 연꽃축제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마을 주민에따르면 "무안농지개량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이 방죽을 일반업자에게 3년전에 3년 계약을 맺고 연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업자는 지난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연근을 모조리 채취해 버렸다는 것. 이 사실을 모르는 불자와 관광객들은 간간히 피어있는 불과 몇송이 백련으로 아쉬움을 달랠 수 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무안군은 축제 양일간 전국사찰에서 단체로온 수만명의 불자와 관광객들을 농락한 것이었고, 성과위주의 전시행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주차시설의 미비로 차를 길가나 논뚝에 주차하게 되었고 화장실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었다.

후원을 한 광주·전남사암연합회측은 "전에 볼 수 없었던 불자들의 한마당이 됐으나 연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축제가 4월에 확정돼 준비가 부족했고, 예산부족으로 주차장, 음수대, 화장실등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시인하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 시설확충은 물론 철저한 연꽃관리로 세계 최대의 연꽃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전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백련의 향연을 기대해 본다.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FAX 053)943-9371

卍 육신통(육경신)도통·정진법회 卍

무위진인 육신통 대용맹정진에 입문하시여 대도인의 경지에서 도인·선사·신선의 지도자가 되시고 이 기도는 주인공과 장열한 氣를 찾아서 심신·정신·육신의 번뇌마장의 고통을 근본심지에 맞게 성취하는 대용맹 정진기도로써, 이 기도는 외도나 사도나 잡신수행도 아니고 이 정진수행으로 敬天動地 聖人出 亦江三日眞人出 六神道通奇人出 神出鬼沒正人出 參禪道通禪(仙)人出 소림사에서 직승하는 도장경중의 육경신 주문과 기문둔갑 심기선법·옴마니반메훔·참선 10장생법 강의·풍수지리및 동양철학 특강·개인지도.



〈大道眞人이 되는 六庚申 주문〉

입제일 : 97년 9월 14일 음 8.13. (일요일)
해제일 : 97년 9월 15일 음 8.14. (월요일) 15:00
회 비 : 5만원. (1박 2일 침식제공)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구모자원고개 하차)
전 화 : (휴대폰) 017-236-3110
02-821-6622 (야)02-923-3110
육신통(육경신)도통 회장 태일법사 합장

약(藥)이 되는 신비한 식물— 백화사설초
암을 퇴치하고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입증된
기적의 한국산 약초

신비의 약초 백화사설초 「암」치료에 탁월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가 간암·직장암·식도암·방광암·자궁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었던 바 불심짙은 우바이가 백화사설초의 효능을 몸소 체험한 후 재배를 확대,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신농산 대표 김나진자 보살은 C형간염·황달·당뇨 등이 겹쳐 사경을 헤매며 각종 양방과 한방을 썼지만 치료가 안돼 소문을 통해 듣던 백화사설초를 구입, 달여 복용한 결과 병이 치료되어 본인이 직접 이 약초를 재배하기에 이르렀으며 보급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백화사설초는 중국이 원산지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백운산에서 자생되는 것을 처음 발견 「백운풀」이라고도 부른다.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일년생 식물로 30㎝정도의 키에 연약한 대궁이 뱀의 혓바닥(蛇舌)처럼 생긴 잎에 흰꽃(白花)이 핀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백화사설초는 그 풀 전부를 약용으로 하며 암 이외에도 각종 염증이나 종기, 타박상에 특효 약초로 쓰인다.

또한 청열해독제(淸熱解毒劑)로도 이용되며 체내의 응어리를 풀어 독을 해소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불자 운영하는 「영신농산」서 보급
각종 염증·종기·타박상에도 효과

1997년 7월 16일자 대한불교신문기사 발췌

추천의 말	"백화사설초는 한의약의 대표적 항암생약이다." 한국자연생약보호협회장 이학박사 한영채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신비한 약용식물인 백화사설초" 경남생약연구소장 약학박사 성환길
백화사설초 주제발표	일시 : 1996년 10월 31일 23시 30분 KBS 국제건강가족등우회 박양호 실장(박사)

경남생약연구소의 성환길소장(약학박사)은 『백화사설초는 옛날부터 전해온 민간약으로 청열·종기·기관지염 등 각종 염증과 항암제로서 탁월한 효과가 있어 현대 천연약물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며 『백화사설초의 엑기스가 동물실험에서 악성종양세포에 강한 억제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대학 학장 이광전 박사는 "간암으로 홍콩의 권위있는 어느 병원에서조차 치료약이 없다고하여, 백화사설초를 매일 150g씩 진탕해서 복용하니까 3개월만에 완치되었다"고 한다.
(녹차와 약차(동화문화사 刊, 신재용 생활필서 중에서)

각종 문헌에 나타난 백화사설초의 효능
◆ 항암본초(상민의 편저, 김수철 역주)—위암, 식도암, 직장암, 자궁암, 기타암종
◆ 묘약기방(조규철 저, 범진문화사 刊)—간염, 장염, 요초감염, 행장염, 편도선염, 인후염, 각종 종기, 타박상, 위암, 직장암, 간암, 자궁경암, 방광암
◆ 한방의학 대사전(진존인 저)—간암, 위암, 식도암, 간염, 위염, 식도염, 편도선염, 직장염

영신농산총판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384—10
☎ 051) 465—5100,467—5200

병든지구 살리는 예술잔치

제2회 광주비엔날레 37개국 참여 11월27일까지…전화황특별전 불화 눈길



◇전화황作 '대곡사 아미타심존불' 1979년.

'97 KWANGJU BIENNALE 광주비엔날레

제2회 광주비엔날레가 1일 개막됐다. 오는 11월 27일까지 광주광역시 중외공원 문화벨트 등 71만평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는 '지구의 여백'.

'지구의 여백'은 현재 지구가 당면해 있는 복잡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왕성하게 작동하고 있는 힘들, 무수한 틈들, 균열들, 특이점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속도(水) △공간(火) △혼성(木) △권력(金) △생성(土) 등 음양오행의 다섯 개 소전시로 구성되며 전세계 37개국 총 100여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비엔날레는 본전시와 더불어 특별전, 광주통일미술제, 기념전, 후원전과 축제행사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중 기념전의 일환으로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2층에서 열리는 전화황특별展은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이 다수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젊은 한때 탁발행각 수행의 길을 걸은 바 있는 재일한국인화가 故 전화황(1909~1996)씨는 '미륵보살' '대곡관음' '사원의 풍경'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경숙 기자

◇광주비엔날레 전시 및 행사안내

대표전화	(062) 521-4627
행사안내	(062) 524-4725
PC통신	하이텔 go bien97
E-mail	biennale@bora.dacom.co.kr
인터넷	htt://www.kwangjubiennale.org

방송가 한가위특집 '풍성'

BBS 13~18일 교통 등 10시간 生放

불교TV 히말라야 라닥사원 르뽀기행

불교방송과 불교TV는 한가위를 맞은 각계각층의 모습과 세계 곳곳의 민속축제음악을 찾아가는등 한가위맞이 잔치준비에 여념이 없다.

불교방송은 귀향과 귀경이 집중될 13일과 18일에는 10시간 생방송 '라디오 전국 연결 1부~10부'(PD 이영준, 황용관 외)를 통해 교통·생활·문화정보 등을 전달한다. 이외에도 '한가위 밝은 달, 이웃과 함께'(PD 박상필), '동근 달, 밝은 세상'(PD 이영준)등 한민족이 갖는 세시풍속으로서 한가위의 의미를 되돌아볼 프로그램들을 마련 청취자들과 함께 한다. 불교TV도 라닥의 대표적인 사원이며 환생한 라마 닥상 라첸이 주지로 있는 헤미스곰바사원을 집중 조명한다.

◇한가위 방송시간표

BBS	15~16일	· '명시초대석 내고향 그곳엔' (11:15~12:00) · '음악여행-한가위만 같아라' 1부(12:10~13:00), 2부(13:05~14:00) · '민요노래방' 1부(14:10~15:00), 2부(15:05~15:45) · '날맞이 동요 한마당' (16:05~17:00) · '동근 달, 밝은 세상' (17:00~18:00) · '고향의 노래' (18:15~19:00)
	15~17일	· '한가위 밝은 달, 이웃과 함께' 1부(7:15~7:55), 2부(8:15~9:00) · '경전 속의 설화' (10:05~10:55) · '한가위 우리 영화 특선' (22:05~23:00) · '에밀의 세계 민속음악 여행' 1부(24:00~01:00),2부(01:00~01:55)
btn	15~16일	· 추석특집 '남매다 좋은날' (10:20~11:10), (10:00~11:00) · 특선영화 '명품명의 까마귀' 1~2부(12:00~13:00)
	16일	· '명진사택 경사' (11:00~12:00)
	17일	· '대동굿들이' (09:10~10:10) · 특집해외르뽀 '히말라야의 미소 라닥' (10:10~11:10)

"불심담기니 연기가 살아요"

'용의 눈물' 이숙번 역 선/동/혁



"제 좌우명이자 인생관이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뜻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불교적인 사고와 시각을 생활에 반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한창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KBS TV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PD 김재형)에서 중반부 폭풍의 눈으로 떠오르는 인물 이숙번 역을 맡고 있는 탤런트 선동혁씨(42). 거칠어 보이는 연기를 하고 분장을 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임을 강조하는 그를 '용의 눈물' 녹화 현장에서 만났다. 연기경력 16년, 주목받는 배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선씨는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 마당놀이, 연극등 다양한 장르를 거뜬히 소화해 내는 베테랑 배우다.

"'용의 눈물'에 캐스팅 됐을 때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출연함으로써 시청률 5%만 올려주시고,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좀 교만했었나 봅니다. 시청률은 올라갔는데 저는 허리를 좀 다쳤거든요."

그는 불자들에게 '용의 눈물'을 자신이 지은 업을 비켜가지 못하고 대대로 이어지는 인과응보, 사필귀정의 맥락에서 보아달라고 당부한다. 결국 조선의 역사를 윤회와 인연의 고리에서 해석해 가는 불교적인 드라마라는 것.

인과응보 입장서 보면 드라마 더욱 흥미진진

'용의 눈물'로 주목받는 연기자가 됐지만 데뷔후 5년 동안의 무명시절이 가장 어려웠었다고 회고하는 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계기가 독실한 불자인 어머님의 기도와 기대였다고 말한다. 그러한 어머니의 불심이 자신에게 연기자로서 다양한 인생을 경험하고 시청자들에게 꿈과 즐거움을 전달하는 것 또한 보시고 공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됐다고 한다.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역으로 행사 반장역과 스님역할을 꼽는 그는 만해스님이나 성철스님 서옹스님 또는 법정스님 등의 생애를 그리고 싶다고. 탄허스님과 대만의 유명한 학자 임어당 선생을 존경한다는 그는 특히 탄허스님의 남다른 화엄경 해석이라든가 투철한 수행이 마음에 와 닿아 그분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강지연 기자

다시 찾은 인생 ② 〈끝〉 주부신행담

이미 난 첫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결혼한 대부분의 여자가 그렇듯이 난 남편을 닮은 사내아이를 낳고 싶었다. 죽을지 모르는 병에 걸렸다는 슬픔보다 아이를 잃어야 한다는 아픔이 더 컸다. 그러나 포기해야만 했다. 아이도 나도 모두 건강할 수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종교문제로 집안에 분란이 일고 있을때 건강문제로 또다시 어수선하게하자 시댁에선 나를 남의 집사람 대하듯 하셨다. 시댁 식구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다. 결국 시부모님은 지쳐있는 나에게 당신 아들과 헤어지길 원하였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남편이 힘이 되어 주었다. 시부모님께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나에게 용기를 주려 했고, 끝내는 회사마저 그만두고 내 병상을 지켜주었다. 그리고 시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며 나에게 설득을 했다. 남편은 또 '데려와 고생만 시키는구나'라는 말로 미안해했다.

나는 남편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병상을 털고 일어나고 싶었다. 수술을 받고 열심히 방사선 치료를 다녔다. 통원치료를 하러 다니고부터는 남편과 함께 절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만큼 마음이 편하다고 느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사실 난 그때까지만해도 속으로 시부모님을 미워하면서 겉으로는 흡족한 며느리가 되려고 눈속임에 불과한 노력을 하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었다.

시부모님을 미워하며 눈속임 노력을 하느라 지쳤는데 화엄경 구절은…



그림 · 이준석

부처님은 그런 날 꾸짖기는 커녕 마치 그런 날 모두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지긋하게 내려다보고 계셨다. 나를 이해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눈물이 솟구쳤다.

그후 나는 남편에게 부탁해 조계사 인근에 있는 불교교양대학을 나가기 시작했다. 남편도 생소한 곳에 혼자 가는 것에 용기를 내지 못하던 나를 위해 눈코 뜰새없이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두번씩 꼭 시간을 내어 주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은 커져만 갔고, 불교에 대한 호기심은 깊어만 갔다.

불교교양대학에서 부처님의 생애에서부터 불교사에 이르기까지 또 반야심경, 금강경, 아함경 등 다양한 경전을 2년여 동안 공부했다. 불교에 대해 어렴풋 감은 잡을 수 있었지만 내 가슴 속에 전해져 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웠고, 나는 '그동안 무엇을 좇으며 살아왔나'라는 의문으로 혼란스러웠다.

남편은 그런 나에게 큰스님 법문을 들어 볼 것을 권했다. 불교용품점에서 권해준대로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한 한 스님의 법문테잎을 구입한 나는 앉으나 서나, 잠자리에 들어서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법문을 들으며 잠을 잤다.

그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휘뿌연 안개는 걷혀질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5년 전부터는 큰스님이 주석해 계신다는 전국의 사찰을 찾아가 법회를 들었다. 그러다 상계사에 갔을 때의 일이다. 고산스님이 법상에 오르시고는 대뜸 부처님 첫 사자후를 빌어 말씀하시겠다며 "모든 중생류, 심지어 미물, 곤충, 초목, 총림에 이르기까지 그 불성 자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이거늘 왜 암흑세계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저 부처님에게 매달리며 바라기만 할 뿐이죠"라고 법문을 시작하셨다. 가슴이 뜨끔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런 나의 심정을 눈치라도 채셨는지 스님은 "〈화엄경〉에 '얻는 복은 거러지복이요, 주는 복은 보살복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거러지복을 계속 지으려고만 하니 참 암담한 노릇입니다"고 일침을 주셨다.

그때 나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 무엇의 정체를 찾은 것 같았다. 허깨비로 살아온 나는 그제서야 시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더 나아가 이웃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비로소 할 수 있었다.

박성희〈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방/송/단/신

위성과외방송 실시후 케이블TV 가입 늘어

8월25일부터 시작된 EBS 위성과외방송으로 케이블TV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위성방송 수신TV가 3백만원을 호가하는 등 고가여서 대부분의 가구가 케이블TV나 중계유선TV로 몰릴 것이라는게 업계의 예측이다. 실제로 광고보다 가입신청률이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 시청가구 1가구당 현재 171원 60전의 수신료를 받고 있는 불교TV역시 케이블TV 가입가구 증가 소식을 접하고 열악한 재정난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불교TV 프로그램 수출

불교TV는 2부작 다큐멘터리 '고려대장경'을 내년 1월1일 개국 예정인 대만 케이블TV 불교채널에 2년동안 독점 방영키로 계약을 맺었다. 또 일본 재일총본산 보현사 분원인 원효사에서 다큐멘터리 '발우공양' 납품을 의뢰해 수출할 계획이다.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97 문화유산의 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보급

· 청동 100%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높이 40.5cm

조각기능 지정문화재 이진형 선생이 재현한
국보 제 83호 축소모형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2,737-8881

■ 지역 구입 문의 안산 (0345)411-4580 목포 (0631)281-2534 부산 (051)634-5114 광주 (062)375-9986
속초 (0392)636-3923 인천 (032)461-3461 강릉 (0391)651-9317 영주 (0572)34-3429
대구 (053)768-8008 대전 (042)625-1080 공주 (0416)55-0020 청주 (0415)63-3873
진주 (0591)747-0106 예산 (0458)33-5097 포항 (0562)252-7749 마산·창원 (0551)84-0735

평소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전하는 분의 품위가 기억됩니다.

■ 불교문화의 정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개인소장용으로 간직하실 수 있는 더없는 기회입니다. ■